수시 16-33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연구

A Study on Sustainable Village for the National Territory Development

김선희 외

국토연구원
KRIHS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연구

A Study on Sustainable Village for the National Territory Development

김선희, 차은혜, 임경수, 조영국, 윤현위, 김명한, 장 원, 정석호

■ 연구진

김선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구책임)
차은혜 국토연구원 연구원

■ 외부연구진

새마을운동연구소
임경수 소장(성결대학교 교수)
조영국 위촉연구위원(협성대학교 교수)
윤현위 위촉연구위원(인천대학교 일본문화 연구소 상임연구원)
김명한 위촉연구보조원(가천대학교 연구원)
장 원 대표(다별자연학교 연수원)
정석호 팀장(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센터)

■ 연구심의위원

김종원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양진홍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변필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1 본 연구는 미래 국토발전을 위하여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을구조 특성과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음

2 마을의 개념과 의미는 시간축과 공간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일정한 경계 내에서 일정 규모의 주민들로 이루어진 취락구조와 공동체성이 내재화되어 있는 공간개념으로서의 마을과 관계로서의 공동체 개념으로서의 마을이 핵심개념이 잠재되어 있음(임경수, 2015)

- 좁은 의미에서의 마을은 일정규모의 인구와 가구로 구성된 지리적·물리적 정주공간을 토대로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함께 영유하는 단위라고 정의할 수 있음
- 넓은 의미에서의 마을은 일정규모의 인구와 가구에 구애받지 않고(이상 또는 이하로) 전통적으로 인식되는 지리적·물리적 정주공간의 규모와 상관없이 스스로 자족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구성원들 모두가 공동의 목표와 소속감을 갖고 경제적 사회적 생활을 영유하는 단위라고 정의할 수 있음

3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마을공동체가 변화되고 있고, 최근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 등으로 마을쇠퇴가 가속화되면서, 미래국토발전의 기본셀(cell)로서 국토와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함의 도출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전국 6개 마을(경주 양동마을 등)의 구조적 특성과 변천과정 사례분석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1 마을은 가옥들의 집합체를 넘어 커뮤니티 혹은 공동체의 단위라는 의미를 가지며, 마을의 지속가능성이란 커뮤니티(community)로서의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말함

2 사례 조사 마을 중 경주의 양동마을이 이러한 마을의 기본기능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의 마을로서 마을이 가진 유무형의 자원(역사적 전통, 공동체 문화, 경관자원 등)들이 주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인식되면서 그 가치가 유지되고 있음. 나아가 이러한 자원이 실질적인 생계자원으로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이를 고양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연대와 협력, 관계망 형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양동마을 이외 마을들은 상호면식을 바탕으로 한 일상적 접촉, 여가시간 함께 하기 등의 사회적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은 제한적이어서 마을기능 약화로 표출되고 있음
- 농촌지역 대부분의 마을들이 근린 정도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전반적으로 정주성 위기를 겪는 소규모 마을들은 미래 고립 분산되는 공간구조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어, 국토관리 상에 문제지역이 될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됨

3 국토관리 관점에서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정주권사업, 낙후지역사업과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읍·면소재지 활성화사업 등 농촌지역 서비스공급개선은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정주의지 제고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임

- 특히 고령화, 저성장시대를 맞아 다면화된 생활 욕구를 공공부문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무엇보다도 서비스공급권이란 공급자와 원자화된 서비스 수요자의 연결체제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공동체 기능을 발휘하면서 국토관리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4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미래국토 전망 등을 토대로 볼 때, 향후 기존 다수 집단과 다른 행동양식을 가진 인구집단이 조만간 농촌지역의 주류집단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거이전을 통한 집락재편정책 대신에 “집락연합 커뮤니티 육성정책” 모색이 요구됨

- 일본은 주민의 인식공간과 행동공간을 반영하여 복수의 집락을 묶어 광역적 농촌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집락연합정책’을 통해, 커뮤니티 스스로 생활환경의 유지, 산업의

진흥, 주민복지의 향상 등의 가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강한농촌커뮤니티'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아울러 기존 지역개발사업(정부, 지자체)의 추진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5 미래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정책과 과제 제안(안)

- 미래국토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방안 모색
- 마을 정주공간 개선 및 관리방안 모색
- 마을 간의 생활권 협력 제휴 강화
- 마을의 지속가능한 교육과 일자리 시스템 마련
- '마을기본법' 제정과 지원책 마련
- 마을 활성화를 위한 중간조직 육성과 활동공간의 마련

차 례

CONTENT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i

제1장 서론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7
   2) 연구의 내용 ····· 8
   3) 연구 방법 ····· 9
3. 연구의 기대효과 ····· 12
   1) 학술적 기대효과 ····· 12
   2) 정책적 기대효과 ····· 12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3
   1) 선행연구 현황 ····· 1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3

제2장 지속가능한 마을 개념 및 변천과정 **17**

1. 마을의 개념 ····· 19
   1) '마을'의 의미 ····· 19

2) '마을'의 정의 ····· 21
2. 국토정책 맥락에서의 마을 변천과정 ····· 24
1) 우리나라의 마을 규모 변화 ····· 24
2) 국토정책적 맥락에서 마을의 의의 ····· 25
3) 국토정책적 맥락에서 마을범위의 문제 ····· 27
3. 지속가능한 마을의 개념, 공동체성 및 공간성 ····· 29
1) 지속가능한 마을의 개념 ····· 29
2) 지속가능한 마을의 공동체성과 공간성 ····· 31

제3장 국토공간에서의 마을단위 정책과 해외사례 35

1. 국토정책과 마을관련 정책 ····· 37
1) 농업농촌정책의 변화 과정 ····· 37
2)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39
3) 마을공동체 관련 중앙정부 부처 ····· 41
4) 부처별 마을공동체 관련 주요 정책 ····· 46
2. 새마을운동과 마을의 변화 ····· 56
3. 미래 국토트렌드 전망과 마을의 변화 ····· 59
1) 미래 메가트렌드 변화 전망 ····· 59
2) 미래 국토 시나리오와 농촌 마을변화 전망 ····· 65
4. 해외사례 : 일본 마을의 변화와 특성 ····· 68
1) 일본마을의 현황과 변화 ····· 68
2) 사례지역 선정 ····· 75
3) 사례지역 분석 ····· 77
4) 사례지역 조사 결과의 논의 및 시사점 ····· 87

제4장 사례지역 : 마을 특성 및 변천과정 91

1. 분석틀과 사례마을 선정 ····· 93
1) 사례분석의 기조와 관점 ····· 93

2) 사례마을 선정 ····· 95
2. 사례지역 조사 분석 ····· 99
1)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 ····· 99
2)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구림지역 ····· 109
3)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마을 ····· 120
4)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하얀민들레생태마을 ····· 133
5)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봉전마을 ····· 140
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마을 ····· 148
3. 사례지역 조사·분석 소결 ····· 155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59

1.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161
1) 주요 연구결과 ····· 161
2) 정책적 시사점 ····· 164
2. 미래국토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정책과 과제 ····· 166
1) 미래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방안 모색 ····· 166
2) 마을 정주공간 개선 및 관리방안 ····· 167
3) 마을 간의 생활권 얼라이언스(Alliance) 강화 ····· 168
4) 마을의 지속가능한 교육·일자리 시스템 마련 ····· 169
5) “마을기본법” 제정과 지원책 마련 ····· 170
6) 마을 활성화를 위한 외부활동가의 육성과 활동공간의 마련 ····· 171
3. 연구의 한계 ····· 172

참고문헌 ····· 173
SUMMARY ····· 181
부록 1. 설문조사 양식(영암 구림마을 사례) ····· 185
부록 2. 협동연구진 회의 및 사례마을 답사, 전문가 특강 등 회의내용 ····· 190

CHAPTER 1

서론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3

0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07

03 연구의 기대효과 12

0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CHAPTER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마을쇠퇴 현상에 대한 입체적 규명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마을의 쇠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OECD 출산율 최하위권에 속한 우리나라 국토에서의 인구고령화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49.5%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경제활동을 위하여 대도시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 24.3%, 2050년 27.4%로 예상(통계청, 2016a)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134개 행정구역 중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지 않은 지역은 없으며, 58.2%에 해당하는 78개 지역이 초고령화 수준에 진입(통계청, 2016a)

❑ 농촌지역은 인구의 과소화, 노령화로 인구학적 변동 이외에 기술발전, 농가의 양극화, 농촌경제의 다양화 등으로 농촌 마을이 물리적으로 쇠퇴하고 공동체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15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농림어가는 123만 7천 가구로 2010년(134만 3천 가구)보다 10만 6천 가구(7.9%) 감소하였으며, 인구는 292만 4천명으로 2010년(349만 9천명) 보다 57만 4천명(16.4%) 감소함(통계청, 2016b)

- 2015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농림어가 인구의 고령인구 비중은 37.8%로 전체인구(13.1%) 보다 2.9배 더 높음(통계청, 2016b)
- 때문에 마을쇠퇴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사회·경제 공간의 변화에 대한 입체적 규명이 필요한 상황임

❑ 교통통신 발달, 도로망 확충 등으로 국토 공간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농어촌 마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성주인 외, 2015)

- 과거 접근성이 불리한 산간 지역 마을이 새로운 정주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농업지대에 기반을 둔 지역 구분의 적실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냄

❑ 나아가 마을 기능 상실에 따라 조만간 국토공간의 상당 부분이 인구의 재생산 기능을 상실한 공백지대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또한 현상을 선험한 해외의 사례지역을 선정, 마을단위 공간변화 과정을 파악하고 나아가 정책적 지원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이러한 변화과정과 상호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에 대한 가치 재조명 및 관심 증대

❑ 최근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마을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공간정책 차원에서 마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여러 가지 실험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국가의 기능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취약한 면모를 보임
- 따라서 국가–마을–개인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를 복원하여 개인과 국가의 대응능력을 보완하는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관점 대두
-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은 마을이 가진 공유경제적 가치에 착목하여 이를 현대적으로 변형한 시도라고 할 수 있음
- 나아가 도심재생의 구체적 추진전략으로 공동체 단위의 공동사업의 전개, 도시 내 마을 복원 등이 주목을 받고 있음

❑ 그 밖에 마을과 마을공동체는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마을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음(김기홍, 2014)

- 지역공동체인 마을은 자연재해를 공동으로 예방할 수도 있고, 자연재해가 닥치면 힘을 모아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위기에 대응할 수도 있으며, 재해 복구에 나설 수도 있음
- 마을은 최근의 주요 현안인 에너지 고갈과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단위로 역할을 할 수 있음
- 세계 각국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마을 공동체의 복원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로 주목받고 있음

(3) 마을단위 모듬살이의 실재적 기반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실태분석

❑ 마을은 장소에 기반을 둔 모듬살이의 공간이며, 직접적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단위이고 구성원에게 특별한 연대감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기반임

- 마을은 사람들이 가족을 넘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토대가 되는 단위임

❑ 또한 마을은 다른 커뮤니티와 달리 구성원을 재충원하고, 구성원의 존속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며, 긴장과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갖춘 항상성을 가진 사회시스템임

- 이런 점에서 마을은 한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핵심적 단위임

❑ 마을의 본질은 개별 가옥들이 모여 있는 지리적, 물리적 속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장소에서 직접적이고 항상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바탕으로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사회집단임

- 이러한 점에서 취락과 마을은 엄연히 구분될 수 있음

❑ 하지만 마을단위 모듬살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나 이론적 검토는 드물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마을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4) 마을단위 모듬살이의 향후 전망에 대한 탐색 필요

❑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마을 쇠퇴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마을은 시대적 변화에 조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예컨대 장소자산을 가지고 있어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과 점차 마을의 기능이 쇠퇴하고 공동체가 약해지고 있는 마을을 비교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적응하면서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인과 동력에 대해 생각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

-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의 공통적인 특성 및 향후 전망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 도출

(5) 21세기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함의 도출

❑ 이용우 외(2014)는 미래 국토공간에 대해 4개 유형의 시나리오로 전망하고 있으며, 각 시나리오에 따라 농촌마을의 변화도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밀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 4개 유형의 시나리오는 메가도시권 성장 시나리오, 자족적 분산 시나리오, 분산적 집중 시나리오, 다중심 초연계 시나리오임

❑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도 '마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다양한 '마을만들기', '마을활성화' 관련, 정책적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만들기'와 '마을활성화'를 정주시설의 확충과 같은 정주여건의 개선 혹은 농가의 소득증대사업의 한 형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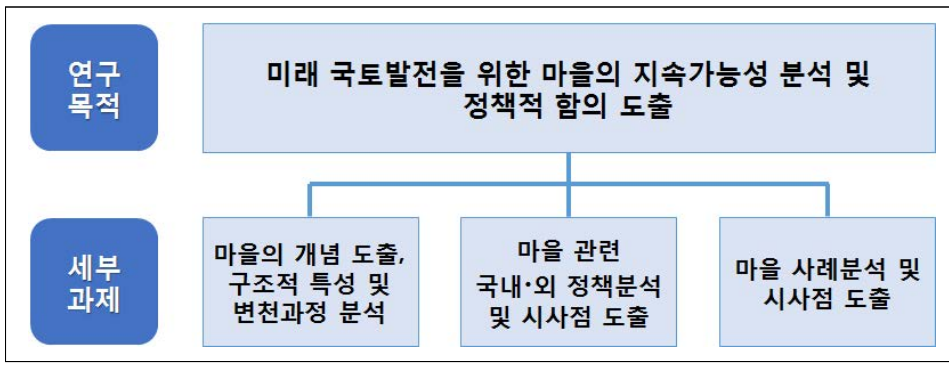
❑ 이런 차원에서 전술한 연구배경과 그 필요성에 부응하여 마을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좀 더 현실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국토발전 차원에서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과제를 설정

- 첫째, 마을의 개념을 정립하고 마을의 구조적 특성과 변천과정을 분석함
- 둘째, 마을과 관련된 국내와 해외의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셋째, 우리나라의 마을 중 마을 공동사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어온 마을들을 대상으로 마을의 기능적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그림 1-1 연구의 목적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농촌지역 마을단위로 설정함

- 우리나라의 마을에 대한 개념을 정립, 유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 마을을 분석하고 특성을 도출함
- 사례지역 분석은 주로 농촌관광·친환경농업·6차산업화 등 마을공동사업을 활

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진 마을들을 대상으로 하였음

❑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인위적으로 제약하지 않음

- 마을단위의 전통적 공간형태를 논하는 내용에서는 1960년대 이전의 과거의 시간축으로 이동할 수 있음

❑ 다만 연구의 주요 시간적 범위는 마을공간단위의 변화가 가장 컸던 1970년대 이후를 주요 시간적 범위로 설정함

- 제1차~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기간 고려
-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요 부처 및 지자체 단위의 마을단위에 대한 주요 정책 분석

2) 연구의 내용

❑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마을의 그 변천 양상을 분석함

- 우리나라 마을의 기능 및 정주체계로서의 위상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논의함

❑ 마을에 관한 다양한 학술적 논의를 검토하고 마을의 이념형적 특성을 도출함

- 마을의 본질, 작동 메커니즘과 아울러 최근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마을의 가치에 대한 학술담론을 정리하고 국토정책적 맥락에서 마을의 의의를 논의함

❑ 지금까지 전통적 마을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마을공동체적 활동이 유지되고 있는 지속가능성이 높은 마을들을 사례로 그 구조적 특성을 파악함

- 취락의 형태적 구조, 기능적 구조, 내부 구성요소의 구성 등의 특징을 일반적 마을들이 가진 특징과 비교 분석

❑ 해외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된 사례지역에 대한 현황분석과 지자체,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와 비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마을 단위 정책의 동향을 정리함. 특히 새마을운동의 전개와 그 영향 그리고 그 이후 마을단위 정책들의 내용을 분석

❑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

- 마을공간구조의 변화 전망을 정리하고, 이 전망을 토대로 현행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함

3)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및 현지 조사

❑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문헌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2차 자료 분석 등을 실시함

- 문헌연구를 통하여 마을 및 마을공동체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마을 관련 정책 사례 조사 등을 진행

(2) 사례 마을의 기능적 특성 분석

❑ 사례 마을들을 대상으로 마을의 인구 및 경제활동 변화를 비롯하여 마을의 취락구조·공동체적 기능·공간요소 등의 변화 실태 등을 분석하였음

-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인터뷰는 반 구조화된 설문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음

❑ 취락구조의 시계열적 변천과정과 특성

- 자연부락/행정리/법정리 단위에서의 취락 구성관계 변화 양상: 가구수 및 평균 규모, 취락구성관계 등

❑ 마을의 공동체적 기능 특성

- 마을의 기본기능 측면에서의 주민 행동공간, 사회관계망 분석
- 주민의 정체성 분석: '우리 동네' 인식 범위와 인식 배경 분석
- 공동체적 기능, 주민행동공간, 사회관계망, 정체성 인식 등에 나타난 공간적 특성 파악

❑ 마을 공동공간요소의 실태

- 마을공동공간요소의 종류와 이용실태, 주민의 평가(우물, 마을회관, 당산나무 등)
- 공동공간요소에 대한 주민 평가는 마을의 기본기능 충족과 정체성 형성 측면에서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마을단위 모듬살이의 지속성에 대한 원인과 그 전망에 대한 분석

❑ 연구진들이 직접 사례 마을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하여 연구의 질적 성과를 높임

- 마을공동체적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사례지역(예, 경주 양동마을, 홍성 홍동면 마을, 영암 구림마을, 포항 문성마을 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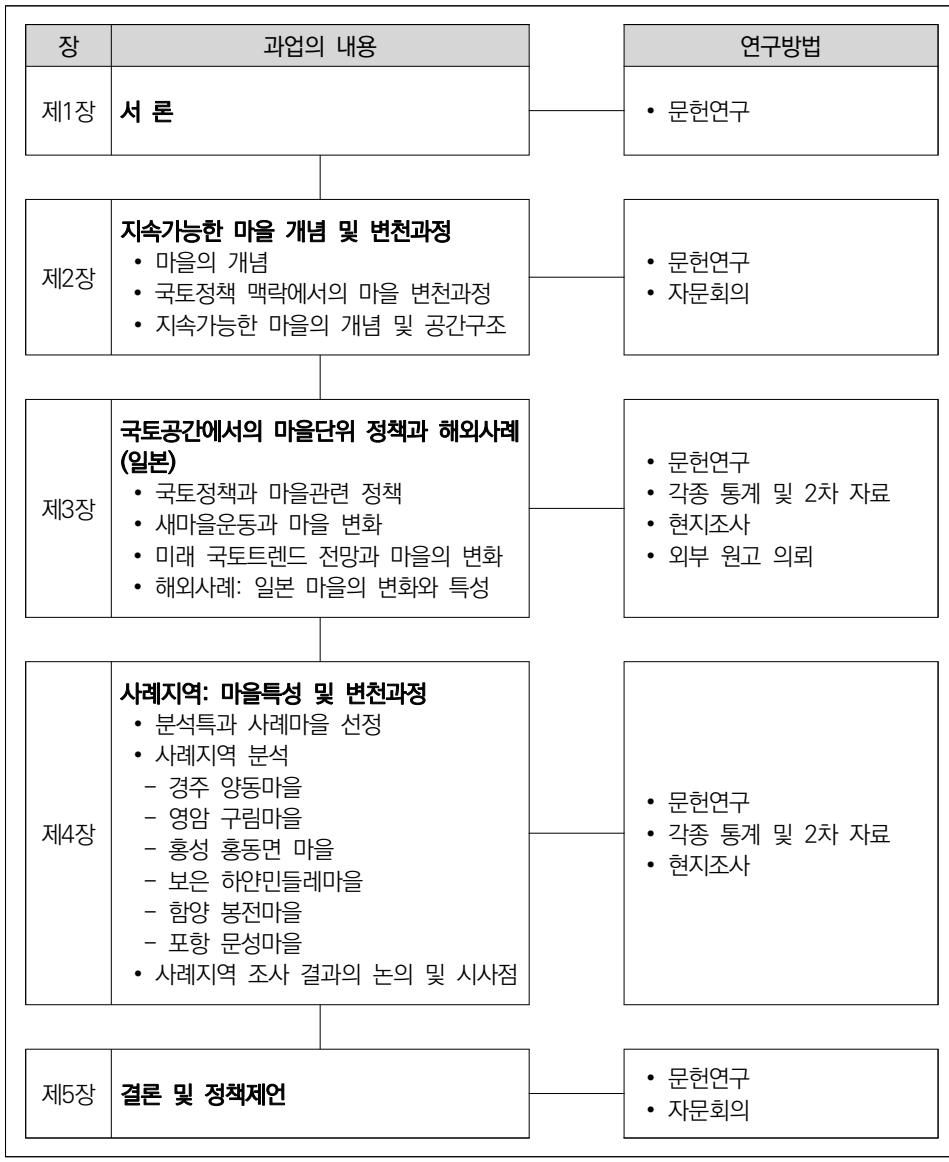
❑ 분석내용과 방법은 마을단위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 툴을 적용하되 마을주민 면담, 설문지 조사 등 보다 마을의 지속성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방법을 동원

(4) 자문회의, 워크숍, 세미나 개최

❑ 그 밖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자문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연구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

-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서 연구 내용에 대한 자문회의를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그림 1-2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3. 연구의 기대효과

1) 학술적 기대효과

❑ 마을은 인간 모듬살이의 가장 기초적 단위라는 점에서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1차적으로 연계되는 공간임. 이런 점에서 장소적 개념으로서만 다룰 수 없는 복합체적 시스템을 내재하고 있음

- 이런 점을 이 연구에서 밝혀냄으로써 마을에 관한 기존의 시각을 뛰어 넘어 새로운 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마을에 관한 다기한 연구를 몇 가지 기준(criteria)을 가지고 분류하고 그 각각의 특성을 도출, 마을과 관련한 다양한 주장과 담론을 종합, 정리하여 마을공간과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의 사회경제적 연계망의 원리를 구명

2) 정책적 기대효과

❑ 경제사회변화에 따른 시계열적 마을공간구조의 변화와 특징에 대한 입체적 규명을 통해 경제글로벌화, 저출산 고령화, 과학기술의 발달 등 미래 경제사회변화에 조응하는 마을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공론화 토대 제공

❑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해외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마을공동체의 해체 현상에 대응하는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마을은 인류문화의 저수지며, 인구의 공급처”란 사회학자 아더몰간의 정의에 근거, 본 연구를 통해 인구감소·고령화시대, 문화르네상스 시대의 정책대안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마을의 역사와 변화과정을 조사하는 깊이 있는 행정조사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 최근의 주요 선행연구로는 우리나라의 마을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전망에 관련된 연구와 마을만들기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가 있음

- 성주인 외(2015)「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안」, 김현수(2013)「공간계획으로서의 마을계획 도입방안」, 최인수·전대욱 (2014)「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재정 지원방안 연구」, 최은영 외(2014)「GIS에 기반한 충청남도 농어촌마을의 변화 분석(2005~2010)」, 윤정미 (2014)「충남 기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Ⅰ」 등이 있음
- 그 밖에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통한 마을 공간구조의 변화 및 마을만들기 방안 도출에 관련된 선행 연구가 있음
- 소진광·김선희(2010)「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 공간구조 개편 연구」, 김동윤·이경록(2015)「새마을운동과의 비교를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천전략 연구」, 조석주(2013)「새마을운동 재조명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 등이 있음

❑ 이들 연구에서는 새마을사업의 전개과정과 새마을사업을 통한 마을 단위의 공간요소변화를 살펴보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지역사회 재건의 경험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마을 현황에 대한 특성 분석 및 전망,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마을 공간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마을공간요소 변화에 미친 영향을 지역사회 거버넌스 관점과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분석하고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공간구조 개편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따른 마을공간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미래 경제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마을공간구조 개선방안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데 차별성이 있음

- **(연구목적)** 우리나라 국토 구성요소로서의 마을 공간구조의 특성을 분석한다는 점에서는 선행연구와 유사하지만 그동안 전통적 마을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사례마을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마을지속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그리고 이 지속가능성과 사회경제공간의 변천과정 간의 상호 연계성을 구명한다는 점, 향후 마을단위 공간구조의 개선방안과 정책적 함의 도출한다는 점 등의 연구목적에서 차별성이 있음
- **(이론적 접근)**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마을을 "그저 있는 그 자체"로 보고 귀납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마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화두를 던지고 마을에 대한 연역적 접근을 통해 개인, 마을모듬살이, 마을공간과 삶의 터 등으로 엮어진 사회경제적 네트워크에 관한 21세기 거시담론의 한 장을 열고자 함.
- **(연구방법)** 다른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문헌 연구, 2차 자료 분석, 현지 사례마을 심층 조사 등을 실시함.
- 기존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마을의 취락구조, 마을의 기능적 특성, 마을 공동공간요소 등 세 가지 분석 틀을 활용함.
- **(기타 연구내용)** 마을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부터 우리나라의 마을단위 정책을 조사하고 마을 공간구조와 기능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마을단위의 공간구조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함께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내용에서의 차별성이 있음

표 1-1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방안 • 연구자(년도): 성주인 외 (2015) • 연구목적: 농어촌 마을의 정주 여건을 분석을 통한 변화 방향 전망 및 정책 방향 제시	• 문헌조사 • 통계자료 분석 • 사례 지역과 마을의 조사 분석	• 농어촌 변화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선진국 농어촌 동향 조사 • 우리나라 농어촌 변화 분석 • 사례지역 조사 분석 • 사례지역의 마을 단위 심층 분석 • 향후 추진 과제 제시
	2	• 과제명: 공간계획으로서의 마을계획 도입방안 • 연구자(년도): 김현수 (2013) • 연구목적: 효과적인 마을만들기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방안 제시	• 문헌조사 • 실증사례분석 • 해외사례 검토	• 마을만들기와 관련제도 현황 • 마을만들기 추진사례분석 • 공간계획으로서의 마을만들기 • 마을계획 도입방안 • 제도화의 조건
	3	• 과제명: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재정 지원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최인수·전대욱(2014) • 연구목적: 강원도 18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및 지원방안 마련	• 문헌연구 • 정책자료 조사분석 • 사례연구 • 현장조사	• 마을공동체 관련 법제도 및 지원체계 현황 조사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추진현황 분석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방안
	4	• 과제명: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공간구조 개편 연구 • 연구자(년도): 소진광·김선희(2010) • 연구목적: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공간구조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문헌연구 • 현지답사 • 실증사례분석 • 자문회의	• 새마을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 • 새마을운동의 성과 • 새마을운동과 마을 공간구조 개편논리 •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 공간구조 개편사례 • 정책적 시사점
	5	• 과제명: 새마을운동과의 비교를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천전략 연구 • 연구자(년도): 김동윤·이경록 (2015) • 연구목적: 새마을운동의 성공 전략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 방안 제시	• 문헌연구 • 실증분석 • 집단인터뷰 및 설문	• 새마을 운동과 마을만들기의 상관성 • 새마을운동의 전략적 추진과정 • 마을만들기 성공전략요소 도출 및 전략모형 구축 • 한국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천적 전략모형 구축
	6	• 과제명: 새마을운동 재조명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 • 연구자(년도): 조석주 (2013) • 연구목적: 새마을운동의 긍정적인 요인을 도출하여 현재의 마을공동체사업에 접목시켜 마을공동체를 보다 활성화	• 문헌조사 • 실증사례분석 • 전문가 자문 워크숍	• 새마을운동의 의의 및 추진배경 • 새마을운동의 성과 •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과 문제점 • 새마을운동 재조명과 마을공동체 사례분석 • 새마을운동 재조명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본 연구		• 과제명: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연구 • 연구목적: 다양한 유형의 마을 특성을 분석하여 미래국토발전에 조응하는 마을 지속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 도출	• 국내외 문헌 검토 • 협동연구 • 실증 사례 분석 • 전문가 의견수렴	• 지속가능한 마을 개념 및 변천과정 • 국토공간에서의 마을단위 정책과 해외사례 • 사례지역의 마을특성 및 변천과정 •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마을 정책과 과제

자료: 저자 작성.

CHAPTER 2

지속가능한 마을 개념 및 변천과정

01 마을의 개념 19

02 국토정책 맥락에서의 마을 변천과정 24

03 지속가능한 마을의 개념, 공동체성 및 공간성 29

CHAPTER 2

지속가능한 마을 개념 및 변천과정

1. 마을의 개념

1) '마을'의 의미

❑ '마을'은 순우리말로 그 어원을 살펴보면 'ㅁ·ㄹ' + 'ㅅ·ㄹ'의 합성어로, 그 후 'ㅁ·ㄹ'에서 'ㄹ'이 탈락하고 'ㅅ·ㄹ'에서 'ㅅ'이 유성음화하여 생겨남

- 여기서 'ㅁ·ㄹ'은 '촌(村)'을, 'ㅅ·ㄹ'은 '곡(谷)'을 뜻한다. 'ㅁ·ㄹ村'은 '땅(地)'과 '뭍(陸)', '묻다(埋)', '마당(場)', '뫼(山)', '매(野)', '모래(沙)'의 의미를 가짐(원자료: 한국어원학회; 김기홍, 2014)
- 'ㅅ·ㄹ谷'은 모음교체 현상으로 나중에 '실'이 되는데 '흙(土)'을 의미하며 흙으로 만든 토기를 '시루'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임
- 실은 의미가 확장되어 '谷'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돌실石谷', '닭실酉谷', '밤실栗谷' 등과 같은 마을 이름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음

❑ 한편 "마을"의 어원을 "무리(群)"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며 이 무리는 공동운명체적 무리를 뜻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문병집, 1979; 333-334)

❑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마실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에 마을을 만들었는데 이 마을을 한자로 표기하면 동(洞)으로서 이는 "한 우물을 먹는 사람들"이란 뜻이며, 결국 마을은 한 우물을 먹는 공동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이용교, 2016)

❑ '마을'이라는 개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는 '촌락', village' 등이 있음

- 촌락(村落): 도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주로 농림업·수산업·목축 등과 같은 제1차 산업에 의해서 생활하는 지역사회를 말하며 촌락은 시대나 지역차에 따라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음

- 촌락은 물을 얻기 쉽고 토지생산성이 좋으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로 위치하며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배산임수(背山臨水) 지역에 촌락이 형성되었음(두산백과사전 홈페이지, 2016년 8월 10일 검색)
- 중국에서는 한자로 '마을 촌(村)'을 사용하는데 村은 나무가 규칙적으로 심어진 공간을 의미하고, 村은 邨의 속자로 마을邨은 고을읍(邑)과 진둔(屯)이 합친 글자로서 마을은 진을 치는 장소 개념(김기홍, 2014)
- village의 어원은 로마어 villa로 그 의미는 "시골에 정원과 농원을 갖춘 대저택"으로 village가 중세에는 시골, 농촌이라는 뜻으로 굳어짐(김기홍, 2014)
- village는 'hamlet[1)]' 보다는 크고 'town' 보다는 작은 인구 수백에서 수천까지의 무리를 이룬 거주지(인간 정주) 또는 커뮤니티(community)를 의미함
- village는 비록 농촌지역에 종종 위치하고 있지만 'urban village'라는 용어는 특정 도시지역에 적용되며, 보통 수리된 주택과 함께 영구적이지만 일시적인 village도 발생할 수 있고 village의 주택들은 산촌(散村)과 다르게 서로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음(WIKIPEDIA 영문홈페이지, 2016년 8월 10일 검색)

❑ 마을은 각 나라마다 나름의 개념과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 형태의 마을에 대한 제한적 차원의 개념 규정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모든 마을을 포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접근은 없는 상황임(김기홍, 2014)

- 인류가 오랫동안 몸담아왔고 지혜를 축적해왔던 마을이 갖고 있는 본질이나 사상에 대한 구명이나 논의는 더더욱 찾을 길이 없음

❑ 마을의 개념과 의미는 시간축과 공간축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정의되고 있어서 마을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단일 개념화에는 무리가 있음

- 다만 마을은 지리적으로 일정한 경계 내에서 일정 규모의 주민들로 이뤄진 취락구조와 그 공동체성이 내재화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대체로 학자들간에 공감하고 있음

---

1) hamlet의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농촌지역에 인구 100명 이하의 작은 주거지, 더 큰 주거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소로 언급되며 일반적으로 자치체로서 인가되지 않은 커뮤니티임.

2) '마을'의 정의

- ❑ "마을"이라는 개념 속에는 두 가지 핵심개념이 잠재되어 있는데 하나는 공간개념으로서의 "마을"개념이고 다른 하나 는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형성하는 "관계로서의 공동체" 개념임(임경수, 2015)
  - 공간개념으로서의 마을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취락을 형성하여 살고 있는 장소적 개념이고
  - 공동체개념으로서의 마을은 주민들이 지역공동체로서의 결속력 내지 동질성을 형성하는 범주로의 개념임
- ❑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마을을 개념화할 때 사용하는 공통분모는 공간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것임
  - 예컨대, 몇 개의 주거가 모여서 생활이 전개되는 장소 혹은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등 공간속성을 강조
  -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를 말함(조석주, 2013 p. 6)
  - 장소에 기반을 둔 모듬살이 공간이며 주민들은 직접적인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특별한 연대감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동체. 자발성, 자족성 그리고 지속성을 기본 성격으로 하는 정주 단위(김기홍, 2014)
  - 마을은 사회적 학습이 일어나는 중요한 공간으로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받는 공간으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마을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마을 안에서 끊임없이 배우면서 살고 있음(장대익, 지식인 마을에 가다, 2006, p. 4)
- ❑ 마을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은 지연, 혈연 등과 같은 1차적 동질성에 기반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를 공동체(community)라고 지칭하고 있음
  - Hillery(1955)는 공동체의 특성을 물리적 공간(area), 공동의 결속감(common ties)과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s)으로 정리하였음
  - Riger와 Lavrkas(1981)는 공동체의 요소를 사회적 친밀성(social bounding)과 행위적 착근(behavioral rootedness)으로 보고 있으며, 사회적 친밀성은 이웃

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등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행위적 착근은 한 지역에 얼마나 거주했는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

- Ahlbrant와 Cunningham(1979)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구성원 간 관계,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의 충성심, 공동체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 McMillan과 Chavis(1986)는 공동체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
  - 회원자격(Membership): 일정 경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자신의 시간, 자원 등을 투자하여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 내에서 행동, 사고방식 등을 공유하며 공동체의 경계를 강화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획득
  - 영향(influence):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규칙에 대한 순응, 동질성 공유 등)과 각 구성원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공동체 내에서의 인정)은 동시에 작용하며 공동체 강화에 기여
  - 통합(integration)과 욕구의 충족(fulfillment of needs)을 통한 강화: 공동체 내의 자원을 통해서 그 구성원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 공동체 강화를 통해 공동체가 갖고 있는 높은 지위, 다른 공동체 구성원의 능력과 경쟁력 등이 있음
  - 정서적 연결의 공유(shared emotional connection): 공동체의 역사, 공공공간, 함께 보내는 시간, 비슷한 경험 등을 통해 정서적인 연결을 체험하는 것
- Brindley(2003)는 McMillan과 Chavis(1986)와 유사하게 공동체를 정의하고 있는데 특히 공동체 개념 속에는 '안정성(stability)', '다양성(diversity)', 그리고 '통합(integration)'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함
  - 공동체에는 다양한 인종, 성별, 연령,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소속감, 정체성과 사회적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

❑ 상기한 마을에 대한 여러 개념을 요약하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을 담는 외형적 그릇으로서의 "공간"과 그 외형 안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주민들 간의 사회적 관계망, 동질의식 등과 관련된 "공동체"가 교호작용하는 장(場)이 마을임

❑ 자발성, 자족성, 지속성이라는 마을의 본질적 요소가 충족되는 영역은 기술발전,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의해 확대 혹은 축소되기도 함

- 따라서 산업화 초기의 '자연부락=마을' 또는 '행정구역=마을'이라는 위상 관계의 현재적 발현 양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존 연구들은 위와 같은 마을의 본질적 성격 인식 없이 공동체성 연구, 정주여건 분석, 마을활성화와 같은 정책프로그램 검토 등이 이루어짐

❑ 2016년 11월 현재 「마을기본법」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마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 "마을 등"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 마을 혹은 읍·면·동 등 사회적·심리적 유대가 형성될 수 있는 장소로 정의(행정자치부, 2016)

❑ 앞에서 검토한바와 같이 마을은 지리적 물리적 경계가 있는 취락의 의미를 갖고 있고, 동시에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커뮤니티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마을은 개별주거의 집합이라는 지리·물리적 단위이면서 동시에 구성원의 특별한 관계로 맺어지는 사회·경제적 단위라는 속성을 가진 정주 단위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속성을 가진 공간단위를 우리나라에서는 '자연마을'으로 지칭함
- 자연마을은 복수의 가옥들을 합친 집합단위인 가군(家群)이나 행정적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획정된 행정리, 법정리와 구분되는 정주단위임

❑ 좁은 의미에서의 마을은 일정규모의 인구와 가구로 구성된 지리적·물리적 정주공간을 토대로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함께 영유하는 단위라고 정의할 수 있음

❑ 넓은 의미에서의 마을은 일정규모의 인구와 가구에 구애받지 않고(이상 또는 이하로) 전통적으로 인식되는 지리적·물리적 정주공간의 규모와 상관없이 스스로 자족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구성원들 모두가 공동의 목표와 소속감을 갖고 경제적 사회적 생활을 영유하는 단위라고 정의할 수 있음

- 기존의 마을의 기능을 잃어가는 몇 개의 마을들이 모여 구성원들이 새로운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을 단위가 생성될 수 있으며, 기존의 행정리 또는 법정리 안에서도 소규모의 마을 단위가 생성될 수 있음

2. 국토정책 맥락에서의 마을 변천과정

1) 우리나라의 마을 규모 변화

❑ 마을의 적정규모에 대한 논의는 마을을 보는 시각에 따라 편차가 커질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마을의 적정규모와 그 변화양상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음

❑ 한국의 마을은 보통 50~60가구, 많게는 100여 가구 정도의 규모였고, 내부적으로 20~30가구의 작은 마을로 재구분 되기도 했음(김기홍, 2014)

- 1485년(성종 16년) 한명회가 발의해 <경국대전>에 오른 오가작통법은 5호가 모여 1통을 이루고 5통이 모여 1리를 이루도록 한 조선시대의 통치 방식과 관련이 있음

❑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자연마을은 비교적 오랜 세월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으나 마을에 대한 관리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 일제 강점기조사에 의하면 500년 이상 된 마을이 207곳, 300~500년 646곳, 100년 이상이 351곳이 존재한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 이후 현재는 조사자료 없음

❑ 1972년 내무부에서 조사한 부락세조사요강(部落勢調査要綱)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행정구역상 시를 제외한 전 군부(郡部)의 지역을 조사한 마을 수는 전국에 34,474개로 조사되었음(내무부, 1972)

- 이 조사는 2차에 걸쳐 조사되었는데 1차 조사는 1972. 3. 1~3(15일), 2차 조사는 1972. 5. 10~5. 26일에 걸쳐 수행되었고, 조사기준시점은 1972. 3. 1일 현재임
- 위 조사에서 자연부락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2)]
  - 30호 이상 비교적 집단화되어 있는 취락을 원칙으로 하되,
  - 20호 이상 30호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자연부락으로 지칭, 또는 간과되어 왔으며, 동일한 주민조직(통·구·반)이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취락

2) '부락'이라는 용어는 일본어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지금은 '마을'이라는 용어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으나 인용 원전에 충실하기 위해서 내무부 자료에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함.

- 20호 미만의 취락은 가급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주민조직과 생활권의 일부를 이루는 모부락을 찾아 이를 포함시킴
- 20호 미만이라 하더라도 거리나 생활권으로 보아 모부락이나 특정부락에 포함시키기가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자연부락으로 획정함
- 독립 가옥이나 수호(數戶)씩 산재해 있는 가옥은 근린 특정부락에 포함시킴

• 위의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신축성을 부여하여 지역 실정에 알맞고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였음.

❑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연마을 수는 50,175곳이며, 총 행정리 수는 36,498곳으로 나타남

•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리 단위 자연마을은 줄어들고, 읍 단위 이상의 마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대부분의 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농촌, 어촌, 산촌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도시지역으로 유출되어 고령화가 진행되어 자연마을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기존의 마을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

• 규모가 작아지고 기능이 약화된 자연마을들은 기존의 마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읍이나 면 단위의 마을로 재결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위의 내무부가 조사한 전국 마을 조사의 기준은 가구수와 주민조직, 생활권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사례마을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기준을 감안하되 내무부 조사시점과는 약 40여년의 시차가 있는 만큼 그동안 도시화 및 사회변화 과정을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마을의 공간적 범위를 정함

2) 국토정책적 맥락에서 마을의 의의

❑ 마을은 정주체계(settlement system)상 국토공간의 생활권으로 볼 때 최하위의 최소정주단위이면서 상위지역 단위를 구성하는 기초 셀(cell)이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생활권이나 주민조직 프레임(frame)에 의한 것보다는 경제논리의 프레임에 우선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어져 왔음

❑ 예컨대 1960~1980년대의 초기 국토 정책은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어 산업단지 조성,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에 초점을 두고 도시나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됨

- 도로, 항만, 전력시설 건설, 산업단지 개발, 공업단지 개발, 도시개발사업, 공영주택공급 사업 등이 주를 이룸

❑ 1990년대의 국토정책 역시 지역의 균형을 고려한다고 하였으나 경제발전 정책이 강조되었으며, 새만금 간척사업, 경부고속철도 건설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시설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일부 중소규모의 산업경제활동 정책이 진행됨

❑ 2000년대 이후에는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기조가 보다 강조되고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지방과의 격차완화 등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이 주요 국토정책으로 추진됨(소진광 외, 2016 p. 63)

- 대표적인 지역개발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분당신도시 4배), 혁신도시(10개 지역), 수도권 2기 신도시(60만호 주택; 수용인구 150만) 등의 경우, 대규모로 도시개발이 조성된 사례임

❑ 그러나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과 수도권 및 일부 지역을 제외한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서 지역의 불균형의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

❑ 그간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농촌이 황폐해졌으며, 농촌의 황폐화는 효율적인 국토운영과 국가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이것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국토 전반에서 쇠퇴하는 지역이 마을을 중심으로 점차 늘어날 것임을 의미

❑ 결국 농촌의 황폐화는 농촌커뮤니티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는 마을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하세가와(長谷川昭彦)에 따르면 농촌커뮤니티는 생활기반시설의 보전·관리, 농업 및 제 산업의 유지·발전, 사회관계의 형성 및 조정, 지역문화의 창생 및 전승, 주민안전 및 복지 향상 등의 기능들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단위이면서 정주단위라고 정의할 수 있음(長谷川昭彦, 2000, p. 31)

- 이 기능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기저가 되는 기능으로부터 보다 상층적 기능으로 분화가 이루어지는 중층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또 규정·피규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

❑ 농촌커뮤니티는 이상과 같은 중층적 기능들을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며 아울러 전체 사회에 대해서도 긍정적 역할을 가지는데, 과거에는 마을이 이상과 같은 기능들을 수행함으로써 마을공동체가 곧 농촌커뮤니티 단위였음

❑ 최근 그간의 산업과 인프라 중심의 국토정책에 대한 자성으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는 지역의 주민 행복 및 삶의 질 향상 등 국민 삶에 기반한 소프트한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

- 오형은·김정연(2014)은 그동안의 농촌공간정책은 정주계층(마을-읍면-중소도시)의 특성을 반영, 지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추진전략과 시책수단은 완성도가 낮고 성과도 뚜렷하지 못하다고 지적
- 이에 따라 생활권 계층 개념의 구체적 도입과 농촌의 기능복합성을 반영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필요함을 강조

❑ 이러한 맥락에서 효율적 국토의 운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상으로서의 최소단위로 마을은 국토정책에 있어서 매우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임

- 국토의 기본 세포조직인 마을이 지속가능하고 자족성을 갖는다면 국토전체가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쇠퇴하고 있는 농촌, 어촌, 산촌 지역의 마을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국토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3) 국토정책적 맥락에서 마을범위의 문제

❑ 마을의 범위는 역사적 실체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체들의 상호작용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짐

- 지역연구에서 채택하는 미시적 연구단위는 보통 마을이거나 면지역사회를 범위로 설정함
- 그러나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범위가 시기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 국가권력의

지역에 대한 파악 방식 역시 마을 범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

❑ 현대로 올수록 주민들의 생산, 생활, 그리고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범위는 점차 광역화되지만, 마을은 지역사회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곳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

- 이곳은 생산의 장을 공유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역사적 경험, 기억을 공유하는 단위로, 그리고 실재하는 역사적 경험의 전승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음

❑ 이들이 가진 공동체적 실체로서의 의미는 한편으로는 국가권력과의 관계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공동체와의 관계에 의해 달라짐

- 우리는 마을을 흔히 공동체로 표상하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 공동체로서의 지역사회의 상은 지역 내 계급관계나 사회적 지배관계를 대체하거나 희석시키는 효과를 갖기도 함
- 따라서 공동체적 요소와 내부의 지배관계를 적절하게 포착할 수 있는 단위가 설정되는 것이 지역사회 연구에 중요함

❑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미시적 지역사회 연구는 마을을 기본단위로 해 왔음

3. 지속가능한 마을의 개념, 공동체성 및 공간성

1) 지속가능한 마을의 개념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 지속가능발전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에서 규범적 목표로 제시된 개념으로 두 가지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음

- 첫째는 세대 간 형평성, 즉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 둘째는 환경용량(environmental capacity) 범위 내에서 개발하므로 과도한 환경파괴를 예방하는 것임(UN, 2009)

❑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속가능발전은 빈곤과 인권 같은 사회경제 문제와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생물다양성 소실과 같은 지구 환경적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대안으로 제시됨(강상인, 2015 p. 7)

❑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발전을 의미함(지속가능발전포털, 2016. 9. 1 검색)

- 제한된 자원 속에서 무조건적인 경제 성장은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골고루 충족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전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임

❑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은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요소로서 국제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오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은 사회-환경-경제 축에서 형평성, 건전성, 활력성을 주된 가치로 하는 복합개념으로 사회-경제적, 사회-환경적, 환경-경제적 측면에서 이차원적 연계정책 목표들을 지향함(강상인, 2015 p. 8)

-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고용 및 건강보험, 의무교육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정책 목표들이 추구됨
- 사회-환경적 측면에서는 인류문명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다루며 특히 사회구성

원 모두에 대한 최소한의 환경서비스 보장과 환경 불평등 해소를 위한 환경복지 정책 분야의 노력이 강조됨

- 환경-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원이용의 효율성, 개선된 환경성과, 자원순환형 환경경제 시스템 등의 정책 목표가 강조됨

(2) 지속가능한 마을

❑ 앞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의와 핵심요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마을이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루고 동시에 사회적 합의와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자족적 기능과 역량을 가진 마을(정주단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다소 추상적인) 정의를 우리나라 마을단위에 적용해서 그 구체적 사례를 본다면 그것은 특정 지역에 수 백년에 이르는 긴 세월동안 마을공동체적 자족기능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세대 간 계승을 통해 외부세계의 변화에 적절히 조응하는 마을을 지속가능한 마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임

❑ 전술한 것처럼,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농촌마을의 쇠퇴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 양동마을이나 일부 마을은 마을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지 않은 채 옛날의 전통과 공동체적 기능을 유지해오고 있음.

❑ 마을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이유

- 취락으로서의 집락공간을 형성하는 것 못지않게 공동체적 사회관계망이 살아있는 것을 전제할 때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임
- 미래의 국토변화를 감안해 볼 때, 도시-농촌의 기능배분이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혼합 내지 통합적 기능배분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농촌의 마을단위 모듬살이가 그 원형을 유지하므로 건전한 국토골격의 기초 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마을의 지속가능성은 마을이 변화하지 않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적절히 부응하면서도 마을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나가고 세대 간에 그것을 공유하며 전승해 나간다는 데 있음

2) 지속가능한 마을의 공동체성과 공간성

(1) 기존 연구에서의 마을 지속성 논의

- ❑ <표 2-1>에서도 볼 수 있지만 마을 관련 연구의 두 갈래, 즉 공동체성과 정주공간에 관한 연구들 대부분이 따로따로 다루어지거나 함께 다루어진다 하여도 개발과정에서의 마을 내 공간구성요소의 종류나 배치, 기능 등을 다루고 있음
- ❑ 특히 개별주거의 집합이라는 지리·물리적 단위로서의 마을 측면에 치중하여 마을을 취락과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음
- ❑ 이 경우 사회적 단위로서의 마을과 각 공간구성요소의 정합관계 파악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인구감소 및 사회경제적 제 변화에 따라 마을의 공동체성과 취락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 이런 연유로 그간 마을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도 미흡하였음.

(2) 본 연구에서의 마을의 공동체성과 공간성 개념

- ❑ 본 연구에서 마을이란 지리적 공간단위 영역과 그 공동체적 내부체계, 기능 단위로서의 존재양식, 공간요소의 구성과 기능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 ❑ 따라서 공동체성은 주민들이 일상의 행동과 인식으로 느끼는 사회적 관계망으로 알아볼 수 있으며 공간성은 취락구조적 차원을 통해 알 수 있음
  - 여기에 마을이 갖는 기능성은 주민의 공동체에 대한 인지적 차원과 취락구조적 차원이 서로 교호작용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그림 2-1> 참조)
- ❑ 마을 개념이 내포하는 두 속성인 공동체성과 공간성은 주민의 인지적 차원, 마을의 기능적 차원, 마을의 취락구조적 차원이 교호작용하면서 발현되는 이미지이자 동시에 물적 공간양태가 되며 그 각각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보면 아래와 같음

❑ 주민들의 인지적 차원

- 각 정주체계 단위와 공동체적 성격이 발현되는 영역 간의 정합관계를 파악
- 공동체적 활동의 내용 및 영역, 공동체로서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 영역
- 주민 간 관계망의 종류와 범위, '우리 동네' 인식의 특성과 범위 등 탐구

❑ 마을의 기능적 차원

- 마을의 기능은 주민의 인지적 공간활동과 마을 공공공간의 각 요소들이 어우러져 나타내는 그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여기에는 내부 공간요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공동 공간요소의 종류, 이용실태, 주민의 인식(마을의 자발성, 자족성, 지속성 발현에 있어서 각 공간요소의 의미)등을 파악하므로 그 속성을 파악할 수 있음
- 또한 각 공간요소가 주민의 정주 욕구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함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취락구조적 차원: 마을의 규모와 형태

- 마을의 형태란 단순한 집촌, 산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내 취락의 구성관계 및 상위 정주단위(행정리, 법정리) 내 마을의 포섭 관계를 지칭함
- 따라서 자연부락 – 행정리/법정리 단위에서 그 하위 정주단위의 구성 상태의 유지, 또는 변화 양상을 탐구하므로 마을의 공간성을 구체화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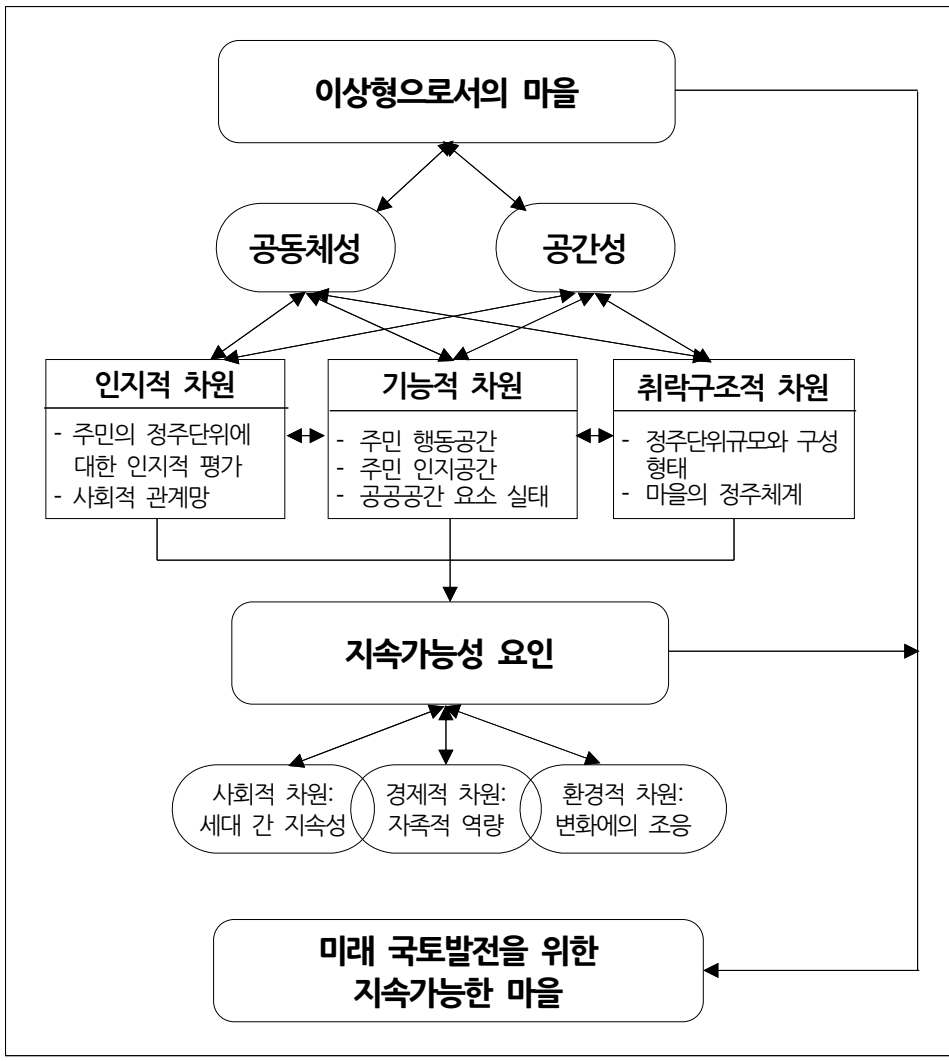
표 2-1 마을의 공동체성과 공간성의 제 측면

마을의 하위 차원	분석 내용	비고
인지적 차원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성	- 주민의 정주단위에 대한 인지적 평가 - 주민의 마을내, 외 사회적 관계망
기능적 차원	주민의 행동공간 및 인지공간의 구조	- 주민의 행동공간 - 주민의 인지공간 - 공동공간 요서 실태
취락구조적 차원	마을의 규모와 형태	- 정주단위의 규모와 구성 형태 - 마을의 정주체계

(3) 연구의 틀

❑ 전술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이상형으로서의 마을 개념을 결합하여 이 연구의 목적인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에 대한 논리적 틀과 그 논리를 뒷받침할 연구지표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2-1>과 같음

그림 2-1 연구의 틀



자료: 저자 작성.

CHAPTER 3

국토공간에서의 마을단위 정책과 해외사례

01 국토정책과 마을관련 정책 37

02 새마을운동과 마을의 변화 56

03 미래 국토트렌드 전망과 마을의 변화 59

04 해외사례 : 일본 마을의 변화와 특성 68

CHAPTER 3

국토공간에서의 마을단위 정책과 해외사례

1. 국토정책과 마을관련 정책

1) 농업농촌정책의 변화 과정

❑ 농촌지역의 마을관련 정책들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시행된 농업정책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마을단위의 정책들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정책에서 출발해 마을의 고유한 장소적 특성과 주민참여가 강조되는 현재의 모습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근대적인 농업정책의 연원은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조선농산촌진흥운동으로 볼 수 있음

- 조선농산촌진흥운동은 1933년에 시작되었으며 농가단위의 식량증산계획, 금전경제 수지균형, 부채근절이라는 3대 목표아래 5개년 계획으로 실시되었음
- 이는 1929년 세계적인 대공황의 여파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의 하나로 농촌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책이었으며 농촌경제의 자력갱생, 생활개선, 마을공동시설 등의 건립이 주를 이루었음
-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인해 개별 농가의 생활안정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전쟁에 동원되는 성격으로 변질되었으며 근본적으로 조선농촌사회의 내발적인 요구가 아닌 농촌과 농민의 통치 강화를 위한 식민지 경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보임

❑ 1960년대 지역사회개발사업

- 지역사회개발사업은 UN과 ICA에 의해서 채택된 지역개발 방안으로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활동을 핵심으로 하며 이는 당시 영국과 미국 등 주요 서구 국가들에서 지역개발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었음

- 1955년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는 피폐해진 한국의 농촌경제를 재건하는 수단으로 한국 정부에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채택을 건의하였으며 한국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1958년 국가사업으로 정식 채택되었음
-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도원의 육성, 자조사업, 보조사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전국에 730여개의 농촌지도 시범지역을 지정하였음
- 1962년 농업진흥청의 개청으로 지역사회개발사업은 농촌지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시범지역에 농업기술, 농업관련 기반시설, 마을공동이용시설을 보급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당시 한국농촌의 상황은 주민의 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정부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큰 성과를 내지는 못 하였고, 1967년 부락자조개발 6개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통합되었음

❑ 1970년대 새마을운동

- 1970년 새마을가꾸기운동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산업화에 따른 도농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음
- 1970년 당시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60% 정도만이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었으며 20% 정도만이 전기가 공급되는 실정이었음(국가기록원 홈페이지, 2016. 10. 20 검색)
- 새마을운동은 1970년에 시멘트 350여 포대, 철근 0. 5톤을 34, 000여 개 농촌마을에 배포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사업의 공간단위는 개별 마을단위였으며 추후에 2~3개의 인접마을, 1980년에는 5~10개의 마을단위로 확대되었고, 이는 새마을운동 사업이 광역화된 결과로 풀이할 수 있음
- 새마을운동은 농촌마을에 농업, 수산업, 공업 등이 총망라된 종합개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기초, 자조, 자립마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음
- 새마을운동은 농촌마을개발에서 1970년대 대표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

나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로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음

❑ 1980~1990년대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 1980년대 농촌과 도시와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됨
- 이를 위해 마을단위의 정책이 아닌 농촌중심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지역사회로 정책의 공간적 범위는 확대되었으며 이를 위해 낙후한 농어촌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농어촌지역종합개발정책이 도입됨
- 1984년 경제기획원은 농어촌지역종합개발사업을 시범지구로 공주군, 강진군, 청송군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촌개발 관련 업무가 농수산부 고유의 업무로 공식적으로 확정되었고, 주요 농촌정책으로는 농외소득원의 개발 촉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의료서비스의 개선, 교육환경 개선, 문화시설의 확충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됨
- 1989년 UR(우루과이 라운드)의 체결로 인해 농산물에 대한 수입보호조치가 해제되었으며 그 동안 농업부분에 지급되었던 보조금지급도 금지되었음
- 이러한 외부환경변화는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으로 정책기조가 변하는 원인으로 작동되어 이 시기 농업정책이 농촌정책으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음

2)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2000년 이전까지의 농촌정책은 주로 농업정책에 비중이 비교적 높았고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방식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지역균형발전의 강조로 인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촌정책이 구상됨

❑ 이에 따라 마을의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향식 농촌개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중에서 다양한 종류의 '마을만들기'가 시도되었음

❑ 이러한 사업들은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

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제도화되었으며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등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함

- 1990년대 이후 도시지역의 인간다운 모듬살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본의 마치쯔쿠리가 소개되었고, 이후 “마을 만들기”라는 용어가 도시재생 및 도시지역 공동체 운동과 연관되어 많이 사용됨
- 마을만들기의 시작은 1990년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도시연대)가 주택가의 좁은 생활도로의 정비와 도보안전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면서 시작됨(임경수, 2015)
- 일부 시민단체나 자생적 마을공동체가 활발히 움직이자 정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제도권 내로 흡수, 정부 지원을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발전시킴
- 행정자치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토부의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 농림부의 “색깔 있는 마을만들기”가 대표적임

❑ 2000년 이후 농업정책은 참여정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을 거쳐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이르고 있음

- 농업·농촌종합대책은 크게 소도읍육성사업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구성되었음
- 소도읍육성사업은 소도읍으로서 거점기능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은 1개 법정리 이상의 권역화하여 생활권 중심의 정주체계를 조성하고자 함
- 2010년에 도입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존에 추진되던 12개의 사업을 통합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음

표 3-1 농촌관련 정책의 변화과정

시기	주요사업	개별사업	정책배경	정책집행	공간단위
해방 전	조선농촌진흥운동	-	식민통치	하향식	마을
1960년대	지역사회개발사업	농촌시범마을 농촌지도사업	전후재건	하향식	마을
1970년대	새마을운동	취락구조개선사업	산업화	하향식	마을
1980~ 1990년대	농촌지역종합개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도농격차	하향식	군/면/ 마을
2000년 이후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	지방소도읍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신자유주의	하향식/ 상향식	마을/ 권역

자료: 연구진 작성

3) 마을공동체 관련 중앙정부 부처

❑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사업과 정책들은 특정 부처가 아닌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각각 나누어 직·간접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각각의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은 일부 사업내용이 중복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역공동체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역개발과,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과에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지원체계의 분리는 마을별 특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는 특성에 맞는 지원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중복사업의 문제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이에 대한 다수의 비판이 존재함

(1) 마을 공동체 관련 제도 및 법령

❑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농촌마을의 과소화를 방지하고 주민역량을 결집하여 농촌마을 자체적으로 마을

전반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됨

-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협의체의 구성을 통한 농촌마을만들기 계획의 수립, 지자체 차원의 마을 진단 계획 시행 지원, 협력 체결, 역량강화 지원, 지자체별 기본계획의 수립, 전담부서 및 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법안의 공간적 범위가 농촌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도시에 있는 마을공동체까지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한 실정임

표 3-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관련 법령(2016년 기준)

법령명	목적	내용 및 대상	관련부처	구분
농촌마을 공동체활성화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촌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촉진하고, 이를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마을의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농촌마을만들기 계획 수립과 지원 • 농촌 마을만들기 강화 및 인력양성 • 농촌마을만들기 지원체계	농림 축산 식품부	국회 심의중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행복의 증진에 이바지함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국가적 차원의 지역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로 부처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행정 자치부	국회 심의중
마을기본법(안)	마을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주민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과 사회적 신뢰의 증진을 통해 주민자치를 구현하며 주민의 행복수준을 제고	마을발전계획의 수립 등	행정 자치부 국회 시민사회	입법예고 중

자료: 최인수·전대욱, 2014,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재정 지원방안 연구. P.12

❑ 마을기본법(안)

- 제 1조(목적) 이 법은 마을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주민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과 사회적 신뢰의 증진을 통해 주민자치를 구현하며 주민의 행복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 3조(기본원칙) ① 마을공동체는 그 구성원들과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열려있어야 하며,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마을 공동체는 그 구성과 활동 및 지원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도시와 농·산·어촌 등 해당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마을 공동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방적이며 협력적인 자세를 지녀야 함
- 제 8조(마을발전계획의 수립) ② 마을공동체는 도시와 농·산·어촌 등 해당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자원의 특성을 이해하며 주민관계망의 특성을 감안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해야 함
- 제 14조(학습공동체로서의 마을공동체) ① 마을 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함
- 제 22조(지역자산의 활용) 등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

- 본 법안은 지역 활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공동체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공동체의 역할 강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발의
-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공동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금의 설치, 지원센터의 설치, 마을기업의 육성 등을 담고 있음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은 농촌과 도시의 마을을 모두 공간적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적인 성격이 강화된 법안임
- 현재는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안)과 비교해 볼 때, 법안 내용과 대상에 있어서 중복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광역자치단체

-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126개 자치단체가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3 마을만들기 조례제정 현황: 키워드별, 자치단체 유형별(2016년 기준)

구분	합계	자치단체 유형				비고
		광역	시	구	군	
합계	126	11	44	50	21	
마을만들기	59	4	25	17	13	광주, 충남, 전북, 제주
마을공동체	55	6	14	31	4	부산, 대구, 인천, 세종, 강원, 전남
마을가꾸기	3	0	2	0	1	
지역공동체	7	0	2	2	3	
기타	2	1	1			경기, 고양시

자료: 구자인, 2016, 보령시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p. 105. 보령시

❑ 기초자체단체

-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227개이며 이 중에서 마을공동체 및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126개로 이는 55.5%에 해당되는 수치임(2016년 기준)
- 서울이 100%로 가장 높고 인천과 광주만이 절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마을공동체 및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대전은 광역 및 기초 모두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 자치단체별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 현황(2016년 기준)

(단위 : 개, %)

순번	광역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조례유무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단체	%
1	서울	○	25	25	100.0
2	부산	○	16	9	56.3
3	대구	○	8	2	25.0
4	인천	○	10	10	100.0
5	광주	○	5	5	100.0

순번	광역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조례유무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단체	%
6	대전	-	5	0	0.0
7	울산	○	5	3	60.0
8	경기	○	31	26	83.9
9	강원	○	18	8	44.4
10	충북	-	12	1	8.3
11	충남	○	15	6	40.0
12	전북	○	23	9	39.1
13	전남	○	18	9	50.0
14	경북	-	14	3	21.4
15	경남	-	22	6	27.3
16	세종	○	1	1	100.0
17	제주	○	1	1	100.0
계	17	13	227	126	55.5

자료: 최인수·전대욱(2014)의 내용과 구자인(2016)의 보고서 내용을 2016년 기준으로 수정 보완함

(3) 마을공동체 관련 주요 정책

❑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주요 정책은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있음(조석주, 2013)

-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조직으로서 주민의 각종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함
- 마을만들기는 삶의 터전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서 도시재생 ·경제 ·복지·문화·축제·환경·다문화 등의 사업을 추진
- 마을기업은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소득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일자리·경제·복지·문화·축제·환경·다문화 등의 사업을 추진
- 협동조합은 재화·용역의 판매 구입 등을 통한 조합원 권익 향상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사업조직으로서 마을기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
- 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산자간 직거래를 통해 중간 마진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서 농산품직거래·의료·대학·노인·문화·생협 등의 사업을 추진

표 3-5 마을공동체관련 주요 정책 현황 비교

정책/내용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마을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개념	주민자치조직	삶의 터전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사업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소득안정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마을단위 기업	재화·용역의 판매구입 등을 통한 조합원 권익 향상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사업조직	소비자-생산자간 직거래를 통해 중간마진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종류·유형	-기본(지역복지, 안전마을) -선택(마을기업, 도심창조, 평생교육, 지역지원, 다문화)	-도시/농촌형 -공동체/도시재생형	-지역자원활용형 -친환경녹색에너지형 -생활지원복지형	-일반형 -사회경제형	물자생산·가공이용, 교육문화, 의료보건 등
사업분야	주민의 각종 지역문제 해결 참여	도시재생·경제·복지·문화·축제·환경·다문화 등	일자리·경제·복지·문화·축제·환경·다문화 등	일자리·경제·복지·문화·축제·환경·다문화 등	농산품직거래·의료·대학·노인·문화·생협 등
법적 근거	개편특별법/지방자치법	조례	-	협동조합 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자료: 안전행정부 내부자료(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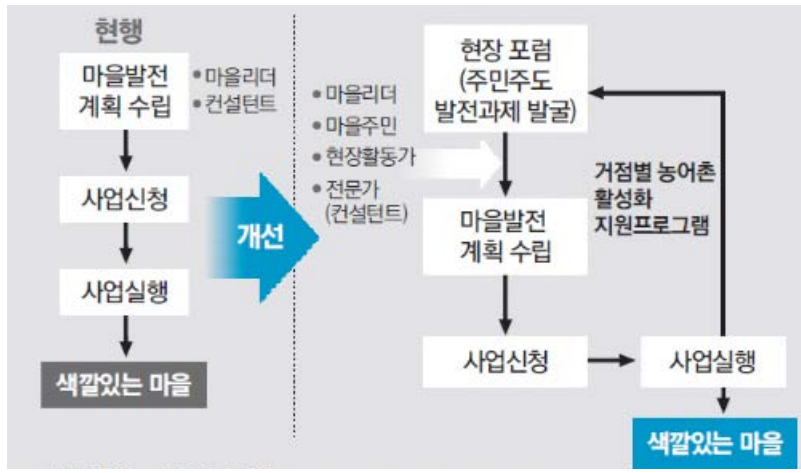
4) 부처별 마을공동체 관련 주요 정책

(1) 농림축산식품부

❑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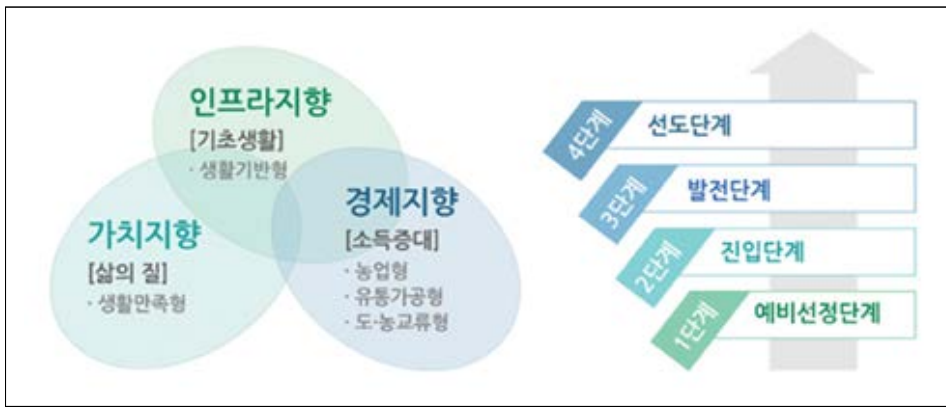
- 색깔있는 마을만들기는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해 특화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1개 마을당 1개의 공동체 회사를 조직하여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높이는데 사업 목적이 있음
-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은 마을 리더와 컨설턴트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 사업공모를 신청하는 방식이었으나 색깔있는 마을만들기사업에서는 마을계획수립단계에서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기존의 마을 리더와 현장 전문가들과의 협력하는 체계이며 총 5개의 마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3-1 주민주도 마을발전 및 지자체 역량강화 지원 체계



자료: 동아일보 2012월 11월 22일 기사 '주민이 지역발전 주체', 2016년 10월 1일 검색.
(http://news.donga.com/3/all/20121122/51018352/1)

그림 3-2 색깔마을 유형 분류와 사업단계



자료: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http://www.raise.go.kr/raise/intro/main.do?page=09&menu=12),
2016년 10월 1일 검색.

표 3-6 색깔있는 마을의 유형구분

목표	유형	내 용
인프라지향 (기초생활)	생활기반형	마을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마을개발·인프라, 농어촌 권역개발, 청정에너지, 주말주택
경제지향 (소득증대)	농어업형	유기농·품질인증, 품목특화, 품목다각화, 기술혁신
	유통·가공형	직판·전자상거래, 로컬푸드, 저장, 단순가공
	도·농교류형	캠핑, 치유, 경관, 농어촌유학, 농림어업체험, 1사 1촌 주말농장, 민박 등
가치지향	생활만족형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한 삶의 질을 추구

자료: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http://www.raise.go.kr/raise/intro/main.do?page=09&menu=12), 2016년 10월 1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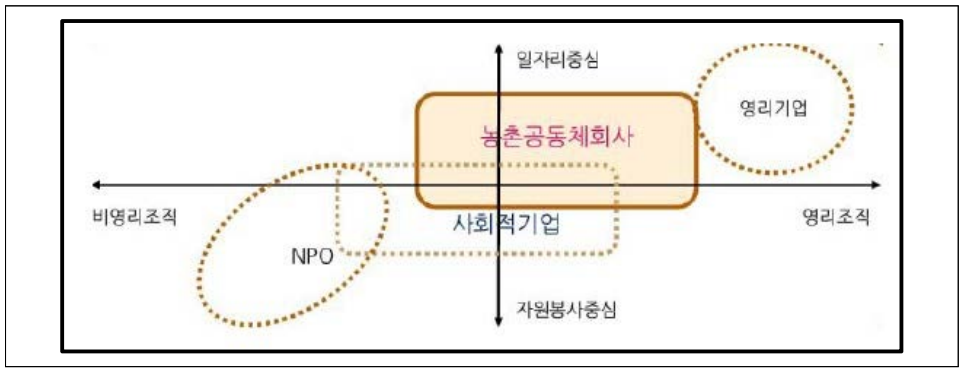
❑ 농어촌공동체회사

-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농어촌의 공동체 조직에 기업경영 방식을 결합한 형태로서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복지 등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직을 의미함
-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에 관한 근거법은 농어업인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19조 3항이며, 농림부는 2011년부터 발전가능성이 높은 공동체회사를 선정하여 재정,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농산어촌의 어메니티(amenity)의 증진과 인구 유지 및 특색 있는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있음
-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사업의 추진방향은 주민 정주 체계를 고려한 기초 생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데 있으며, 사업의 대상지역은 마을, 소생활권역, 읍·면·동 소재지, 인근 도심지가 모두 고려됨
- 사업유형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시군역량사업으로 구성됨

그림 3-3 농어촌회사의 위상



자료: 이선우 외(2013, p.137)

표 3-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주요 사업 내용

사업명	주요 내용			사업비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 기간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 농촌 중심지에 교육, 문화, 복지, 경제 등 중심기능 활성화, 네트워크를 통해 배후 마을에 서비스 제공 등	80억원 이하	5년 이내
	일반지구			60억원 이하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 단위	종합개발	- 마을단위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개선	10억원 이하	
		공동문화·복지	- 공동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지원	5억원 이하 (단 소득사업은 2억원 이하)	
		경제(체험, 소득)	- 지역생산 농산물의 제조, 가공, 시설 및 브랜드 개발		
		환경(경관, 생태)	- 마을 경관개선 및 생태보전을 위한 사업		
		신규마을	- 마을기반조성(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 공동이용시설 설치비 및 마을운영·관리	1.5~36억원 이내	
	권역 단위	종합개발	- 인근 마을을 포함한 종합개발사업	40억원 이하	
시·군 역량	시·군 창의		- 창의적인 S/W 중심의 사업중심을 통해 문화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지원	20억원 이하	5년
	시·군 역량 강화		- 마을역량진단, 주민 및 지자체 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중간지원 조직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 준공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역 간 네트워킹	50백만원/ 100백만원/ 150백만원	1년

주: 사업비는 2016년 기준임
자료: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 2016년 10월 1일 검색.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명칭으로 사업이 시행된 시점은 공식적으로 2010년이나 이 사업에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오던 농촌마을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 지방소도읍 육성 등 12개의 사업이 통합되어 있음
- 이는 기존의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으로 진행되던 지역개발사업들이 농산어촌 및 지방중도시의 기초생활권개발로 개발방향이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함

(2) 행정자치부

❑ 마을기업

-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의 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의 장소자산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
- 이를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현재 저출산·고령화와 지역경제 침체 등 지역문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
- 마을기업의 지원대상은 마을 중심의 소규모 공동체와 지역 NPO 등이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1차 년도에는 5천만원 2차 년도에는 3천만원 이내로 지원되고 있으며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1,249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음
- 마을기업과 유사한 제도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협동조합이 있음
- 마을기업은 이들에 비해서 사업의 목적, 대상, 주체에 있어서 지역과 지역민이 강조된다는 차이점을 보임

표 3-8 전국 마을기업 현황(2014년 기준)

지역	마을기업	지역	마을기업
서울	92	강원	94
부산	75	충북	69
대구	78	충남	87
인천	55	전북	88
광주	52	전남	109
대전	47	경북	87
울산	26	경남	90
세종	12	제주	26
경기	162	합계	1,249

자료: 한국지역진흥재단·한국정책분석평가원(2015, p.475)

❑ 정보화마을사업

- 정보화마을 마을사업은 2001년 농촌, 어촌, 산촌 등 정보화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음
- 정보화마을의 시작은 행정자치부, 농림부, 정통부 등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정보화마을 기획단으로 출발하였으며 현재는 행정자치부의 관할로 진행되고 있음
- 사업의 초반부는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으나 최근에는 주민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와 정보콘텐츠 구축이 추가되었음
- 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9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전국에 351개 마을이 운영 중에 있음

표 3-9 전국 정보화마을 현황

지역	정보화마을	지역	정보화마을
서울	-	강원	60
부산	4	충북	19
대구	2	충남	33
인천	-	전북	39
광주	4	전남	47
대전	-	경북	46
울산	-	경남	29
세종	1	제주	17
경기	50	합계	351

자료: 정보화마을 홈페이지(www.invil.org)

❑ 희망마을만들기

-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식명칭은 희망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으로 2008년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 등에 복합활용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된 동네마당조성사업으로 시작되었다가 2010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음. 주관부서는 행정자치부임

• 사업의 지원대상은 영세민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친수공간 자전거길·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사업 인근 지역이며 지원내용은 3가지 유형이 있음

– 생활공간개선형 사업: 야외 쉼터(마당), 벤치, 운동기구 정원 등을 조성

– 사회복지확충형 사업: 북카페, 놀이방, 도서관·다문화지원센터 등을 조성

– 수익사업추구형 사업: 특산품 전시장, 체험실, 작업장, 주차장 등을 조성

표 3-10 전국 희망마을 조성사업 현황(2010~2015)

지역	소계	희망마을		
		생활공간개선형	사회복지확충형	소득사업추구형
서울	5	2	3	-
부산	13	1	10	2
대구	8	-	6	2
인천	6	2	1	3
광주	7	1	6	-
대전	4	-	2	2
울산	-	-	-	
세종	-	-	-	-
경기	12	-	6	6
강원	9	1	2	6
충북	6	1	2	3
충남	7	-	4	3
전북	10	1	6	3
전남	10	-	-	10
경북	9	1	2	6
경남	9	1	1	7
제주	5	-	3	2
합계	12	11	54	55

자료: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 내부자료.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1995년 이후로 시행되고 있었던 지방자치제를 마을단위 차원에서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3년도부터 시행되었음

- 기존에 동사무소를 1999년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등 그 동안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역량에 대한 강화 노력이 있었으나 주로 주민자치센터는 문화 및 복지 기능으로 사용되어 주민자치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점을 보임
- 행자부는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음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주민자치회와 주민회를 조직하여 지역행정사무에 대한 협의권과 위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13년 지자체별 공모결과 31곳이 선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업은 지역복지형과 안전마을형, 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 평생교육형, 지역 자원형, 다문화 어울림형의 사업으로 구성됨

표 3-11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선정지역 현황(2014년 기준)

지역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역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서울	2	강원	2
부산	2	충북	1
대구	1	충남	4
인천	1	전북	2
광주	3	전남	2
대전	1	경북	1
울산	1	경남	2
세종	1	제주	-
경기	5	합계	31

자료: 김현호. 2013.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P.90을 수정함

❑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은 '커뮤니티 가든(Community garden)'으로 불리는 지역민이 공동으로 소유, 운영하는 농장, 텃밭, 화단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원 조성을 통해서 공동체 공간의 활성화와 도시 미관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추가적으로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은 사업의 대상지인 정원 자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을정원과 마을자원의 연계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의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이 참여하고, 2015년에는 8개의 공동체가 선정되었으며 2016년에는 11개소가 추가될 예정임

표 3-12 공동체마을 정원조성사업 지정 현황(2016년 2월 기준)

기관명	공동체명	주요사업
경기 가평군	청평4리 주민자치회	• 정원시설(가족 및 단체 텃밭·꽃밭 등) • 공동활용시설(커뮤니티가든하우스 및 관리실) • 지원시설(농기계보관창고, 관수시설 등)
강원 삼척시	내미로리마을운영위원회	• 정원시설(가족 및 단체 텃밭·꽃밭 등) • 공동활용시설(향토찜질방, 민속놀이시설, 원두막 등) • 위락시설 및 지원시설
경북 포항시	포항시 새마을회	• 정원시설(텃밭, 아치, 연못, 비닐하우스 등) • 주민이용시설(어린이체험시설, 지압로, 원두막 등) • 기타시설(주차장, 포토존, 농기구보관창고 등)
부산 광역시	(사)부산밥퍼나눔공동체 (사)부산장애인부모회	• 정원시설(채소원, 약초원, 무장애텃밭 등) • 공동활용시설(관리실, 저장창고, 나눔터 등) • 지원시설(버섯재배사, 온실, 원두막 등) ※ 노숙인, 장애인 일자리창출 및 자립의지 고취
인천시 남구	용현5동 주민자치위원회	• 정원시설(가족 및 단체 텃밭·꽃밭 등) • 공동활용시설(관리실, 교육장, 공동조리장 등) • 지원시설(농기구보관창고, 퇴비장, 태양광 시설 등)
경기 시흥시	시흥백년정원	• 정원시설(단체 꽃밭 등) • 공동활용시설(관리실, 교육장, 휴게시설) • 지원시설(원두막, 보관창고, 하우스 등)
경남 통영시	명정동공동체 운동추진위원회	• 음악정원조성(단체텃밭, 꽃밭, 음악정원) • 지원시설조성(야외음악당, 쉼터, 오솔길 등) ※ 서피랑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경북 김천시	김천시 새마을회	• 정원시설(가족 및 단체 텃밭·꽃밭 등) • 공동활용시설(관리실, 교육장 및 조리장 등) • 지원시설(농기구보관창고, 온실, 원두막 등)

자료: 행정자치부 보도자료(함께 만드는 마을정원, 희망과 행복을 디자인해요) 2016년 2월 4일
(http://www.moi.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8344)

표 3-13 마을공동체관 부서별 시행사업(2015년 기준)

부처명	사업명	주요내용	지원대상	근거법
행자부	마을기업	-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	전국	사회적기업육성법
	희망마을	- 지역내 최약계층의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원	전국	-
	공동체 정원사업	- 공동체의식 함양, 정원문화 확산	전국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 공동체의 자치역량 강화	전국	지방분권 및 지방행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정보화마을	- 농산어촌 정보화를 통한 소득증대·정보격차해소	농산어촌	전자정부법
농 식품부	농촌공동체회사 육성	- 마을 주민 또는 단체가 참여하여 마을환경개선	농산어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 농산어촌 인구유자·지역별 특화발전	농산어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색깔있는 마을	- 유·무형 마을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활력제고	농산어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촌공동체회사 육성	- 마을 주민 또는 단체가 참여하여 마을환경개선	농산어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마을 지원	농산어촌	자연환경보전법

자료: 한국지역진흥재단(2016, p.2)을 수정보완.

2. 새마을운동과 마을의 변화

❑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마을 공간구조를 주민 역량으로 개선한 대표적 사례임. 이는 당시의 국가정책적 지원도 있었지만 과거에 비해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적 생활양식의 확산과 전통적 농업생산양식으로부터 기계화 영농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기도 함

❑ 새마을운동에서 마을은 그 발전 수준에 따라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로 나누었음

- 기초마을 : 지도자 발굴 사업을 우선 실시하며, 마을공동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단합과 정신계발을 도모
- 자조마을 : 환경개선사업을 마치지 못한 ㅎ마을은 계속 지원하여 자립마을로 유도하고,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가 지원
- 자립마을 : 새마을 가꾸기로 다져진 기반 위에 환경개선사업을 완성하고, 문화복지시설과 생산소득기반을 더욱 확충하도록 지원

❑ 기초마을에서 자조마을, 다시 자립마을로 승격하기 위한 마을 공간의 여건들을 다음 표와 같이 정하여 마을 유형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였음

표 3-14 새마을운동의 마을유형 및 유형별 지원

사업별	자조마을 (Self-help Village)	자립마을(Self-reliant Village)	
		일반농촌마을	소재지마을
농촌도로	-간선안길의 완성 -마을진입로의 정비	-간선도로의 완성 -20m 미만 교량가설 완성	-간선도로정비 80%이상 -지선도로정비 80%이상
주거환경	-지붕개량 70% 이상 -간선 하수구의 정비	-지붕개량 80% 이상 -담장개량 80% 이상	-상점 및 간판정비 100% 이상 -시장 및 정류장 정비
영농기반	-수리답율 70% 이상 -마을 안 세천 정비	-농경지 수리율 85% 이상 -마을주변 세천 정비	-지선 안길의 정비완료 -지붕개량 90% 이상
협동생활	-회관, 창고, 작업장 등 1건 이상 -마을기금 50만원 이상	-회관, 창고, 작업장 등 2건 이상 -마을기금 100만원 이상	-회관, 창고, 작업장 등 2건 이상 -마을기금 200만원 이상
소득사업	-공동소득사업 1건 이상 -호당소득 80만원 이상	-농외소득사업의 개발추진 -호당소득 140만원 이상	-농외소득사업의 개발추진 -호당소득 140만원 이상

자료: 양원식·최수명(201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공동소득사업 성과분석, 『농촌계획』 19-1호.

❑ 새마을운동의 마을개선 사업에 따른 마을유형별 변화과정을 보면 <표 3-15>와 같음

표 3-15 마을개선사업에 따른 마을유병별 변화

구분	전체 마을 수 (개소)	자립마을		자조마을		기초마을	
		마을 수 (개소)	구성비 (%)	마을 수 (개소)	구성비 (%)	마을 수 (개소)	구성비 (%)
1972	34,665	2,307	7	13,943	40	18,415	53
1973	34,665	4,246	12	19,763	57	10,656	31
1974	34,665	7,000	20	21,500	62	6,165	18
1975	35,031	10,049	29	20,936	60	4,046	11
1976	35,031	15,680	45	19,049	54	302	1
1977	35,031	23,322	67	11,709	33	-	-
1978	34,815	28,701	82	6,114	18	-	-
1979	34,871	33,893	97	976	3	-	-

자료: 내무부, 1984, 새마을운동 p.319.

❑ 또한 마을 관련 사업내용을 보면 <표 3-16>과 같음

표 3-16 마을 관련 사업내용

사업명	단위	목표('71년 설정)	실적('80년 까지)	목표 대비 실적비(%)
마을 안길 확장	km	26,266	43,558	166
농로개발	km	49,167	61,797	126
소규모 다리건설	개소	76,749	79,516	104
마을회관 건립	채	35,608	37,012	104
창고 건립	채	34,665	22,143	64
작업장 건립	개소	34,665	6,263	18
축사 건립	개소	32,729	4,476	14
소규모 저수지	개소	10,122	13,327	132
둑(제방) 건설	개소	22,787	31,625	139
수로 건설	km	4,043	5,161	128
소하천 정비	km	17,239	9,677	56

사업명	단위	목표('71년 설정)	실적('80년 까지)	목표 대비 실적비(%)
주택개량	천 채	544	225	42
취락구조개선사업	마을	– (당초 계획 없음)	2,747	–
소도읍 가꾸기	개소	1,529	843	55
간이급수시설	개소	32,624	28,130	86
하수구시설	km	8,654	15,559	179
농어촌 전화사업 (電化事業)	천 호	2,834	2,777	98
마을통신사업	마을	18,633	18,633	100
새마을공장 건설	개소	950	717	75
마을 조림사업	ha	967,362	642,804	66

자료: 새마을운동중앙회(1998), 한국의 새마을운동 p.22.

❑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새마을운동을 통한 당시의 농촌마을 환경개선은 규모면에서나 사업내용 면에서 이전에 어떤 사업보다도 파급효과가 컸던 사업이었음

- 취락구조개선사업, 마을안길 조성, 마을 내 공공시설인 마을회관의 건립, 마을통신사업, 전화사업, 간이급수 및 하수구 시설 등은 전통적 농촌마을 공간구조에서 현대적 생활양식에 부응할 수 있는 공간구조로 탈바꿈하는 대표적인 사업들임
- 개별주택개량사업은 과거 농촌주택이 생산과 주거가 혼용되어 사용하던 것에서 주거 위주의 공간으로, 그리고 현대식 전자제품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주택 내부의 동선을 과학화하고 외부의 단열, 지붕개량 등 주거효율성을 제고하므로 농촌에서도 도시적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음

3. 미래 국토트렌드 전망과 마을의 변화

1) 미래 메가트렌드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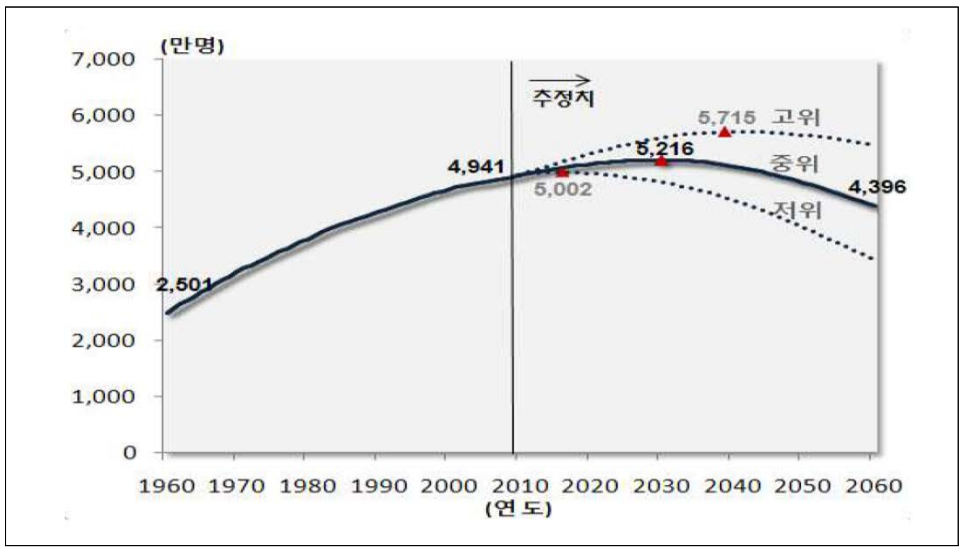
❑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기후변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이 도전을 받고 있음

- 이들 메가트렌드는 단기간에 흐름을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으로 발생하며 장기간에 걸쳐 국가사회 및 지역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

❑ (인구구조)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총인구(중위성장 가정)는 2010년 4,941만 명에서 2030년 5,216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여 2060년 4,396만 명(1992년 수준) 전망

그림 3-5 장래인구 추계(2010~206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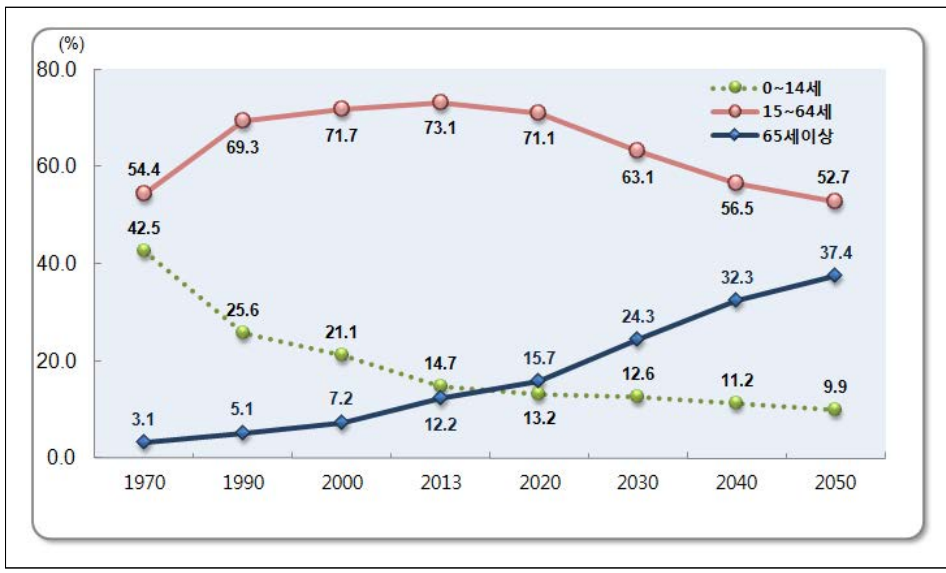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1.12.7) 장래인구추계: 2010-2060년. (2016.10.10. 검색)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960년 1,370만 명(54.8%)에서 2010년 3,598만 명(72.8%)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50년까지 1천만 명 이상이 감소하고, 2060년에는 2,187만 명(49.7%)에 불과할 전망(국토교통부 2015 p.19)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970년 3.1%에서 2013년 12.2%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전망

  ※ 2050년 고령인구비율: 미국 21.6%, 유럽 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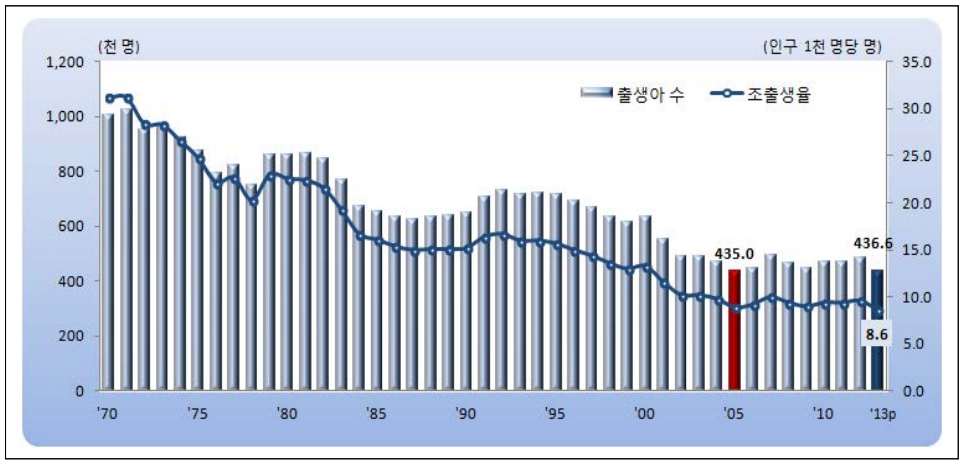
그림 3-6 연령별 인구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2013. 2013 고령자 통계

-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2013년 인구 1,000명당 조(粗)출생률은 8.6명에 머물러 사상 최저,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2001년 이후 13년째 초(超)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 이하) 지위를 유지(국토교통부 2015 p.21)

그림 3-7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추이



자료: 통계청. 2014. 2013년 출생·사망통계(잠정)

- 외국인 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현재 2.8%, 2020년 5.0%, 2040년에는 외국인 체류자수가 약 3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다문화사회의 본격화 예상

  ※ 외국인 체류자수(인구대비 비율) : 5.0% (2020년) ⇨ 6.0% (2030년) ⇨ 7.4% (2040년)

- 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1인 가구수가 520만 가구로 급속히 증가하여 전체 1,911만 가구 중 27.2%(2015)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중소도시 및 농촌마을은 고령인구의 증가로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 1인가구 비율: 27.2% (2015년) ⇨ 31.3% (2025년) ⇨ 34.4% (2035년)

그림 3-8 연도별 1인가구 비율

자료: 통계청, 2016b, 2015 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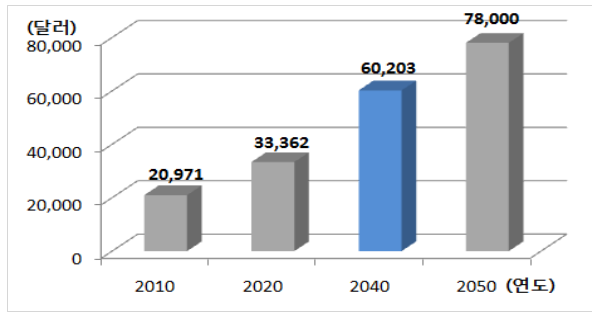
❑ (경제구조) 성장잠재력 저하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되고 있고, 지방중소도시 및 농촌마을부터 저성장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전망

- 인구 고령화, 투자 감소, 경기침체 등의 원인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게 약화되어 연간 경제성장률은 3.5%(2013~2017년)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2003~2007년 연평균 4.3%)에 비해 낮아질 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13)
- 1인당 GDP는 20,971달러(2010년)에서 2040년 60,203달러, 2050년은 78,000달러로 전망
- 그러나 소득계층간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간 주거, 산업입지, 교통, 토지이용, 여가관광 서비스 격차도 심화될 전망이고, 자원이 부족하거나 교통접근성이 낮은 농촌마을은 더욱 상대적 격차가 커지면서 소멸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
-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가구주 기준)의 소비증가가 2011~2015년 38.5%에서 2016~2020년 62%로 증가하는 등 고령층 가구의 소비증가율이 높아지고, 고령층의 기대수명 증가, 저금리와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등에 따른 자산소득 축소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한국은행, 2016 p.16)

그림 3-9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전망(2010~2050년)

(단위 : 달러, 2005년 불변가격 기준)

연도	1인당 GDP
2010	20,971
2020	33,362
2040	60,203
2050*	7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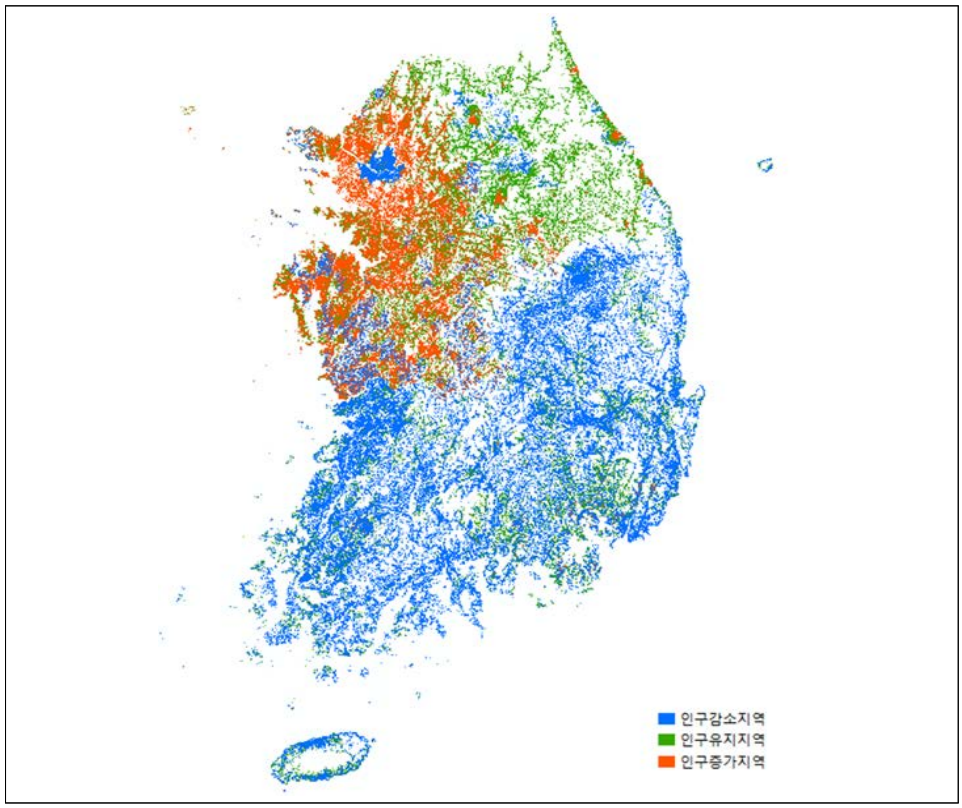
주: 한국개발연구원 전망. *2050년은 국토연구원 추정
자료: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2010.6. Grand Vision 국토 2040 p.5

❑ (국토구조)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구감소 지역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 별도의 정책개입 없이 현재 추세가 진행될 경우, 지방의 붕괴현상, 마을의 붕괴 현상이 나타날 우려

- 미래국토 2040의 인구과소화 지역 전망 결과, 2013년 거주지역 중 2040년에 인구증가지역은 29.8%, 인구유지지역은 17.3%, 인구감소지역은 52.9%로 전망(차미숙 외, 2015 p.3)
- 인구과소화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3]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 별도의 정책개입 없이 현재 추세가 진행될 경우 지방의 붕괴현상 초래할 우려

3) 변필성 외(2015)는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2013년 현재 인구 50만 미만이면서 지방자치법 제7조의 시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비수도권소재 시급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방중소도시는 2013년 현재 43개이며, 2000-2013년간 인구(주민등록인구 기준)의 전국 평균변화율(0.64%)에 비해 낮은 0.01%를,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변화율 5.19%에 비해 높은 6.50%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0~2010년간 근무취업인구의 전국 평균변화율은 1.86%인데 비해 지방중소도시의 경우는 0.78%로 일자리 증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임(변필성 외, 2015,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그림 3-10 2040년 인구과소화지역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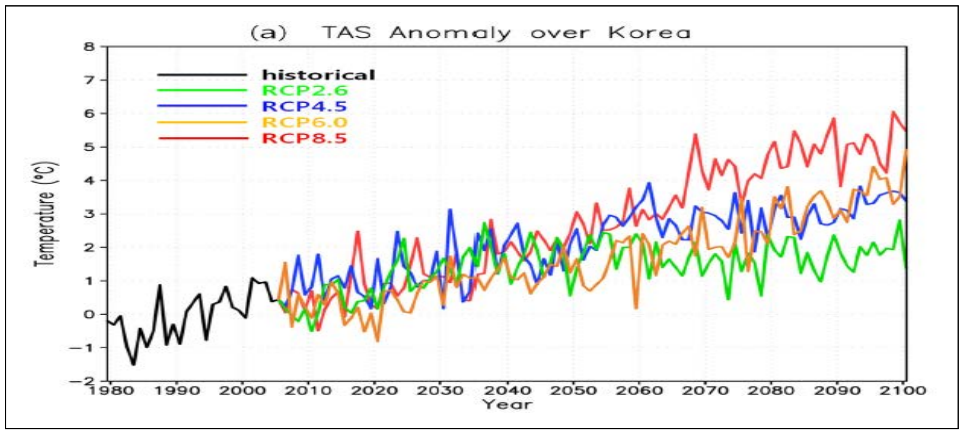


주: 통계청의 2040년 장래인구 추정치를 격자단위(500m)로 세분화하여 주거용 건물 유무를 기준으로 거주/비거주지역으로 구분(인구과소화지역: 격자당 5인 이하 거주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정의)
자료: 차미숙, 2015,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 국토정책Brief 525호, p.3

❑ (환경·기후변화·에너지구조) 지구온난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 등 급속한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환경자원의 중요성이 점증할 전망

- 세계 전체로는 지난 세기(1912~2010년) 동안 기온이 0.18℃/10년 속도로 상승하였고, 강수량은 21mm/10년 비율로 증가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를 겪음
- 한반도의 21세기 말(2071~2100년) 기온 및 강수량은 과거(1971~2000년)에 비해 기온은 1.8~4.8℃ 상승하고, 강수는 6.5%~1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온상승 및 강수 모두 지구전체 평균보다 더 크게 상승(국토교통부 2015 p.30)

그림 3-11 한반도의 기온 변화 전망



자료: 국립기상연구소. 2012. 전지구 기후변화 보고서 2012 p.65

- 향후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확보 및 국토환경생태 자원 등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전 세계적으로 신규 에너지원 확보 노력이 강화될 전망(국토교통부 2015 p. 32)
-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에 관한 파리협정(2015. 12. 12.) 채택으로 지구 평균기온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기술협력이 강화될 전망
-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되면서 분산형 에너지자족시스템이 확대될 전망

※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 기준전망(BAU) 대비 37%로 결정됨에 따라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교통·주거분야의 변화와 혁신 전망

2) 미래 국토 시나리오와 농촌 마을변화 전망

❑ 미래 경제발전 및 제약요인(과학기술융복합, 자원 및 환경변화)이 국토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규모 및 대도시 인접성, 광역교통망 접근성을 토대로 4개의 미래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농촌마을변화 전망

- 메가도시권 성장 시나리오, 자족적 분산 시나리오, 분산적 집중시나리오, 다중심 초연계 시나리오(이용우외, 2014, 국토연구원 p.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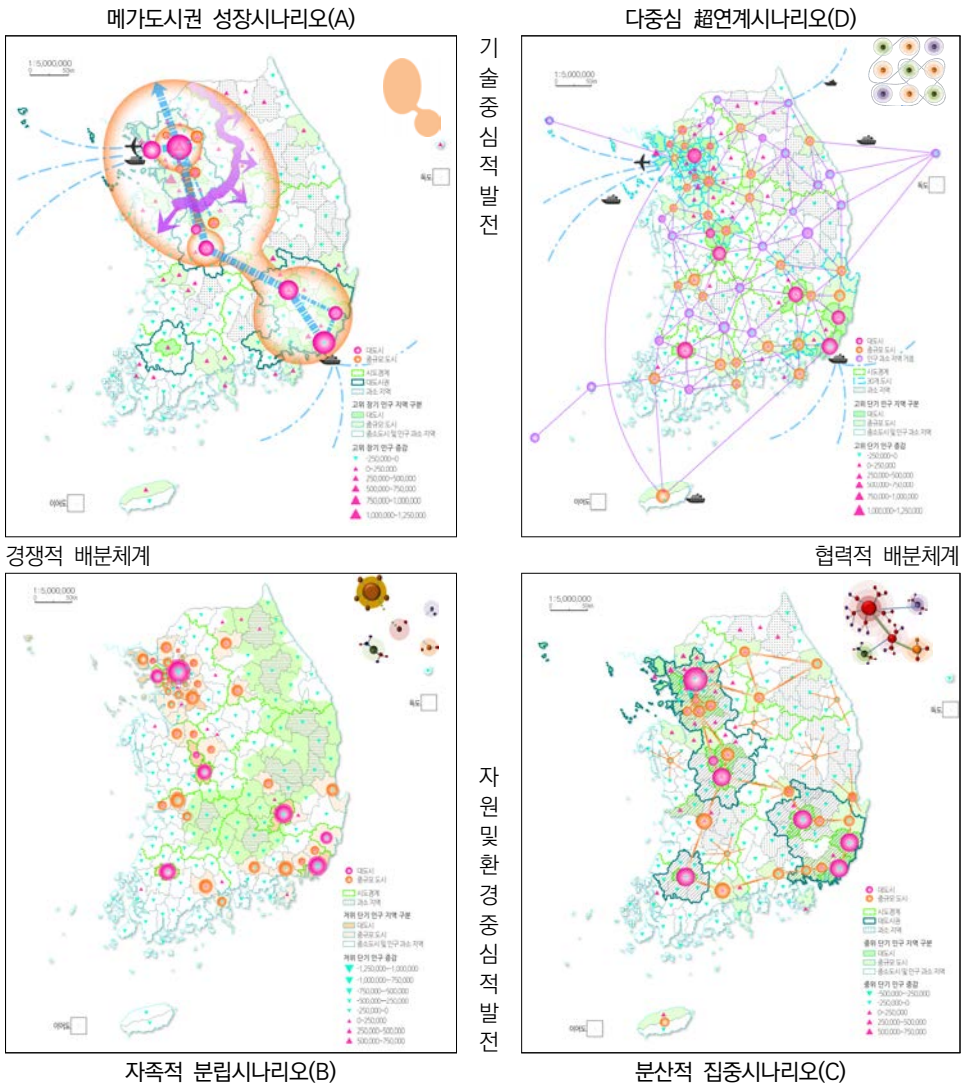
❑ (메가도시권 성장시나리오) 대도시권 중심으로 첨단융합화된 국토이용 증가

- 대도시와 접근성이 양호하고 경관이 수려한 생활공간이 첨단화(주거공간의 스마트화 및 네트워킹, 노동공간의 유비쿼터스화, 통행의 초고속화 및 편리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귀촌 증가
- 대도시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존자원 및 생산력이 낮은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마을 소멸 우려
- 이에 정부에서는 지역자원과 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발전 전략과 여가문화공간 및 건강치유공간 확충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자족적 분립시나리오) 대도시권 중심으로 첨단융합화된 국토이용 증가

- 초고령화 및 인구 감소, 이동성 제약 등으로 국토이용격차 심화될 전망
-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방치되었던 농지나 산지가 에너지 플랜테이션으로 변화되고, 인프라 투자 감소와 공동화 지역의 방치로 재난재해 취약 전망
- 이에 정부에서는 1차 산업과 지역자원 중심의 재지역화(relocalization) 등으로 식량 및 에너지 생산 공간의 부활과 이를 중심으로 한 마을공간구조 재편성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고, 생태환경에너지 자립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인구과소 및 공동화 지역의 선택적 집중과 저이용, 미이용 국토공간의 관리 효율화, 식량 및 에너지 생산기지 조성 정책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

그림 3-12 미래 국토 시나리오



자료: 이용우외, 2014,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I, 국토연구원 p.xi

❑ (분산적 집중시나리오) 수요 맞춤형 베드타운 증가

- 귀농귀촌가구 및 다문화가정 2세 등이 주요 마을 주체로 등장하고, 무이용, 저이용 되는 산지 및 농촌마을 등의 여가 및 치유공간 활용이 증가될 전망
- 광역도시권 주변 교통 접근성이 좋은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과 마을들은 도시로

의 의료·쇼핑시설 등의 이용이 증가하고, 인접 광역도시권으로부터 쾌적하고 여유로운 환경과 저렴한 집값 등을 이유로 신거주지, 베드타운화될 전망

❑ (다중심 초연계 시나리오) 분산적 국토이용 증가

- 디지털화, 초고속화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생활공간이 확장되고, 1인 및 2인 가구 증가,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국토 특정 공간에 대한 선호가 사라져 대도시로의 집중과 지방으로의 분산이 병존하는 국토공간구조 형성
- 자연친화적이며 도시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대도시 및 광역도시권 인접 농촌 마을들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마을공간, 생활서비스기반 등도 정비될 전망

4. 해외사례 : 일본 마을의 변화와 특성

1) 일본마을의 현황과 변화

(1) 일본 마을의 현황

① 일본마을의 과소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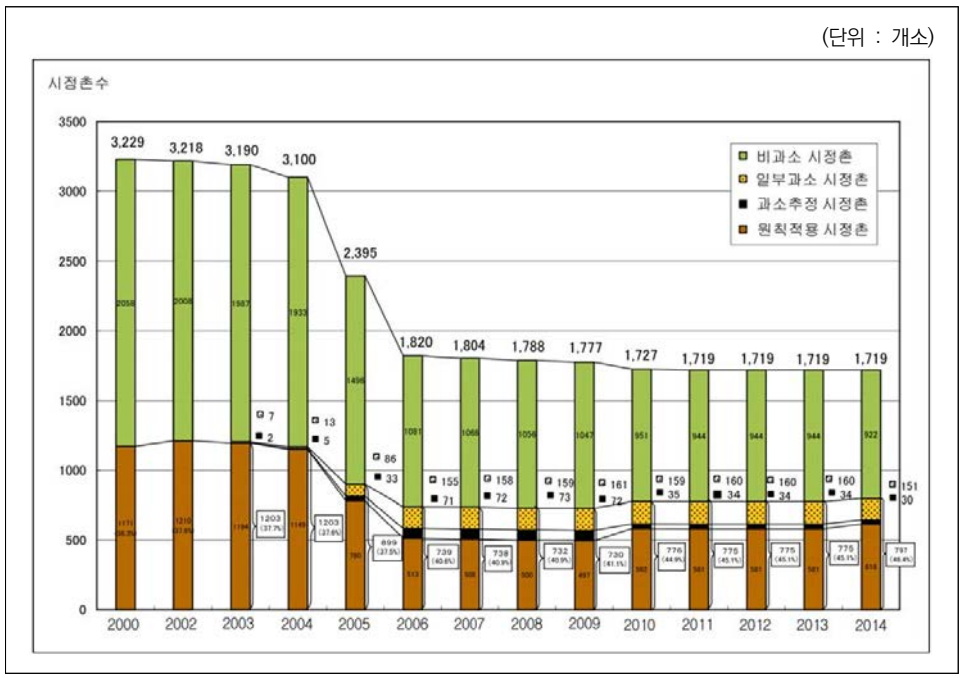
❑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든 일본은 20여 년 전부터 중심시가지 활성화 제도를 정비하고, 빈집의 적정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음(이승민, 2015 p. 98)

❑ 일본은 우리에 비해 산업화가 선행되면서 농촌마을의 과소화 현상을 먼저 겪었고, 일본 과소지역은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법조치법(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2000)」에 따라 인구 및 재정력 요건을 충족하는 시·정·촌(市·町·村)을 대상으로 지정됨 및 관리됨

❑ 과소지역으로 지정된 시·정·촌 수는 2006년 전체 1,820개 중 739개(40.6%)였으나, 2014년에는 전체 1,719개 중 797개(46.4%)로 비율과 수가 모두 증가하였고, 2006년과 2014년 사이에 시·정·촌 합병이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소지역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임상연·변필성, 2014 p. 2)

❑ 특히 도시와 농촌의 구분 없이 산업화에 따른 특성상, 쇠퇴도시와 쇠퇴하는 농촌이 등장하는 보편적 특성을 보이면서, 과소화 현상과 지역의 쇠락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이 실시됨

그림3-13 일본 시정촌 및 과소 시정촌의 변천



주: 전체 797개 과소지역 시·정·촌(2014년 기준) 중 151개 '일부과소' 시정촌과 30개 '과소추정' 시정촌은 201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시·정·촌 합병으로 인하여 일부 요건이 조정됨에 따라 법적 분류가 나뉘어졌으나, 통상적인 과소지역에 포함됨

자료: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http://www.soumu.go.jp), 임상연·변필성(2014) p.2에서 재인용

② 한계마을 개념의 등장

❑ 1980년대 일본 농촌의 과소화 현상이 심화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인구가 집중된 농·산간 마을을 "한계취락(限界聚落)"으로 이라고 지칭함

❑ 1991년 나가노대학 오노 아키라(大野晃) 교수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마을인구의 50%를 넘어 마을의 관혼상제, 농업 등 사회적 공동생활이 곤란해진 취락으로 한계마을의 개념을 제창함

❑ 한계마을은 고령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존속마을, 준한계마을, 한계마을 등으로 구분하며 한계마을의 단계를 넘어선 경우를 소멸마을로 분류함

❑ 한계마을의 부정적 느낌으로 인해 총무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등 일본 정부에서는 정식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오노 교수의 개념을 수치화하여 정기적으로 마을 현황을 조사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 마련을 시도하고 있음

표 3-17 일본의 한계취락 구분 및 특성

명칭	정의	내용
준 한계 취락	55세 이상 인구 50% 이상	현재 공동체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후계자 확보가 어려운 곳으로 한계취락화 될 가능성이 큰 상태
한계취락	65 세 이상 인구 50% 이상	고령화로 인해 공동체의 기능 유지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
초 한계 취락	특별한 정의 없음	한계 취락의 상태를 넘어 소멸 마을로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상태
소멸취락	인구 0	주민들이 존재했지만, 인구의 이주 및 자연감소에 따라서 마을이 소멸된 상태

자료: 大野晃(1991); 이병기 등(2009), 성주인(2014) 재인용

(2) 일본의 과소화 대응정책

① 일본의 과소지역 정책의 흐름

❑ 1970년대 이후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하드웨어 중심의 농촌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종합적 과소지역 진흥책으로 변화됨

❑ 2010년 이후에는 주거여건 개선, 공공서비스 공급, 지역 활력 및 기본기능 유지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한 작은 거점과 향토 집락[4] 생활권 구성 정책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일본 총무성과 국토교통성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과소지역 집락의 현황과 구체적인 문제 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집락대책 실시를 위하여 조사를 실시함(임상연·변필성, 2014)

4) 우리나라의 행정리와 유사한 위계임.

❑ 특히 2000년대에 들어 농촌 취락의 기능 약화로 '농촌커뮤니티의 재편성'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여러 정부 부처에서 농촌커뮤니티 재편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 과소화, 노령화, 저출산이라는 인구학적 변동과 함께 농촌주민의 생활욕구 및 사회관계 구조가 변함으로써 촌락공동체는 인접해서 거주하는 주민집단, 즉 단순한 근린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
- 즉 집락은 상호면식과 일상적 접촉을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해 주는 기능 이외에 위에서 언급한 제 기능들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
- 이에 따라 농촌주민의 소외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서도 시급히 대처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그 일환으로 '농촌커뮤니티 재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의 '농촌커뮤니티 재편'은 농촌커뮤니티의 기본 기능들을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커뮤니티 단위를 찾아 조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음

- 과거에는 집락 및 주거 이전을 통한 집락재편 방식이 추진되어 왔으나, 그 방법이 효과적이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재정 악화로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됨
- 그 대안으로 주목받는 정책 중의 하나가 '집락연합정책'인데, 집락연합정책은 복수의 집락을 묶어 광역적 농촌커뮤니티를 구축하려는 정책임[5]. 구체적 집락연합의 범위는 집락의 입지 조건에 따라 다양하지만, 주민의 인식공간과 행동공간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6]
- 이 정책은 커뮤니티 스스로 생활환경의 유지, 산업의 진흥, 주민복지의 향상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자치적 역량을 갖춘 이른바 '강한 농촌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財團法人農村開發企劃委員會, 2007, 3)
- 새로운 집락연합체는 집락들의 대표들만이 참여하는 대의적 협의체가 아니라 집락연합 내 모든 주민들이 자동적으로 구성원이 되는 지연형 자치기구를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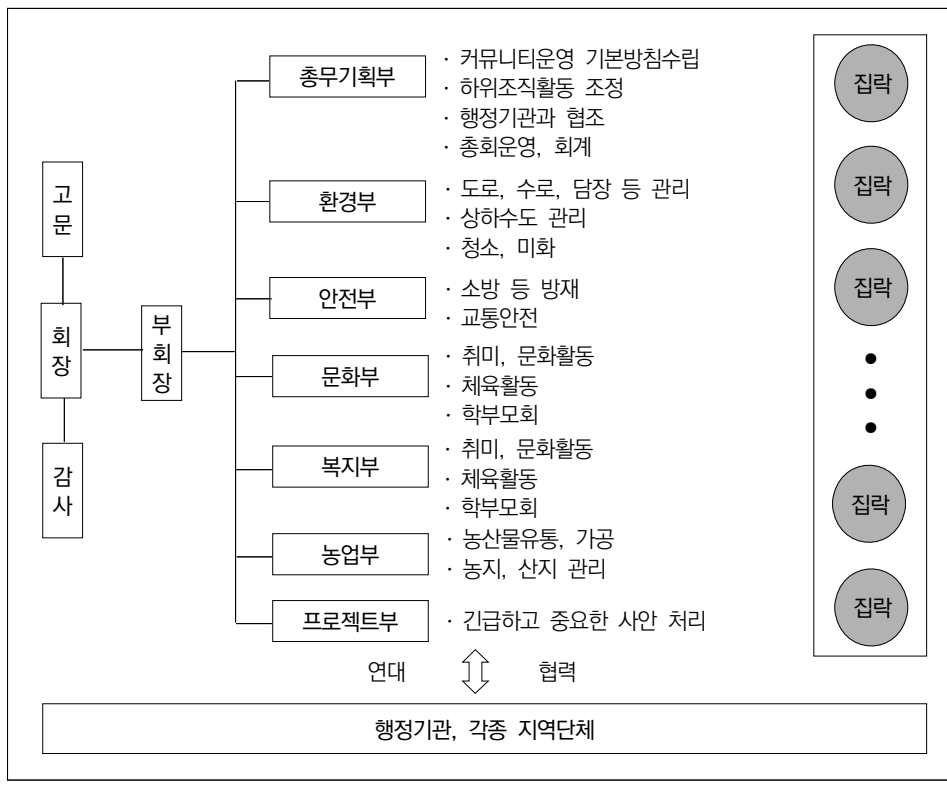
5) 이 정책 추진에는 과거와 같이 농촌총합정비사업의 형태로 집락 단위로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고 또 그 정책들이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6) 일정한 규모의 인적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야 하고, 공동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 내의 집락들의 연합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그 범위를 독자적 범위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구촌(舊村) 혹은 소학교 학구 범위가 가장 적합한 범위로 평가되고 있다.

고, 자치기구 아래에 커뮤니티가 수행하는 기능별로 전담하는 하위조직들을 두어 공동체로서의 기능들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함

- 즉 형식적으로는 마을들의 연합이지만 마을 구분을 없애고 새로운 커뮤니티 단위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7)]
-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집락연합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 핵심인력의 확보와 활동을 위한 인건비 지원, 집락연합커뮤니티 단위의 공동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자금 지원, 조직체의 NPO 법인화 추진, 활동거점시설 및 관련 장비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표 3-14> 참조)

그림 3-14 일본의 집락연합 커뮤니티의 조직체제(예)



자료: 財團法人農村開發企劃委員會, 2007. 6

7) 즉 집락이 하위조직 단위가 되거나, 노인회 혹은 부녀회 같이 성·연령과 같은 유사한 사회집단으로 구성된 하위조직을 두는 형태를 지양한다.

• 현재 국내 정책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작은 거점 만들기」사업도 단순히 서비스공급 효율화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집락연합커뮤니티 육성과 관련이 있음(<그림 3-15> 참조)

그림 3-15 일본의 작은 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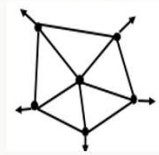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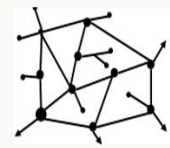
자료: 國土交通省, 2014.7, 国土のグランドデザイン2050

❑ 국토청(1999, 現 국토교통성)은 과소지역의 취락구조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함

- 첫째, 네트워크를 포함한 트리(tree)형으로 이러한 유형에 대한 전략으로는 트리상 기간집락에서 부족한 요소를 투입하는 전략 수립
- 둘째, 네트워크형으로, 네트워크에 부족한 요소를 투입하는 전략 수립
- 셋째, 트리(tree)형으로 결절점 기간집락에 부족한 요소를 투입하는 전략 수립
- 넷째, 트리(tree)를 포함한 네트워크형으로, 트리를 포함한 결절점에 부족한 요소를 투입하는 등 유형별 집락강화 대응전략 마련

❑ 취락의 중심성 상실과 주변지역화가 과소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졌고, 일본 정부의 과소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범정부적 차원에서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실행함(임상연 외 p. 3)

그림 3-16 일본 과소지역 집락구조의 분석

구분	네트워크를 포함한 트리형	네트워크형	트리형	트리를 포함한 네트워크형
집락 구조				
대응 전략	트리상 기간집락에서 부족한 요소 투입	네트워크에 부족한 요소 투입	결절점 기간집락에 부족한 요소 투입	트리를 포함한 결절점에 부족한 요소 투입

자료: 국토관리청,1999, 과소지역 등의 중심집락 진흥과 집락정비에 관한 조사보고서.

②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업 실행

❑ 일본도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도시와 농촌에서의 과소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과소화 현상이 지역 차원에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러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소단위인 집락에 대한 현황과 구체적인 문제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집락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마을만들기 사업 등의 실행으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함

- 일본의 과소화 현상에 대한 다른 하나의 핵심적 실행 차원의 전략 및 방안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임

❑ 경제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의 인식과 가치관이 변하여 경제나 생산을 중시하던 것에서 생활환경을 중시하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하면서, 이에 따라 저성장기에 들어선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사는 지역을 살기 좋고, 매력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하게 시도됨(양진영, 2007)

❑ 일본에서의 마을만들기는 60년대 후반의 특이한 사회현상 속에서 "마을만들기"라는 개념이 정착되었고, 그렇게 정착된 마을만들기로부터 각각의 과제가 재정비되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전개됨(김선직, 2009)

❑ 일단 정착된 마을만들기는 각각 서로 간에 영향을 받아 기술과 방법을 교환하면서 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 60년대의 고도경제성장 노선에 대한 비판, 구체적으로 주변의 거주환경이 위협받

는 것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마을만들기 운동이 전개됨(김선직, 2009)

- ❑ 일본의 마을만들기는 주민, 전문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1960년부터 시작하여 1980년 들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이후 일본 각지로 보급되었고 현재는 초창기의 단순한 주거 환경개선에서 벗어나 시민 참가, 녹지나 농지의 보전, 고령자를 위한 마을만들기, 중심 시가지 재생, 단지 개축, 노숙자 주거 및 생활대책, 하천 보전, 방재대책, 도시계획 등에 대한 정책 제안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Yang, Lee, & Kim, 2007)
  - 마을만들기의 기본방향은 주민 자치적 참여로, 주민 자치적 마을만들기의 기본 원리는 생활 전체에 대하여 자신의 마을이라고 생각하는 종합적 주인의식, 이질적인 사람들과의 공동·공존의식, 주민 주체의 공동작업, 주민에 의한 자발적 발상임(김영주, 2012)
- ❑ 일본의 마을만들기 활동은 거주지 환경보전, 좋은 주거지 만들기, 지역 고유산업진흥, 지역문화 창달,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 자연환경 보전, 시민 생활네트워크 정비, 시민활동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왔음(김영주, 2012)
- ❑ 마을만들기의 역할이나 활동 영역은 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 도시에서는 시민 보호와 아름다운 환경 조성 등의 사업에 중심이 높은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심이 높게 실행됨(서태성, 2002)
- ❑ 일본의 마을만들기 역시 처음에는 관주도형으로 물리적 도시환경 정비에서부터 출발하였으나 점차 주민에 의해 제기된 지역 고유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변모하면서 오늘날과 같이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형성에 힘쓰게 됨(Kim & Lee, 2007)

2) 사례지역 선정

- ❑ 일본 농촌의 과소화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작한 다양한 관리 및 제도 등의 정책 가운데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행되고, 그 가운데 성공한 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어떠한 관점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성공하고, 국내에 도입되어야 할 시사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함임

❑ 현재까지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마을의 사례 분석 연구는 대부분 변화된 형상 및 과정, 계획과정과 지역주민의 참여 관련 분석에 한정되었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일본 사례는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대주제인 마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공동체성과 지리공간성의 두 차원에서 보다 밀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사례지역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첫째,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의 공동체성 내지 협력적 거버넌스가 뚜렷이 나타난 사례
- 둘째, 마을공간에 대한 기능적 변화와 공간구조의 변화 성과가 뚜렷이 나타난 사례

❑ <표 3-18>의 사례지역은 위의 두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지역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표 3-18 사례지역 유형분류 및 특성

구분	오미나미야미	카네야마읍	나가이시
특성	- 과소화 가속화 - 인구의 노령화 - 전통문화의 훼손	- 과소화 현상 가속화 - 임업 특화 마을 - 마을 활력 감소	- 농·상업 발달 지역 - 지속가능 농법에 대한 관심 고조 - 농업을 통한 지역재생 관심
마을 유형	농촌마을	농촌마을	소규모 도시
마을만들기 사업	- 친환경 경관조성 - 지역축제 계승	- 경관만들기 100년 운동 사업	- 레인보우 플랜 (유기물 순환 시스템)
주요 성과	- 도시민의 이주 - 경관 개선(꽃길조성) - 전통문화 계승 - 지역주민 유대감 향상	- 친환경마을 조성 - 경관 개선 - 관광객 증가	- 사회적자본 강화 - 환경 보전효과 - 농산물 신뢰 강화 - 농업문화의 신규 패러다임 제시
사례분석 목표	-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주요 성과 지표 달성 결과(정성, 정량 지표) -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속성 분석 - 공간을 포함한 마을의 변화 정도 - 마을주민의 사업에 대한 지지도 확인 - 지역의 긍정적 변화 정도 및 인구 추이 등에 대한 확인		

자료: 저자 작성.

3) 사례지역 분석

(1) 교토부의 오미나미야미 마을력 재생 생명마을사업

① 교토부의 지역력 재생 프로젝트의 개요

❑ 지역력 재생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

- 교토부는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지역산업의 쇠퇴와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커뮤니티의 약체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정체성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실시함
- 2007년부터 지역력 재생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단체 및 마을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기 시작함

❑ 지역력 재생 프로젝트의 시행

- 지역력 재생 프로젝트는 교토부의 "지역력"을 최대한 살린 교토 만들기를 위해 모든 분야에서 주민과 행정의 협동 및 협력을 지향하며 지역별로 지역력 재생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지역력 재생 플랫폼은 지역 활동을 하고 있거나 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과 행정이 공통된 테마를 결정하여 협동사업, 정책 창출,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 지역력 재생 프로젝트의 활동 개념인 지역력비즈니스는 마을만들기에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만들기를 진행하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임
- 2012년 교토부 소셜비즈니스(SB)센터를 설립하여 교토지역력비즈니스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활동 및 지역력 재생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적 지원을 위해 지역력비즈니스과를 신설하여 진행하고 있음
- 지역자원 활용의 특산품 만들기, 육아지원 및 고령자지원, 환경보전, 지역문화 진흥 등 3,800건 이상이 진행되고 있음

❑ 교토 지역력비즈니스 사업 지원 기준

- 사업대상은 지역산업진흥, 농촌도시교류, 육아 지원활동, 지역문화활동, 공조형 복지활동, 환경보전활동 등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참가, 공익성, 사업의

지속성, 사업 아이디어가 담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대상단체는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가하고 지역력 재생에 노력하는 교토부 소재 단체(지역력 재생 활동 단체)

② 마을력 재생액션플랜 “생명마을사업”

❑ 마을력 재생액션플랜의 추진 배경과 목적

- 마을력 재생 액션플랜은 교토부의 시읍면 지역은 과소화와 고령화가 아주 심각해지면서 2000년대 초반 교토부에서 독자적으로 한계마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교토부 지역력 재생 프로젝트의 농촌마을 정책을 시행함
- 마을력 재생액션플랜은 인재육성과 주민 자주성 향상을 통해 마을 간의 연계를 통해 농산촌 지역을 종합적으로 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고령화마을과 고령화되지 않은 마을, 학군간의 연계 및 조직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투입하여 사업 및 계획을 수립함

❑ 생명마을사업의 개요

- 생명마을은 한계마을이라는 부정적 의미보다 교토부의 주민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소중한 마을이라는 의미로 생명마을이라고 지칭함
- 생명 마을 사업은 교토 주민의 생명인 농산촌 지역의 존속을 위해서 마을의 문제 해결과 지역재생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책임
- 생명마을사업 추진단계
  - 1단계 지역 토대 만들기: 지역 토대 만들기는 마을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높여 주변 마을과 연계를 통해 관련 조직을 육성하여 권역의 생활 및 생산 기반을 정비하는 것임
  - 2단계 연계권역의 추진계획 수립: 이는 권역의 과제 도출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인재 육성 및 마을행정지원인(공무원)과 마을민간지원인(민간 전문가) 등 외부 지원을 통해 계획을 수립함
  - 3단계 권역 계획의 실행: 이 단계는 영리성과 공익성을 기본 방향으로 지역생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또한 법인을 양성하여 계획을 실행 추진함

- 사업기간은 3년이며, 2016년까지 48권역 370마을로 교토부의 한계마을 60%가 시행하고 있음
  - 생활환경,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개량, 빈집 정비를 통한 이주민 촉진, 복지버스, 지역특산품 가공 등 1차부터 6차 산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생명마을사업의 효과

- 생명마을사업은 행정기관의 보조금으로 진행하지만 계획 및 사업 내용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의 제재가 없어 농촌 주민들이 창의적인 의견 제시 및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의식 향상과 마을 활력이 증가하고 있음
-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진행을 통해 광역행정기관과 지자체, 마을 주민간 의견 조율 및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평적인 거버넌스로 발전하고 있음

③ 생명마을 재생사업의 사례-오미야미나미 지역의 마을력 재생 10년 계획

❑ 오미야미나미 지역의 개요

- 오미야미나미 지역은 교토부 북부의 5개 마을로 655 세대, 1,848 명, 고령화율 (65 세 이상 비율)은 30 %이며, 10 년 후에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각 마을 별 마을만들기위원회가 1995년 이후 설치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나 리더들의 고령화와 은퇴로 인해 활동의 제약이 많아지면서 광역적인 연계를 위한 모임을 가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생명마을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오미야미나미의 사업 추진과정

- 1단계 : 마을과 지역 연결체계 구성
  - 오미야 남부 지역 재생 협의회의 설립 : 각 마을의 이장, 작목반장, 공민관, 마을만들기위원회, 여성회, 축제 보존회 등 마을 별 대표자 31명이 모여 협의회를 설립하고 대표 10명을 선출하고 오미야미나미력 재생 회담 소식을 6회 발행하여 전 주민에게 배포함
  - 마을 발전계획을 위한 설문 조사 실시 : 5개 마을 전 주민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942명이 대답하였으며 설문조사는 권역의 미래, 농업, 복지, 삶의 질, 6차 산업 등 4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대답으로는 고령자 모임장소

확충, 결혼준비 이벤트, 축제 지속 등이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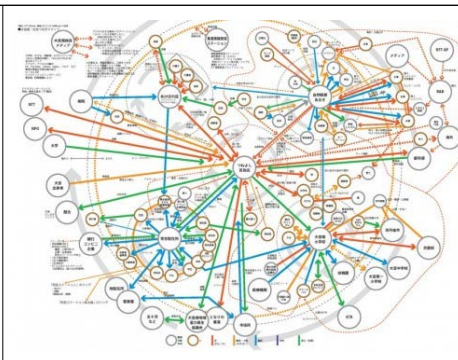
- 2, 3단계 : 실천계획 수립 및 사업 진행
  - 마을행정지원인(공무원)과 함께 10년 발전계획을 수립함
  - 마을을 잇는 꽃길 : 한 마을에서 1995년부터 진행하던 사업으로 4개 마을 전체로 확장시켰으며, 꽃길 관리를 위해 권역의 여성 12명이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음
  - 노약자 안심·안전 사업, 호박축제 개최, 마을 수문 복원, 전원생활 체험 투어(도시민 이주 유도), 마을 길 나무 심기 등을 시행함

❑ 오미야미나미의 사업성과

- 5개 마을의 광역사업을 통해 공통 생활 문화 사업을 진행하여 전통문화 계승 및 주민간 유대강화의 기회를 마련함
- 도시민 이주 정착 유도를 위한 전원생활 체험투어가 증가하면서 10세대 가량이 이주하였으며, 이주자 중 지산지소 매장 및 마을 주민과 연계한 식당을 개업하기도 함
- 꽃길조성과 관리를 위해 조직된 여성그룹이 꽃 모종을 타 지역에 판매까지 하고 있음

그림 3-16 오미야미나미 사업 사례

지산지소 매장



오미야미나미 사회연결망

자료: 교토 생명마을 홈페이지 http://kyotomura.jp/

(2) 카네야마 읍의 지역자원 활용 마을만들기

① 카네야마 읍의 특성

❑ 지형적 특성

- 일본 야마카타현의 동북부 지역으로 400m 정도의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지형으로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며, 총 면적 161.79㎢ 중 65.6%가 산림지역으로 카네야마 삼나무가 특산품이며, 경작지는 11.5%에 불과함

❑ 산업적 특성

- 카네야마 읍은 인구 5,829명(2015년)이며, 농업과 임업이 주요산업임

② 지역자원 활용 마을만들기 전개과정

❑ 임업의 쇠퇴와 대응 방향

- 카네야마 읍은 전통적으로 카네야마 삼나무 관련 임업이 주요산업이었지만 1960년대 이후 주택형태의 변화와 목재수입이 증가하면서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면서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생산성 감소 및 생활수준이 하락하는 지역경제의 악순환이 시작됨
- 이러한 악순환의 해결 방법으로 독자적인 임업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전통적인 카네야마 주택(카네야마 삼나무와 흰 벽) 보존 운동이 진행되었음
- 1978년에 카네야마 삼나무를 활용한 주택건축 콩쿠르를 개최하여 주택 보급 및 목재 기술향상을 도모하였으며, 1984년부터는 지역주택계획(HOPE)을 통해 읍내의 주택 신축 및 중 개축에 카네야마 삼나무를 쓰면 지원해 주는 정책을 실시함

❑ 경관만들기 100년 운동

- 1983년 수립된 '신 카네야마 기본구상'의 핵심 사업으로 향후 지역의 주요 산업인 임업을 활용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거리 풍경 조성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함
- 1986년 "카네야 도시 거리 경관 조례" 제정을 통해 "거리 형성 기준", '카네야

마 주택(재료, 창문 모양 등)'의 기준과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8]를 조성하여 카네야마 주택으로 집을 신축 및 개·보수하면 지원금을 지급함

- 읍내의 농수로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리석을 활용하여 조성하면서 카네야마 주택과 연계한 경관이미지를 구축함

그림 3-17 카네야마 관공서와 주택 거리

③ 경관만들기 100년 운동의 효과와 시사점

❑ 경관만들기 100년 운동의 확산

- 운동 초기에는 유치원, 학교, 관공서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민간으로 확산되면서 카네야마 주택이 읍 중심지의 50% 이상을 차지함
- 이러한 결과 카네야마 주택을 기조로 한 정취가 아름다운 거리 경관이 형성됨

❑ 행정과 주민의 역할

- 행정에 의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 50년 동안 "아름다운 경관 만들기"라는 테마 아래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함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 지역의 자원 활용 : 지역의 자연자원인 카네야마 삼나무와 지역의 인적 자원

8) 2013년 「카네야 마을의 풍경과 조화를 이룬 거리 경관 조례」로 개정함.

인 목수를 활용하여 목수의 기술 전승과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잊혀져 가던 전통 주택 공법이 산업으로 확대, 임업진흥의 효과도 창출함

- 외부 자원의 지원 : 지역 출신의 도쿄예술대학 관계자가 공공시설 설계에 전문가로 참여하면서 체계적인 경관이 조성됨

• 거리경관조례의 제정을 통한 활동기반 조성

- 조례 제정 (1986 년 3 월)을 통해 경관에 대한 주민 의식의 고양과 참여도를 향상시킴

❑ 거리경관 유지를 위한 주민들의 조직화

• 1990년대부터 카네야마가 전국적으로 소개되면서 방문객이 증가하자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거리경관 보존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모임이 조직됨

• 창고회는 장사관(메이지시대부터 쌀을 보관하던 창고)의 활용을 위해 조직된 모임임

- 1995년 장사관을 매입하여 자료관으로 리모델링하면서 마을 모임과 음악회 그림 및 사진 전시회로 사용하고 있음

- 장사관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주민교육을 진행하여 서비스 및 운영에 대한 역량을 강화

• 거리 안내자회는 카네야마 방문자에 안내 할 수 있도록 지역을 공부하는 모임임

❑ 시사점

• 1980년대부터 추상적인 경관을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마을 조성

• 지역자원과 인적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개성을 극대화 시킨 독자적인 지역활성화 추진

• 자연과 조화하는 아름다운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진흥을 도모하면서 주민의 경관형성 및 지역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일본 내에서 경관 마을만들기의 선도 지역으로 꼽히면서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음

(3) 나가이시 “레인보우 플랜” – 도시와 농촌의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

① 레인보우 플랜의 배경과 개요

❑ 나가이시의 개요

- 야마가타 현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량이 풍부하고 교통의 요충지로 주변의 농작물이 집적하는 곳임
- 농업과 상업이 발달된 도농복합 소도시로 가구는 9,000세대, 인구는 약 31,000명임

❑ 레인보우 플랜의 추진 배경

- 화학 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는 농업으로 인해 토양이 황폐화되고 건강하지 않은 농산물의 이미지가 생기면서 자급률이 6%이하로 떨어지자 주민들 사이에 유기농 법 및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
- 이러한 상황에서 토양의 재생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자급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함
-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 노후화로 쓰레기 처리가 곤란해짐

❑ 레인보우 플랜의 개념과 추진 과정

- 레인보우 플랜의 개념과 목적
  - 나가이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여 농업에 이용한 농작물의 역내 유통을 실현하는 지역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
  - 지역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통해 환경개선, 식생활 개선, 농가 소득 증대 등 자연과 인간의 지속적인 공존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1988년 행정과 주민이 중심이 되어 나가이시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논의하는 「마을만들기 디자인 회의 '가 개최되어 “자연과 대화하는 농업”, “부엌과 농업을 연결”을 위해 행정기관과 주민 및 단체(특히 여성단체), 농업인, 농협, 상공회의소가 추진이 된 레인보우 추진협의회를 구성함
-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레인보우

플랜 농산물"로 인증하고 지역 내 판매(로컬푸드 매장, 농협 매장 등)를 실시하는 "순환형 사회 구축" 실현

② 레인보우 플랜 시스템

❑ 마을에서의 유기물 순환 실현

- 시민들(약 5,000세대)은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행정은 회수와 퇴비를 농가는 유기 퇴비를 사용하여 유기 농산물을 생산하고 지역에 안전한 농산물 공급
- 농산물 브랜드화와 고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농업 담당자 육성

❑ 레인보우 플랜 시스템

- 음식물 쓰레기 수집 : 시가지의 약 230개소 수집소에 70리터 컨테이너(수집소당 2~3개 배치)를 설치하여 시 위탁업체가 주 2회(아침 6:00부터 8:00 무렵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센터로 운반
- 퇴비화 : 퇴비 센터로 옮겨진 음식물 쓰레기는 왕겨, 분뇨와 함께 약 80일 동안 숙성을 시키며, 생산된 퇴비는 지역농협을 통해 농민과 시민에게 판매
- 생산 : 약 80농가에서 퇴비를 사용하여 레인보우 플랜 추진 협의회 자체 농산물 인증 제도에 근거한 농산물생산
- 유통 : 학교 급식, NPO 법인 레인보우 프라바겐 시민 시장 「무지개의 역」NPO 법인 레인보우 플랜 시민 농장, JA(농협) 상설 매장 등에 공급

③ 레인보우 플랜의 효과와 시사점

❑ 레인보우 플랜의 효과

- 지역 내 사회적자본의 강화 : 레인보우 사업을 통해 시민과 농가, 소비자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계기를 만듦
- 환경 보전 효과 : 도시 전체 생활계 가연성 쓰레기 34 % 감량
- 학교 급식을 통한 어린이 환경 교육 : 레인보우 플랜의 퇴비로 생산된 농산물은 시내의 학교 급식에 제공되고, 실제 체험으로 지역 내 순환에 관한 교육 시행

• 레인보우 플랜 농산물의 지역 내 공급량 잉여분 중 일부 타 지역 판매 및 가공품 생산을 통한 소득 증대

그림 3-18 레인보우플랜 시스템

로컬푸드 매장

도시 학생 대상 식교육

자료: 다이소대학 환경정책학과 답사자료집, 2016
http://www.tais.ac.jp/faculty/department/environmental_policy/blog/20161021/45306/.
레인보우플랜 추진협의회 http://samidare.jp/rainbow/

❑ 레인보우 플랜의 시사점

• 주민협의체가 농업을 하나의 문화로 보고 단순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아닌 농업 기반 마을만들기를 추진함

• U턴자들 중심의 농업인들이 마을의 토지 황폐화와 자급률 향상이라는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실현함

•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를 위해 외부 기술을 도입하여 퇴비 센터를 설치를 통한 기술적 한계 극복

• 다양한 관계자가 입장 차이를 넘어 행정주민·농업인 등 관계자 모두가 대등 한 입장에 “순환 지역 만들기와 안심할 수 있는 음식 마을만들기”라는 이념을 공유하여 사업을 추진함

4) 사례지역 조사 결과의 논의 및 시사점

(1) 사례지역 조사 결과의 논의

❑ 공간의 활용 능력

- 사례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하여 문제를 해결함
-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과소화 현상에 대한 역발상으로 찾지 않는 장소 및 부지를 사람이 찾는 장소로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공임을 확인함
- 기존의 불필요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공간에 어떤 테마와 가치를 불어 넣느냐에 따라 공간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고 이를 활용하므로 마을 및 지역에 대한 활력을 제공하는 매개체로 활용함
- 지역주민에게 공간 활용 방법을 교육할 프로그램 제공 및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지역주민의 사업지지도가 관건

- 카네야마읍의 경우 차별화된 이미지 전략과 절제된 마케팅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믿음과 신뢰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지지도가 형성된 결과로 판단됨
- 지역주민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얼마나 지지하고, 참여하느냐 하는 점은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불신 등은 사업에 대한 효과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국내 여건과 비교할 때 마을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일부 또는 소수의 지역주민은 참여하나, 참여하지 않는 일부 및 다수가 항상 존재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의 발전에 어려움을 안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주체의 노력과 사업을 통해 공공의 이익이 발생되는 가치에 대한 공유와 소통 등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함

❑ 지역 고유성 유지

- 환경개선 및 경관 개선 시에도 지역의 고유적인 특성 및 환경 등에 대해서는

유지하고, 지역의 고유성을 더욱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사업을 진행함

- 지역의 고유성을 그대로 보존하며 개선하는 방향이 방문객 및 지역주민에게도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할 수 있음

❑ 마케팅 기법 활용 필요

- 마을만들기 사업도 사람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기초적인 구상과 오랜 시간에 의해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이에 따라 투입에 따른 효과의 극대화 및 사업에 대한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활동이 필요함
- 특히 카네야마읍에서 활용된 장소마케팅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마케팅 기법이나. 오랜 기간 성과로 보답하는 마케팅 기법으로서 지역주민 모두 동참하고 함께 마케팅 하는 구상이 요구됨

(2) 시사점

❑ 지속가능한 사업 구상 필요

- 사업의 성공은 단순히 보조금 및 사업비 제공에 따른 실행 여부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자생력이 담보되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음
-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오래전에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실행 및 운영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성과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음
- 따라서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같이 사업에 대한 환경, 사회문화적 및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기획 능력이 요구됨
-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사업은 사업비 및 보조금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만족도도 향상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가치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사업 구상이 요구됨

❑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

- 카네야마 읍의 경관만들기100년 운동 사업에서 보듯이 행정에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업을 실행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의 지지

도를 이끌어냈으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이끄는 동인이 됨

-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사업의 실행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과 조정 등의 행정 능력이 요구됨

❑ 주민·관의 거버넌스 협력체계가 성공의 관건

- 오미야미나미, 카네야마, 나가이시 사례의 마을만들기가 성공적이었던 데는 주민과 행정의 밀착 협력이 주효하였으며, 이런 협력체계를 민간기업의 참여까지 확장한다면 다양한 구성원 간의 협력이 통합되어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따라서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와 이에 따른 각각의 역할과 참여자 간의 거버넌스 협력 체계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을 추인하는 관건이라 할 수 있음

❑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 필요

- 마을만들기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지역주민간의 신뢰와 규범 그리고 네트워크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사회적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지역사회에 사회적자본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항임
- 따라서 성공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즉, 마을내의 사회적자본의 형성 및 성숙 정도가 중요하며, 이러한 사회적자본 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레인보우 플랜의 경우 시민, 농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하는 신뢰 기반의 사회적자본 형성에 도움을 줌

CHAPTER 4

사례지역 : 마을 특성 및 변천과정

01 분석틀과 사례마을 선정 93

02 사례지역 조사 분석 99

03 사례지역 조사·분석 소결 155

CHAPTER 4

사례지역 : 마을 특성 및 변천과정

1. 분석틀과 사례마을 선정

1) 사례분석의 기조와 관점

❑ 농촌마을이 공동체 혹은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마을공동체가 생활기반 시설의 보전·관리, 농업 및 제 산업의 유지·발전, 사회관계의 형성 및 조정, 지역문화의 창생 및 전승, 주민 안전 및 복지 향상 등의 기능들을 적절히 수행함을 의미함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농촌마을은 과소화,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위기 이외에도 공동체적 기능 약화에 따른 정주성 저하 문제를 안고 있음

- 정주성 저하란 경작포기지와 빈집의 증가, 도로·수로·담장·공동창고 등 마을의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부실, 생활 및 농사용 쓰레기 등 환경관리의 부실 등이 나타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주민들의 심리 상태와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주민들 사이에 연대의식이 약화되고, 마을의 고유한 풍습도 사라지는 등의 소멸 등이 나타남을 의미함
- 이러한 정주성 저하는 인구감소에 의해서도 발생되지만, 주민구성의 이질화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주민구성의 이질화는 단순히 인구학적 특성이 다양해진다는 측면 이외에 주민들의 생활상 욕구들이 다면화되고 공동체에 대한 지향 혹은 태도도 주민들 사이에 분화가 나타나며 궁극적으로 공동체적 활동에 대한 가치 부여도 서로 상이해진다는 의미를 가짐(Liepins, R., 2000a, pp. 29~31)
-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마을 내부에 하위집단들이 소멸되고 기존 집단들의 활동이 약화되는가 하면 공동체 공동목표와 무관한 이익집단들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함

❑ 3장에서 살펴본 일본의 집락커뮤니티 재편 논의도 이상과 같은 집락사회구조의 질적 변화가 농촌지역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소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근교농촌지역에도 정주성 약화에 따른 집락커뮤니티 재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조영재 외, 2014, p. 21)

❑ 한국 농촌지역도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지역개발정책들 중 상당수가 마을을 사업단위로 하고 있음

- 과거의 마을공동체 전통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여전히 마을을 지역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기존 정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우리나라 농촌마을의 기능적 특성에 대한 파악이 전제가 되어야 함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장의 사례마을 연구에서는 <표 2-1>에서 제시한 마을의 공동체성과 공간성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를 조사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각 사례마을의 공동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민구성의 이질화 양상, 주민들 사이의 관계 및 하위조직들의 활동 상황 그리고 마을간 연계 등을 고찰하고자 함

- 주민 구성의 이질화에 관해서는 연령구조, 외지인의 유입 상황 이외에도 농가의 경영분화 측면에도 주목하고자 함[9)]
- 주민들의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인지적, 행동적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주민간 관계를 나타내는 몇 가지 질문들과 일상생활에서 마을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평가들을 살펴보고자 함
- 마을 내 조직들의 활동상황은 하위 조직들의 종류 및 활동 평가를 중심으로 파악하였음
- 마을간 연계는 마을 단위 간 연계 외에 주민 개개인의 인지적 측면 및 공간행동 측면에서 나타난 마을간 연계를 포함함
- 마을 단위 간 연계는 공동사업 추진 형태로 연계 주민 개인의 공간행동은 소비, 공식적 비공시적 사회적 교류, 사회관계 측면에서 마을간 연계를 말함

9) 농가의 경영방식은 주작목의 종류, 농가경영 목표(자급농/상업농)을 지칭하는데, 경영방식이 다르면 생산관계가 다르고 따라서 공동체에 대한 연대 계기 및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의미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업적 차이만큼이나 주민구성의 이질화 의미를 가짐.

- 한편 마을간 연계 측면은 마을 내부의 사회관계와 어떤 길항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함
- 또한 마을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 2-1>과 같이 마을 내부의 공공공간 요소들의 구성과 각종 마을단위 사업 내용 등을 통해 마을의 기능적 변화와 정주단위에서의 구성형태를 파악하고자 함

2) 사례마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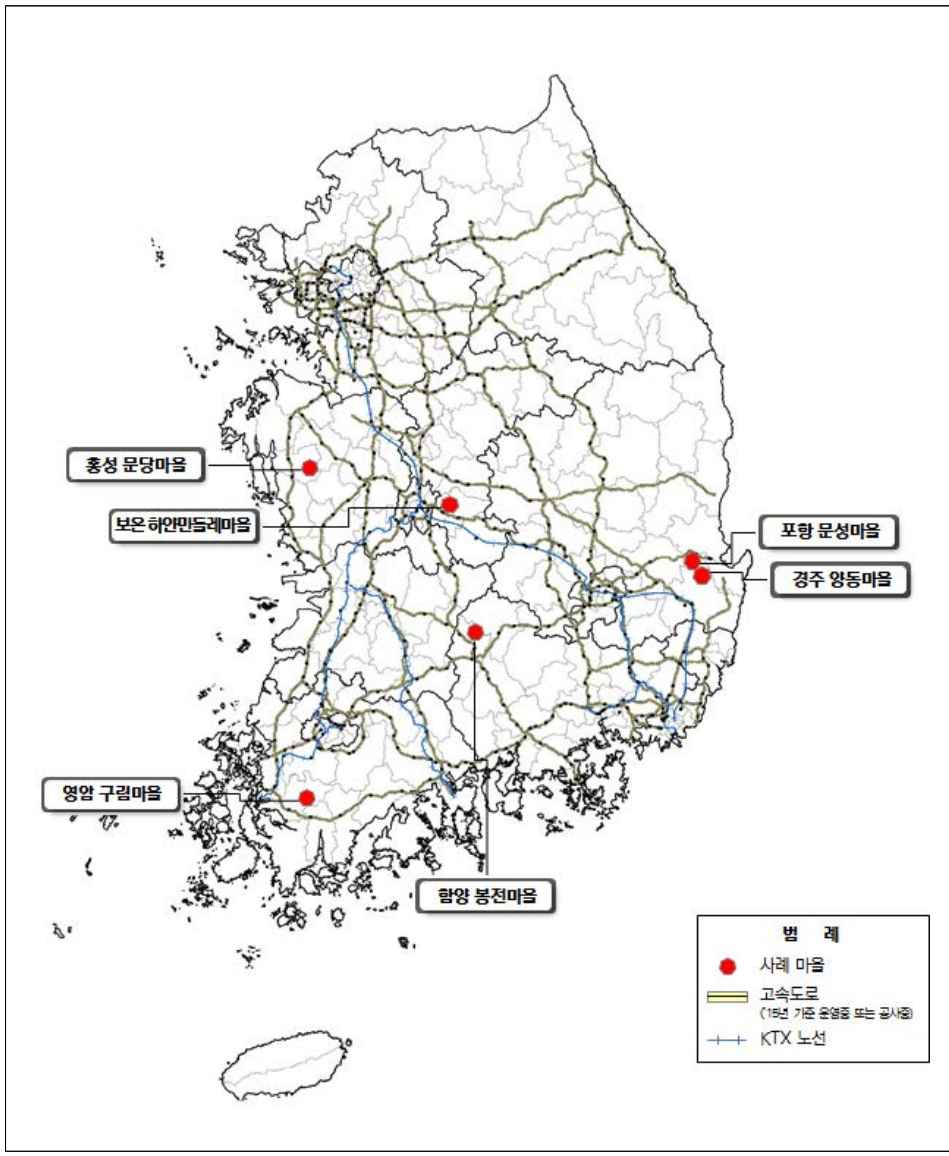
❑ 국토공간 특성 및 마을특성 등을 고려해서 전국에 6개 마을 선정
- 유네스코 등재마을: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
- 호남권: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구림지역
- 충남권: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마을
- 충북권: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하얀민들레생태마을
- 경남권: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봉전마을
- 경북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마을

표 4-1 사례분석 마을 특성 개요

구분	마을 경제·자원 특성	국토공간 입지 특성	마을 규모 특성
경주 양동 마을	○ 탈농업화(다각화) 지향 ○ 우수한 장소자산 보유 ○ 마을 중심 발전 전략	KTX(신경주역) 연결 고속도로접근성 양호 대중교통 연결성 불편	단일마을 140가구 인구 300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 80%
영암 구림 지역	○ 탈농업화 지향 ○ 우수한 장소자산 보유 ○ 소권역 단위 발전 전략	KTX(목포역) 연결 고속도로접근성 양호 대중교통 연결성 불편	4개 마을 129가구 인구 204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 70%
홍성 홍동면 마을	○ 농업활력화 지향 ○ 친환경 농업 지향(오리농법 등) ○ 광역적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발전전략	고속도로접근성(서해안고속도로) 양호 대중교통 연결성 불편	2개 행정리 11개 자연마을 319가구 인구 688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 47%
보은 하얀 민들레 마을	○ 마을 간사 운영 ○ 고유한 생태자원 보유 ○ 마을 중심 발전 전략 ○ 생태마을 추진(새마을중앙회 주관 선정) ○ 마을공동체 활력 프로젝트(농림부) ○ 대청댐상수원보호구역	비수도권 고속도로 접근 (청주-상주 간 고속도로) 대중교통 접근 불편 도보 생활권 IC 접근성 우수	단일마을 31가구 인구 70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 85%
함양 봉전 마을	○ 폐교를 활용한 자연학교 거점 ○ 자연·문화자원 보유 ○ 리더를 중심으로 한 외부 네트워크 기반 발전 전략	비수도권 고속도로 접근 (시외버스) 대중교통 접근 불편 자동자 중심 생활권	단일마을 40가구 인구 50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 70%
포항 문성 마을	○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 마을 ○ 마을 중심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위치 ○ 리더를 중심으로 내부 네트워크 기반 발전 ○ 장소자산 등 마을 발전 동력 부재	비수도권 KTX(포항역) 연결 고속도로 접근성 양호 대중교통 연결성 불편	단일마을 90가구 인구 170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 53%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 사례지역 분포현황



자료: 저자 작성.

❑ 사례 마을의 국토공간 입지특성 및 마을 경제·자원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사례 마을 혹은 사례마을이 속한 지역들은 각각 다른 이유로 농촌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마을 혹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 양동마을은 하나의 행정리를 이루며 고택을 비롯한 마을 경관 전체가 역사적 가치를 가질 정도로 강력한 장소자산을 갖춘 씨족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는 마을임
- 1990년대부터 방문객이 늘어나고 최근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체험관광이 활성화된 마을임
- 영암군 군서면 구림지역은 3개 행정리 9개 마을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택과 유교경관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동시에 9개 마을을 아우르는 대동계를 중심으로 소권역내 씨족공동체 유대가 강했던 지역임
- 홍성군 홍동면의 2개 행정리 마을들은 친환경농업의 선구적 지역으로 명성을 얻어온 지역일 뿐만 아니라 풀무학교에서 배출된 지역주체와 생태·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외지 출신 인구들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지역공동체 만들기 운동이 전개되는 지역임
- 보은군 회인면 하얀민들레생태마을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라는 개발에 있어서의 악조건을 역이용하여 마을의 리더와 마을주민들이 협력하여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마을 공동자산을 형성하여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마을임
- 함양군 서하면 봉전마을은 마을의 역사성이 깊고 뛰어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장소자산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 집성촌 마을로 일사불란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임
- 포항시 기계면 문성마을은 1970~80년대에 마을 내 리더와 주민들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성공적으로 새마을운동 사업을 추진하여 발전을 이룬 새마을운동 발상지 중 한 마을임

❑ 이처럼 상대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사례 마을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 해답을 구하고자 함

- 현재 마을이 주민에게 가지는 의미 혹은 주민에게 제공하는 기능은 무엇일까?
- 이 마을들은 과연 지속가능한 것인가?
- 혹은 그렇지 않고 마을의 기능 혹은 의미가 축소되고 약화된다면 그 대안은 어떤 것인가?

❑ 사례마을과 관련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부록1. 설문조사 양식 참조)

- 사례 마을의 지역사회 변화 양상
- 사례마을의 인구 및 농가 특성, 마을 내 사회관계와 공동체 활동성, 마을 외부와 사회관계 등의 공동체적 특성
- 그 밖에 마을과 주민간관계, 마을간 연계활동, 마을 지속성 유지에 중요한 지리적 공간 및 구조 등

2. 사례지역 조사 분석

1)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

(1) 지역사회의 변화 양상

① 강동면의 인구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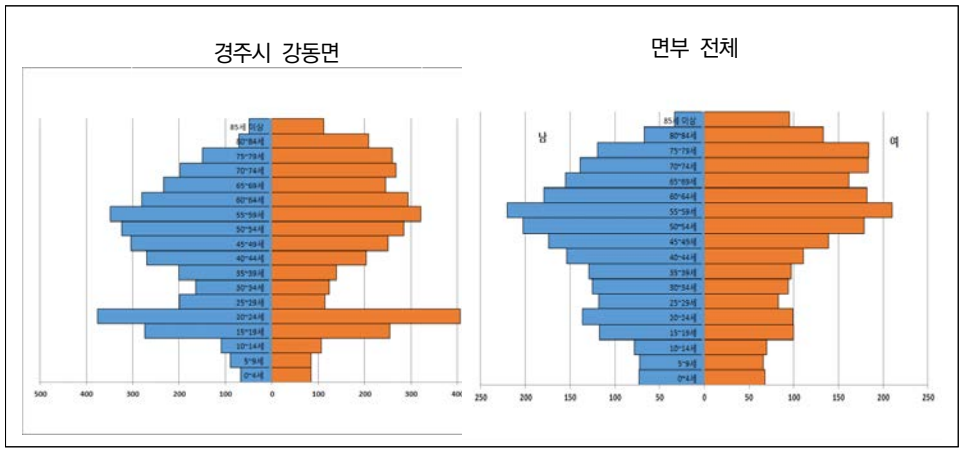
❑ 포항과 경주 중심지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받는 배후 농촌지역적 성격을 가짐

- 포항시 경계와 접해 있고 포항 시청까지 직선거리로 약 7km 정도 떨어져 있음
- KTX 안강역과는 약 3.5㎞ 정도 떨어져 있고 주변에 안강농공단지, 천북일반산업단지, 화산일반산업단지 등이 입지해 있음
- 특히 안강역 주변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강동면은 2000년대 일시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였다가 2010년 이후 다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강동면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보면, 우리나라 면부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낮은 반면에 20대 비율은 높은 특징을 보여줌

그림 4-2 경주시 강동면 및 우리나라 면부 전체 연령별 인구구조(2015년)



자료: 통계청, 2016b, 2015 인구주택총조사.

② 농업 기능의 약화

❑ 2015년 현재 전체 가구 중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28.2%로 전국 면지역 평균 33.0%에 비해 낮음

❑ 또한 비농업활동에 주력하는 농가들이 많음

- 2015년 현재 강동면의 겸업농가 비율은 44.6%로 농가의 거의 절반 정도가 비농업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더구나 비농업 소득이 더 많은 제2종 겸업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수준보다 현저히 높음

❑ 집약적 상업농 발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함

- 전체 농가의 61.1%가 벼농사 위주로 영농을 전개하고 있으며, 과수·축산·시설재배와 같은 집약적 경영을 하는 농가는 20.8%로 전국 면 평균인 2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결국 강동면은 최근 산업단지 및 택지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농업기능의 퇴조가 뚜렷한 근교농촌으로서의 성격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4-2 강동면의 지역농업구조

구분		경주시 강동면	전국 면부 전체
겸업농가 (2015년)	제1종 겸업농가율	16.5%	17.9%
	제2종 겸업농가율	28.1%	19.7%
경영형태[1] (2015년)	벼농사 농가 비율	61.1%	43.4%
	과수 농가 비율	7.5%	13.9%
	축산 농가 비율	9.3%	5.7%
	시설재배 농가 비율	4.0%	5.6%

주1: 농림어업총조사에는 농가의 주소득 작물을 기준으로 논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화훼, 전작, 축산, 기타 등 모두 8개의 경영형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2) 양동마을의 공동체적 특성

① 인구 및 농가 특성

❑ 양동마을의 인구 및 가구 수는 각각 300명과 140호로 농촌지역의 행정리로서는 규모가 큼

- 2010년말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 수는 156호로 그동안 가구 수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우리나라 농촌마을의 평균적 경향과는 대조적인 가구 변동 패턴을 보임
- 양동마을은 일제 강점기 중기에 가구수의 정점을 나타낸 후 계속해서 줄어들었지만 감소 속도 면에서 다른 농촌마을에 비해 훨씬 완만함(강동진 외, 2011, 100)
- 1994년 123호로 최저점을 찍은 후 이후에는 가구 수가 다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 내에 새로 마을로 이주해온 가구도 10호나 되며 이 가운데는 2 가구는 마을과 연고가 없는 가구임

❑ 이러한 인구변화 패턴에는 1990년대 이후 교통여건이 나아지면서 양동마을은 도시 근교로서의 입지적 장점을 가지기 시작한 배경도 작용하였을 것임

- 그러나 보다 주된 이유는 안동의 하회마을과 비견되는 전통역사마을로서 각광을 받고 관광 등을 통해 마을의 경제적 기회가 크게 늘어난 데에 있음

- 2010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 방문객은 더욱 늘어났음

❑ 60대 이상 인구비율도 80%를 상회하고, 단독 혹은 부부로 구성된 1세대 가구 비율도 매우 높으며, 무엇보다도 고령 단독 가구의 비율이 30%를 상회하고 있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세대들의 U턴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농촌마을만큼이나 전망이 어둡지 않음

❑ 양동마을 주민의 경제활동에서 여전히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큼

- 전체 140호 중에 비농가는 30호에 불과하며, 농가들은 대체로 벼농사 위주의 영농활동을 하고, 일부 농가들은 미나리 혹은 토마토 재배를 병행하며 시설재배를 위주로 하는 농가는 2호이나 농업소득이 주소득인 농가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음
- 강동진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 당시 농업소득을 주소득으로 하는 가구 비율은 40% 정도에 불과하고, 임금 소득 혹은 자녀송금과 같은 이전 소득을 주수입원으로 하는 가구 비율도 거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외에 민박, 마을내 식당경영, 한옥체험을 통한 수입이 주수입원이 되는 가구가 22호로 2002년에 비해 그 숫자가 배로 증가하였음(강동진 외, 2011, 102)

표 4-3 양동마을의 인구 및 농가 특성

구분	경주 양동마을
마을취락구조	하나의 집촌
인구수 그 중 60세 이상	140명 260명
가구수 그 중 단독가구	140호 45호
비농가 수 혹은 농산물 판매 없는 농가	30호
농가의 주된 농사	벼, 토마토, 미나리, 메론
축산·과수·시설재배 등 상업적 영농 농가	2호
최근 5년 이내 귀촌가구 수	10호

자료: 본 연구의 사례마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정량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양동마을 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경제활동 특성을 설명하게 되면, 양동마을 주민 구성은 상당히 이질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주민의 이질화 여부가 중요한 것은 이질적인 주민들 사이에는 마을에 대한 태도, 지향이 다를 것이고 그래서 주민구성이 이질적이면 공동체성이 약할 것이라는 전제 때문임
- 그런데 공동체에 대한 태도나 지향과 같이 주민 각자의 인식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 특성은 어디까지나 이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리 지표에 불과함
- 양동 마을의 경우 이 잣대를 그래도 적용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갖고 있음

❑ 양동마을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양반 가문의 세거지였고 동족마을로서의 특성이 여전히 유지되는 마을임. 더구나 동족적 전통, 높은 수준의 양반 문화의 전통이 구체적 경관으로 그것도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

- 이점에서 같은 전통마을인 구림지역과 대비됨. 구림마을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 펼쳐져 있어 유교 경관요소들과 현대적 경관요소가 뒤섞여 있어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를 느끼기 어려운데 비해 양동마을은 좁은 영역 안에 전통적 건축물이 집중되어 하나의 통일적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음
- 이처럼 여전히 강력한 동족적 전통, 그것을 일상적으로 느끼게 하는 경관요소 등으로 인해 양동마을 주민들은 매우 큰 자부심을 느끼고 마을의 정체성, 미래 방향에 대해 통일된 의견으로 표출되고 있음(오정학, 2011, 813)[10]
- 이 점은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커지고, 더구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종택의 권위가 새롭게 강화되는 점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음
- 이전에는 종택은 상징적인 역할에 그치고 마을 일에 개입하지 않으려 했으나, 2000년대 들어 종택은 마을 전반의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 시작함(강동진 외, 2011, 107)

10) 이점은 오정학의 연구(2011)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양동마을 주민은 마을이 가진 가치 있는 자원요소로서 가장 우선적인 사항은 마을주민이 가지는 자부심, 소속감, 공동체의식을 꼽고 있다.

- 그리고 이 변화는 종손 스스로 그 역할을 원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 그 역할을 맡아주기를 원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마을 외부에 대한 종손의 상징적 의미와 신뢰성이 중요했기 때문임

❑ 전통마을, 동족마을로서의 성격은 주민들에게 상징적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관광 명소로 부각되면서 주민 대부분에 경제적 이득으로 보상되고 있음

- 고택의 후손들은 고택체험 민박으로, 그렇지 않은 주민들은 음식점 운영, 전통음식 판매로 혹은 부업노동 수입 등의 형태로 보상받고 있음
- 현재 마을운영위원회도 마을관광 활성화에 따른 이득이 전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음

❑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동마을은 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 특성과 같은 외형적인 면에서 주민구성의 이질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 공동체에 대한 태도 면에서 매우 동질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마을임

- 특히 공동체성은 주민 각자에게 있어서 경제적 의미까지 가짐

② 마을 내 사회관계와 공동체 활동

❑ 예상한 대로 양동마을은 공동체 활동을 위한 물적 기반이 다양하고 풍부함. 토지와 기금의 형태로 공동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또 마을전체 기금, 부인회, 노인회, 향우회 기금 등 용도 혹은 하위 조직별로 자체 기금을 확보하고 있음

- 그리고 공동재산의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체험객 입장료, 각종 전통식품 판매 수익 중 일부가 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임

❑ 마을 내 하위조직들은 여전히 활력을 갖고 있는데. 기금 증가는 최근의 활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 다만 동계(洞契)는 있지만 그 활동이 미약하다고 응답되었음. 시대적 변천으로 동계의 고유 기능을 잘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여겨짐
- 현재는 마을을 대표하는 자치조직으로서의 기능은 양동마을운영위원회가 맡고 있음
- 마을운영위원회는 2011년 4월에 조직되었으며 운영회가 출범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갑자기 방문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임

- 출범 후 노인회, 부인회 등 여러 마을조직들을 통합하였고. 그 가운데는 정보화마을 사업을 계기로 만들어진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도 그 하위조직으로 통합되었음[11)]
- 또한 새로운 기능 수요를 고려하여 개발보전분과와 체험분과 2개의 하위 조직을 새로 신설하였음
-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감사는 양대 집안의 종손이 맡고 있으며, 과거 문중을 대표하던 역할만을 하다가 이때부터 양동마을의 보전과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음
- 운영위원회는 마을주민 전체 의사를 반영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즉 마을 전체 주민회의인 동회(洞會)에서 운영위원회의 임원 들이 선임되고 중요한 사항도 동회에서 결정되는 구조를 띠고 있음. 말하자면 운영위원회는 동회의 실행기구 성격을 가짐
- 동회는 연1회 개최되지만, 논의내용은 다른 마을과 대비되며 임원선출, 재정 및 결산보고, 공동사업 계획 수립이 동회의 중요 안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행정사항 전달은 동회의 안건 중 가장 낮은 순위로 다루어지고 있고 대체로 다른 농촌마을의 경우 마을총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안건은 행정사항 전달인 것과 대비됨

❑ 마을 내부에서는 주민들의 모임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식적 형태의 모임뿐만 아니라 비공식 친목모임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 문중, 동족이라는 관계로 주민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주민모임을 활발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임
- 최근에는 방문객 증가로 같이 협의하고 공동으로 활동해야 하는 사안들이 더욱 늘어나 주민들의 교류는 더욱 활발해짐

11) 현재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장도 선임되어 있음. 아마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해산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

❑ 주민들의 강한 결속력과 두터운 마을 내 관계망을 바탕으로 여러 마을단위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음

-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은 이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79년 경상북도 주관으로 「양동마을 조사보고서」가 발간되고 1984년에는 마을 전체가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음
- 또한 1994년과 2002년에 정비종합계획 수립되었고 2010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거쳐 다시 최근에 3차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에 바탕으로 마을단위 공동사업도 추진되었으며 2002년 정보화마을사업, 2009년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이 그 예임.
- 녹색농촌체험마을과 관련하여 고택민박, 음식점 운영 등을 하는 50가구들이 참여하는 조직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 역시 마을운영위원회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면서 활동하고 있음

❑ 한편 마을에는 정부지원을 받은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노인정, 체험관, 문화관 등 다양한 공동시설들이 있음

- 하지만 다른 마을의 경우 공동시설들이 기능을 상실해버리거나 혹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데 비해 양동마을의 공동시설들은 공동체 활동의 거점으로서 활용 가치를 여전히 발휘하고 있음
- 교육관, 가공시설 등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공동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은 점은 그만큼 공동체 활동의 역량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표 4-4 양동마을의 공동체 활동

구분		경주 양동마을
공동재산	종류	마을공동재산
	형태	마을기금, 부인회 기금, 노인회 기금, 향유회 기금, 마을임야
	경향	늘어나고 있음
비농업 조직	조직명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동계, 농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
	활성화 유무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됨(동계 활동 미약)
마을 총회	연간 개최횟수	1회/연(세부 운영위원회는 활발)
	중요안건(1, 2위)	(기타)임원선출/2년 재정 및 결산보고, 마을공동사업 논의
농업관련 조직화		미나리 작목반
마을단위사업 추진경험		있음 (정보화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자료: 본 연구의 사례마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양동마을의 경우 이런 공동시설들 이외에 모든 공간요소들이 주민들에게 의미를 가진 장소, 그리고 가치 있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

- 양동의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내는 고택들, 안길들, 산, 식물들, 농지, 숲 등 모든 공간 요소들이 양동마을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요소이기 때문임
- 더욱이 이 공간요소들은 전통의 계승, 양동 출신이라는 자기 정체성 구현 수단을 넘어 현재는 주민들에게 생업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음
- 그래서 마을 전망에 대한 인터뷰에서 현재의 상태가 앞으로도 존속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지배적임

③ 마을 외부와의 사회관계 패턴

❑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마을주민 행동에 있어서 공간연계의 대체적인 패턴을 질문한 결과를 정리한 것임

- 응답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어 있어 해석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위원장은 오랫동안 이곳에 거주하면서 마을주민의 공간행동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경향성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음

❑ 양동마을 주민들의 공간행동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마을은 사회적 교류 활동의 장소로서의 의의만 있을 뿐 다른 행동목적에 있어서는 중요한 장소로 인식되지 않는 점임

- 마을주민의 마을외부 활동, 그것도 조직 형태의 활동에 대한 질문에서 과거에 비해 마을주민들이 마을외부 활동을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따라서 양동마을 주민들의 공간행동은 마을을 벗어나 광역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광역적 활동의 목적지는 강동면 면소재지와 포항시 안강읍이 두드러지는데 두 곳 모두 마을에서 3km 내외 떨어져 있음

❑ 양동마을 주민들의 공간행동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다른 사례마을의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옆 마을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임

- 인근 마을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하였거나 추진을 시도한 사례도 없음

표 4-5 양동마을 주민의 공간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들

활동내용	농업활동	사회적 활동	여가활동	기타 일상생활	종합적 평가 (중요도 순위)
마을내		●			6
옆마을					5
면소재지	●	●	●		1
안강읍	●		●	●	2
경주시(동지역)					3
포항, 대구 등					4

자료: 본 연구의 사례마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3) 요약

❑ 양동마을은 전반적으로 마을공동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음

- 마을내 하위조직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주민들 사이의 공식적, 비공식적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주민들의 강한 결속력과 두터운 마을내 관계망을 바탕으로 정보화마을, 녹색농

촌체험마을 사업 등 다양한 마을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특히 마을운영위원회는 전통마을의 동계처럼 마을 전체 의사를 집약하고 마을 내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음
- 마을내 공동시설들이 여전히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 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이처럼 공동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역사적 전통, 동족 문화, 경관자원 등 마을이 보유한 강력한 장소자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즉 이러한 장소자산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생계 자원이 되는 만큼 장소자산에 대한 주민의 애착이 큼
- 주민 각자에게 중요한 생계기반이 되는 장소자산들이 그 가치를 유지하고 나아가 더욱 고양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실존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음
- 이것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 두터운 관계망 형성에 바탕이 되고 있음

2)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구림지역

(1) 구림지역 지역사회구조와 변동

① 구림지역의 공간구조

❑ 구림지역은 대략 영암군 군서면 지역을 동서로 양분하여 서쪽 일대에 속한 마을들을 아우르는 지역을 말함

- 현재 행정구역 기준으로 동구림리, 서구림리, 도갑리 3개 행정리에 속한 9개 마을이 구림지역에 속함
- 넓은 의미에서 구림지역을 지칭할 때는 주변의 모정리, 양정리, 동호리, 성양리까지 포함하기도 함
- 2015년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좁은 의미의 구림지역 인구는 군서면 전체 인구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음

❑ 동구림리는 상가, 공공시설 들이 입지해있어 이 일대의 중심지역이며 서구림리와

도갑리는 전형적인 농업중심 마을임

- 동구림리에는 일찍부터 5일장이 섰고, 파출소, 우체국, 보건지소, 의원 등 상당한 고차기능들도 입지해있어, 면소재지가 아니면서도 우리나라 일반 면소재지 평균 수준 이상의 중심기능을 갖춘 곳임
- 서구림리는 유교문화 경관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곳이며, 1960년대 이전까지는 구림지역의 중심 역할을 한 지역이며 최근에는 역사마을 조성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② 구림지역의 형성

❑ 구림지역은 원래 함양 박씨, 창녕 조씨, 낭주 최씨, 해주 최씨 4개 지방 사족세력이 세거지였으며, 조선시대부터 이 4개 성씨의 동족마을들로 구성되어 있었음

- 특히 16세기 지남들 간척으로 대규모 농지를 확보하고, 4개 성씨 문중조직과 별도로 이들의 연합조직은 구림대동계가 조직되면서 구림지역에 속한 마을들이 '구림마을' 혹은 '구림 열두 동네'라는 하나의 명칭 아래 통합되었음

❑ 구림대동계는 사족세력들의 협의체이면서 동시에 구림지역에 속한 각 자연마을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하였음(정근식 외, 2003)

- 대동계 계원은 원래 각 문중의 중심인물들로 조직되었는데, 이들은 동족마을들로 이루어진 구림의 각 마을들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
- 즉 마을자치기구인 촌계(村契)는 마을의 중요한 현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마을 내 각 자치조직의 대표들과 이장이 촌계에서 선출됨
- 대동계 계원은 촌계에서 발언권이 크기 때문에 대표 선출과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방식으로 대동계는 각 마을을 통제하여 왔음
- 대동계는 학교설립, 수해복구, 제방사업, 최근의 3.1운동 기념탑 조성 등 여러 지역현안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음

③ 1970년대 이후 지역사회 지배구조의 변화

❑ 1970년대 새마을사업을 비롯해 취락구조개선사업, 소도시가꾸기사업 등의 정부

사업들이 추진되고, 또 동구림리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외부인들이 유입되면서 지역담론은 전통과 유교 중심에서 개발과 소득 증대 중심으로 전환되었음

- 이에 따라 마을 내 임원 구성과 의사결정은 대동계와 문중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

❑ 또한 구림지역 전체 의사결정에 있어서 마을의 역할이 커지고 동시에 상인회, 구림청년회, 구림발전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자치조직이 지역의사를 대변하는 양상이 전개됨

- 구림청년회는 1988년 전통문화의 계승, 지역발전의 도모라는 취지하에 지역청년들이 결성한 조직체로 결성 이후 각종 봉사활동 및 환경개선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음. 이후 1992년 지역축제인 '벚꽃제' 행사를 추진하였음
- 구림발전위원회는 1992년에 결성되었는데, 구림지역이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란 외부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대동계를 대체하는 지역대변 조직을 만들려는 의도로 조직되었으며 회원 구성도 9개 주민 전체로 하고, 각 마을대표 3명씩 모여 임원진을 구성하였음

❑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는 행정기관이 지역 개발을 주도하면서 지역 자치기구들의 영향력이 약화되었음

- 축제가 지역발전의 유력한 수단이라는 담론이 커지면서 1997년 기존의 지역축제 '벚꽃제'를 영암군의 대표 축제로 확대하고 명칭도 '왕인문화축제'로 바뀐 것이 직접적인 계기임
- 이때부터 축제의 주관기구도 그동안의 구림청년회 대신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로 전환됨. 이에 따라 구림청년회 조직은 활동 기반을 잃고 현재는 그 역할이 미미하게 됨
- 구림발전위원회는 지역현안들과 관련하여 행정기관과 협의를 주도하고 몇 가지 성과[12]를 도출하였으나, 최근에 들어 그 활동은 미미하여 존재 자체를 모를 정도임

12) 1998년 폐교 위기에 처했던 구림중학교를 폐교 대신 이전하여 존속하는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 또 구림중학교 자리에 도기문화센터를 유치하는 성과도 올림.

• 현재 마을간 협의기구 형태를 띠는 기구는 왕인촌자치위원회 정도인데, 형식적으로는 동구림리와 서구림리 이장 및 마을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활동은 동구림리 한옥마을과 관련된 주민들의 협의기구적 성격을 띰

표 4-6 구림권 마을간 연합조직체와 그 활동

조직명	임원	활동 내용
대동계	동장, 부동장, 삼동장, 계수, 공사원, 유사, 고지기(庫直)	년 1회 정기총회 다양한 현안 논의 및 결정 폐쇄적 회원 구성
문중	낭주 최씨/창녕 조씨/함양 박씨/ 해주 최씨 4대 문중별 임원 구성	연 2차례 문중행사 주관
상신회	동구림 사근정 사거리 상인회	정기총회, 월례회의
구림청년회	1988년 결성 학암, 죽정 중심	군서청년회로 확대 왕인문화축제 주관
구림발전위원회	임원(위원장, 마을별 대의원 3명) 구림 9개 마을 주민	구림중학교 이전 도기문화센터 건립 연 1~2회 주민교육
왕인촌자치위원회	동구림리, 서구림리 마을 대표자	한옥체험 민박 및 상가 운영 협의

출처: 정근식 외(2003) pp.263~306의 내용을 참고로 정리한 것임

④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전개와 지역주민의 소외

❑ 2000년대 이후 구림지역에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들이 추진되어 있음

• 동구림리 일대에 조성된 왕인박사유적지 조성사업은 원래 1985년부터 소규모 사업들이 이루어져오다가 왕인문화축제가 알려지면서 대규모 관광지구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영암군 문화시설사업소가 운영을 맡고 있음

• 또 다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서구림리를 중심으로 한 문화마을조성사업인데, 1998년에 건립된 도기박물관과 2012년에 건립된 군립미술관이 그 대표적 시설물들임. 이 역시 군청 문화시설사업소가 운영을 맡고 있음

• 전통한옥마을조성사업도 최근에 추진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2003년부터 최근까지 동구림리에 96채의 한옥을 보수 혹은 신축을 하고 마을 일대를 한옥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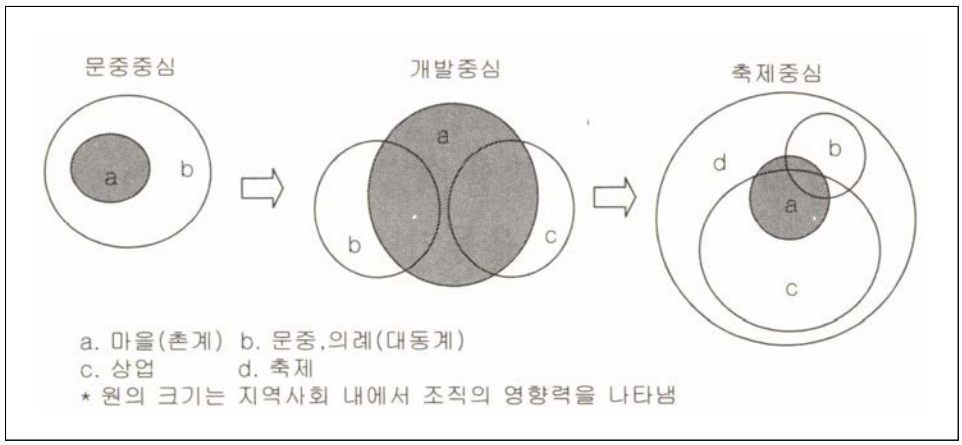
- 현재 체험프로그램 및 민박 운영과 관련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왕인촌자치위원회가 운영을 맡고 있음
- 이외에 주거변천사야외전시장를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옥건축 체험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의 의례에 뿌리를 두었던 축제가 영암군 관광발전의 수단으로 변하면서 축제는 점점 지역주민의 생활세계로부터 유리되고, 같은 논리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지역개발의 성과와 지역주민들 간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음

- 대동계뿐만 아니라 청년회, 구림발전위원회 등의 지역 자치조직들은 활동기반을 상실하고 주변부로 밀려남
-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러한 사업들의 성과로부터 배제되어 무관심해지고 때로는 불만을 표시함(홍성흡, 2001)

❑ 이처럼 전통과 의례 중심에서 개발과 축제 중심으로의 지역담론 변화, 이에 따른 축제성격의 변화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전개 등이 진행되면서 구림지역을 통괄하는 자치조직뿐만 아니라 개별마을의 역할도 약화됨

그림 4-3 구림지역의 사회조직의 위상 변화



자료: 정근식 외, 2003, p.290

(2) 사례 마을의 공동체적 특성

① 인구 및 농가 특성

❑ 서구림리 4개 마을들은 마을 규모가 작으며, 과소화와 노령화 현상이 극심함

- 가장 규모가 작은 신흥동은 가구수와 거주인구가 각각 15호와 23명이며 가장 규모가 큰 서호정조차도 52가구의 96명만이 거주함
- 신흥동은 주민 모두가 60세를 넘고, 60세 비율이 가장 낮은 백암동도 62.5%에 이를 정도로 고령화가 극심함
- 또한 남송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자연마을들은 모두 단독가구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백암동의 경우 27가구 중 16가구가 단독가구로 이루어져 있음
- 단독가구들은 대부분 고령의 가구주 혼자 사는 가구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만큼 긴급구호와 같은 밀착된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들이 많음을 의미함

❑ 외지인의 유입은 활발하지 않음

- 최근 5년 동안 각 마을에는 1~2호 정도의 귀촌 가구가 있었고 귀촌가구들은 거의 대부분 U-턴 가구임

❑ 배연정 외의 연구(2013)에 따르면, 마을 단위로 정주환경에 대한 서비스가 자생적으로 발생되고 운영될 수 있는 마을이 되려면 마을 규모가 40호를 넘어야 하고, 또 마을규모가 60호 정도를 넘어야 농업관련조직 활동 및 도농교류 사업의 전개가 가능하다고 분석됨

- 이 연구 결과를 두고 볼 때 4개 마을 모두 매우 취약한 인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농가의 절대 다수가 벼농사 위주로 하거나 자급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음

- 4개 마을 모두 축산, 이나 과수 혹은 시설재배와 같이 집약적 농업을 하는 농가는 전혀 없고, 대신 식량이나 채소 등 자급용 작물을 재배하는 가구가 압도적 비율을 차지함
- 예를 들어 백암동 마을은 가구의 2/3가 비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산물판매가 전혀 없는 농가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때 비농가들은 비농업활동을 하는

가구라기보다 대부분 고령으로 인한 탈농을 한 가구임

- 따라서 4개 마을들은 경관 상으로 보면 전형적인 농업 중심 마을처럼 보이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농업중심 마을이라고 보기가 어려움

표 4-7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 조사마을의 인구 및 농가 특성

구분	백암동	신흥동	서호정	남송정
마을취락구조	하나의 집촌	하나의 집촌	하나의 집촌	하나의 집촌
인구수 전체인구 중 60세 이상	40명 25명	23명 23명	96명 91명	45명 26명
가구수 전체 가구 중 단독가구수	27호 15호	15호 6호	52호 20호	35호 -
비농가 수 혹은 농산물 판매없는 농가	20호	10호	27호	24호
농가의 주된 농사	벼농사	벼농사	벼농사	벼농사
축산·과수·시설재배 등 상업적 영농 농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최근 5년 이내 귀촌가구 수	없음	1호 마을출신	2호 외지출신	2호 마을출신

자료: 본 연구의 사례마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② 마을 내 사회관계와 공동체 활동

❑ 4개 자연마을 모두 주민들의 일상적 사회관계는 마을 내에 집중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인식에 있어서도 마을이 일상적 생활세계의 중심이라고 응답하였음

- 관혼상제 때 주민들 간 상호부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됨
- 동족마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호정과 남송정 마을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마을들도 유사한 응답을 하였고, 아마도 오랜 면식을 바탕으로 의례적인 상호부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자연마을 단위로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들이 조직되어 있으며, 마을마다 각 조직들은 활발하게 운영된다고 응답하였음
- 그러나 이들 주민조직들은 자체 재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마을 공동재산으로

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특별한 활동상황은 없고 사실상 비슷한 연령과 성별 배경을 가진 주민들 간에 일상적인 교류와도 잘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짐

- ❑ 서호정과 남송정 마을에는 각각 소규모 작목반이 하나씩 조직되어 있고, 남송정 마을에는 이외에도 민박집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모임이 결성되어 있음
  - 서호정과 남송정 마을의 경우 농산물 판매를 어느 정도 하는 농가들도 대개 벼농사 위주로 하는 농가이므로 두 마을의 작목반은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결성된 조직일 가능성이 높음
  - 면단위 혹은 그 이상의 생산조직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움
  - 남송정의 민박집 운영 조직은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들은 민박 운영과 관련된 협의 이외에도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는 모임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음
- ❑ 과거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자치조직이었던 촌계(村契)는 4개 마을 모두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의 활동에 대해 평가가 다소 엇갈리지만 대체로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촌계는 모두 토지 형태의 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마을내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음
  - 촌계는 매년 1회 총회를 가지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의 마을 대표 선임도 총회에서 이루어짐
- ❑ 4개 마을 모두 촌계 총회를 제외한 마을총회는 열지 않고 있음
  - 사실상 촌계 총회가 유일한 마을 총회임
  - 마을 총회에서는 마을행사 논의나 행정사항 전달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마을에 필요한 공동사업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마을 단위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없었고 과거 추진한 적도 없다는 응답이 이를 여실히 보여줌
- ❑ 한편 4개 마을에는 공동시설로 마을회관(노인정 포함), 정자만 있거나, 공동창고

까지 보유한 경우(남송정과 서호정마을)도 있지만, 이들 공동시설 중에 주민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시설은 모두 마을회관과 정자라고 응답되었음

- 마을주민에게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활동장소로 모두 마을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는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마을회관과 정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음
- 두 질문을 연결해서 해석하면 결국 마을의 기능은 근린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4개 마을은 모두 촌계를 비롯한 각종 하위조직이 유지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활력을 상실하고 일상적 친목활동 정도만 수행하는 근린 정도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진단은 마을총회 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공동사업의 추진을 시도한 경험이 없다는 점,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마을에 집중되는 데도 그 활동목적은 주로 여가활동이나 친목도모에 그친다는 점, 이점과 연관되어 마을회관과 정자만이 주민생활의 활동의 장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가능함
- 기존의 유교 경관 이외에 마을내 구림도기가마터, 도기박물관, 군립미술관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서호정 마을조차 이를 활용한 마을공동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공동체 기능의 활성화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아울러 농업활동까지 퇴조하여 실질적인 농업생산조직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농업공동체로서의 면모도 퇴화되고 있음[13)]

13) 백암동 마을의 경우 과거에 정부 지원으로 건립된 공동창고가 있었으나 너무 노후되어 이를 허물었음. 그 뒤 마을 자체로 새로운 공동창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음.

표 4-8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 조사마을의 공동체 활동

구분		백암동	신흥동	서호정	남송정
공동재산	종류	마을재산	마을재산	마을재산	마을재산
	형태	토지	토지 및 노인회관	토지	토지
	경향	증가	증가	증가	증가
비농업조직	동계(촌계) 상황	활동 미약	연 1회 개최	소멸	활발함
	조직명	노인회, 부인회, 청년계	노인회	노인회, 부인회, 청년계	노인회, 부인회, 청년계
	활성화 여부	모두 활성화	노인회 활성화	모두 활성화	노인회, 부인회 활성화
마을총회	연간 개최횟수	연 1회	연 1회	연 1회	연 1회
	중요안건 (1,2위)	마을행사 행정사항 전달	마을행사 행정사항전달	공동사업	마을행사 행정사항전달
경제활동 조직		없음	없음	작목반(7호)	작목반, 민박조직
마을단위사업 추진경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자료: 본 연구의 사례마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③ 마을 외부와 사회관계 패턴

❑ 구매활동을 제외하면 4개 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마을 내 혹은 중심지역(동구림리)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서호정, 남송정, 신흥마을의 경우 동구림리의 중심지역과 1.5km 이내 도보거리 정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을 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임
-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백암동 마을의 경우 마을 다음으로 중요한 활동의 장소는 중심지역이 아니라 면소재지인 사실에 비춰볼 때 3개 마을에게 있어서 중심지역이 가진 의미를 짐작해볼 수 있음

❑ 옆 마을과의 교류도 그다지 활발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주민들의 평균적 경향 측면에서 서호정, 백암동, 신흥마을의 경우 옆 마을과 정기적인 교류를 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응답되었음
- 다만 남송정 마을은 외부와의 교류 사례들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남송정이 왕인박사유적지에 접해 있어 체험관광, 민박운영 등을 이유로 주민들 중에는 동구림의 주민들과 교류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표 4-9 서구림리 주민의 공간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들

활동내용	백암동	신흥동	서호정	남송정
농업활동	마을내, 면소재지	마을내, 중심지역	마을내	마을내, 중심지역
사회활동	마을내, 면소재지	마을내, 중심지역	중심지역	마을내, 중심지역
여가활동	마을내, 면소재지	마을내, 중심지역	마을내	면소재지, 영암읍
구매활동	중심지역, 영암읍	중심지역, 영암읍	마을내	중심지역, 영암읍

자료: 본 연구의 사례마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 대동계, 문중, 청년회, 구림발전위원회 등 지역 자치조직에 여전히 이장을 비롯한 소수의 마을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어 이런 측면에서 다른 농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마을간 연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연계활동은 대동계와 마을과 이루어졌던 과거의 유기적인 관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음
- 이 점은 마을간 공동사업에 대해 추진경험이 없고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에서 알 수 있음
- 이는 대동계와 문중의 권위가 과거와 비해 현저히 약화되었고, 새롭게 조직되었던 지역 자치기구들도 주도권을 상실하고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변질되어버린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이처럼 지역자치기구의 약화, 이로 인한 마을간 연계 활동의 저조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지역현안에 관한 의사결정의 주도권이 영암군으로 넘어간데 기인함

(3) 요약

❑ 본 연구에서 구림지역에 주목한 배경은 3개 행정리 9개 마을들이 연대한 조직체들과 각 마을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전개해온 경험들이 과소화, 노령화되는 농촌지역에 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이 지역의 경우 과거에는 대동계 주관으로 학교와 같은 지역기반시설 구축, 수해 복구, 제방 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왔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청년회,

상인회, 구림발전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조직들이 결성되어 지역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음

-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을연합 형태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생활기반시설의 보전·관리, 농업 및 제 산업의 유지·발전, 사회관계의 형성 및 조정, 지역문화의 창생 및 전승, 주민 안전 및 복지 향상 등의 기본 기능들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음을 의미함

❑ 그러나 영암군청 중심으로 한 지역외부 세력이 이 지역개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마을연합 형태의 커뮤니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지역자치기구들이 주변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1990년대 후반 이 지역에는 군 주도의 축제를 비롯해 대규모 지역개발사업들이 추진되었음
- 그러나 이 지역개발사업들로 형성된 지역자원들은 지역주민들과는 완전히 유리된 채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과정에서 지역정체성의 혼란마저 초래하였음

❑ 한편 마을들은 과소화, 노령화, 농업의 퇴조로 근린 수준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음

- 공동체 기능 약화로 향후 정주성 저하 문제가 홍동면의 사례 지역에 비해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
- 즉 공동체 활동의 위축으로 공동으로 대처할 생활기반 및 생산기반 관리의 부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주민들의 심리 상태와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주민들 사이의 연대의식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3)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마을

(1) 지역사회 변화과정

❑ 홍성군 홍동면은 1950년대 풀무학교가 설립되고 이 풀무학교를 매개로 유기농업을 지향하는 농민들을 배출하고 아울러 자연과 생명을 살리는 농업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외지인들이 꾸준히 유입해온 지역임

- 이들 외지인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동들을 하여왔고,

21세기 새로운 농촌발전을 보여주는 한 모델로 인식되어 학계와 정책당국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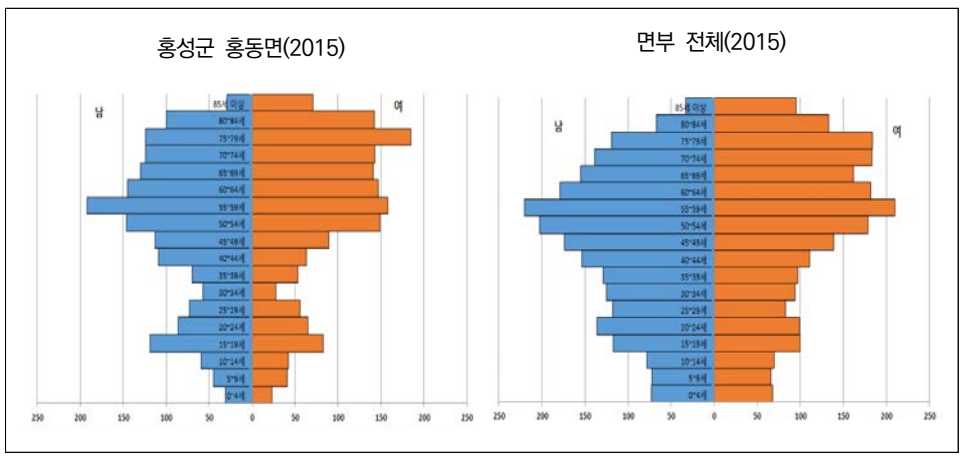
① 인구감소, 노령화의 진전: 전국 면지역의 평균 수준의 인구 동향

❑ 홍동면 전체 인구학적 동향은 사실 우리나라 전체 경향과 크게 다를 바 없음

- 1995년 이후 인구의 변화도 우리나라 면부 인구의 감소 경향과 유사한 감소 수준을 보이거나 시기에 따라서는 면부 전체의 감소율보다 더 큰 감소 속도를 나타내기도 하였음
- 또한 201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37.4%로 우리나라 면부 평균(30.8%) 보다 높음
- 홍동면은 우리나라 면부 전체에 비해 3~40대 비율이 오히려 낮아 인구의 연령구조 측면만을 두고 말한다면 홍동면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인구구조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음

❑ 한편 2015년 기준으로 비농가수는 476호로 전체 가구의 33.6%를 차지하여 비농가 비율은 전국 면지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그림 4-4 홍성군 홍동면의 연령별 인구구조(2015)



자료: 통계청, 2016b, 2015 인구주택총조사.

②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업농 발달

❑ 겸업농 비율이 높고 자급적 목적의 영농활동을 하는 농가 비율도 높음

- 2015년 홍동면의 겸업농가 비율은 36.2%로 그 가운데 비농업소득에 더 많이 의존하는 제2종겸업농가 비율이 더 높음
- 벼농사 위주의 농가 비율이 전국 면 평균보다 높은 반면에 동시에 과수, 시설재배 농가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으나 축산농가 비율은 전국 면 평균보다 훨씬 높음
- 한편 2010년 기준으로 농산물 판매가 없거나 미미한 농가, 다시 말해 농업활동의 목표가 가족 농산물 수요를 자급하는데 두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16%에 이른 반면에 정책당국에서 전문적 농가로 간주하는 농가, 즉 연간농산물 판매금액이 3천 만원을 넘는 농가의 비율은 13.6%에 불과함
- 결국 홍동면은 고령 혹은 비농업활동을 이유로 농업경영의 목표를 자급용 농산물 생산에 두는 한계농 혹은 취미농들이 적지 않고, 반대로 상업적 농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전문경영농가들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음

표 4-10 홍동면의 농가 특성

구분		홍성군 홍동면	전국 면부 전체
겸업농가 (2015년)	제1종 겸업농가율	16.4%	17.9%
	제2종 겸업농가율	19.8%	19.7%
경영형태[주1] (2015년)	벼농사 농가 비율	56.5%	43.4%
	과수 농가 비율	0.6%	13.9%
	축산 농가 비율	14.9%	5.7%
	시설재배 농가 비율	2.9%	5.6%
농업소득[주2] (2010년)	연간농산물 판매 없는 농가비율	8.3%	7.7%
	연간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미만 농가비율	13.0%	11.4%
	연간농산물 판매액 3천만원 이상 농가비율	13.6%	16.5%

주1: 농림어업총조사에는 농가의 주소득 작물을 기준으로 논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화훼, 전작, 축산, 기타 등 모두 8개의 경영형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주2: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의 경우 읍면단위로 농산물판매금액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③ 유기농업의 도입 및 새로운 유통방식의 실천

❑ 홍동면 농업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유기농업의 도입과 확산임

- 1970년대 중반부터 홍동면 문당리 문산마을의 일부 농가들 중심으로 오리농법에 의한 무농약 쌀 생산이 시작되었고 1993년부터 문당리 일원으로 확산되었고, 이후 홍동면 전체로 확산되었음
- 그러나 홍동면의 유기농업 확산은 마을 단위로 확산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실천하는 농가들에 의해 확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14] (김기홍, 2015b, p. 88-89)
- 풀무학교, 정농회, 풀무생협 등 다양한 조직체 활동은 유기농업의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계약재배, 소비자 연대를 통한 직거래, 생협을 통한 유통 등 새로운 유통방식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실천함으로써 농산물유통의 혁신 사례로도 주목을 받음

- 1996년 홍동농업과 유기농 쌀 '흑향미' 계약재배를 체결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였고 이를 계기로 '유기농업 붐'이 형성되었음
- 1980년대 후반부터 도시소비자의 체험활동을 추진하는 등 생산자-소비자 교류활동을 꾸준히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직거래방식의 유통이 활성화되었음
- 쌀 이외에 다양한 유기농산물이 재배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 유통경로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풀무생협을 조직화하고 풀무생협을 매개로 전국적 생협조직과 연계하는 유통경로를 추진함

④ 새로운 형태의 지역공동체 만들기의 추진

❑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다른 농촌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방식의 지역공동체만들기가 추진되고 있음

- 지역공동체 만들기는 결국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의 연대 및 조직화로 실현되는데, 홍동면의 경우 이러한 연대와 조직화가 처음부터 마을이나 소권역을 벗어나 홍동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음

14) 예를 들면 유기농 쌀 재배의 선구 마을인 문당리의 경우도 문산마을은 마을 전체가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지만, 인근 동곡마을은 일부 농가들만이 유기농업을 실시하고 있음.

- 홍동면에는 38개 조직체가 활동하고 있는데(김정섭, 2013, 207), 사람들의 연대 및 조직화가 유사한 거주지역, 연령, 성별, 경제활동 분야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계적 연대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가치의 공유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고 조직화되며, 또 조직간 상호 연대까지 이루어지는 유기적 연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농업활동, 취미, 학습, 친목 등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체들이 공존하고 있음
- 풀무학교에서 배출한 졸업생과 자연·생명을 중시하는 공동체 건설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외지출신자들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만들기가 추진되고 있음
-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주체에 의한 지역공동체만들기가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 사례 마을의 공동체적 특성

❑ 사례마을은 운월리와 금당리 2개 행정리로 선정하였음

- 운월리는 면소재지의 행정리로 4개 반(4명의 이장), 5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졌고, 금당리는 면소재지로부터 약 6km 정도 떨어진 면의 주변부에 위치하며 3개 반(3명의 이장), 6개 자연마을로 구성됨

① 인구 및 농가 특성

❑ 두 행정리 모두에서 비농가의 증가 그리고 외지인 유입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동시에 두 행정리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 면소재지 마을인 운월리는 고령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비농가 비율은 더 높으며 또 외지인 유입도 상대적으로 더 활발함
- 또한 비농가의 특징도 다소 다른데 금당리의 비농가 대부분은 고령 탈농과정을 거쳐 비농가로 전환한 경우인 반면, 운월리는 비농업부문 경제활동에 주력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비농가가 거주함

- 운월리에는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주체에 의한 공동체 활동들이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곳이며 일찍부터 외지인 유입들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 금당리와 다른 성격을 나타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음

❑ 사례 마을의 연령 분포를 보면 비록 60대 이상 비율이 50~60%를 차지하여 고령인구 비율은 높지만 우리나라 농촌마을의 평균적 수준에 비해 50대 이하 인구 비율도 높음

- 그러나 50대 이하 연령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이 거의 대등한 비율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집단 측면에서 양분화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음

❑ 두 행정리 모두에서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농가 비율이 높고 대규모 상업농 발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임

- 전작을 중심으로 영농활동을 하는 농가들은 대체로 고령 단독 혹은 부부에 의해 농사가 이루어지는 농가들로 자급목적 혹은 소액 현금 수입 목적으로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가임. 사실상 탈농에 임박한 한계농가들이 대부분임
- 다만 금당리는 운월리에 비해 축산, 시설재배, 인삼재배 등 상업적 영농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농가의 수가 다소 많음
- 두 행정리 간에 농가특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같은 행정리 내 자연마을 사이에도 농가특성의 차이가 적지 않음. 예를 들면 금당리의 상업적 농가들은 주로 상당마을에 분포하고 있음

표 4-11 홍동면 조사마을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운월리	금당리
입지	면소재지 중심마을	면소재지로부터 약 6km
마을취락구조	송풍, 상반월, 창정, 운곡 4개 반 5개 자연마을	성당, 백동, 상하금 3개 반 6개 자연마을
인구수 그 중 60세 이상	392명 169명(43.1%)	296명 155명(52.4%)
가구수	186호	133호
비농가 수	69호	35호
농가의 주된 농사 벼농사 전작 과수 축산 시설작물 기타	 99호 12호 - 5호 - 1호	 70호 41호 - 2호 6호 10호
최근 5년 이내 귀촌가구 수	18호	6호

자료: 본 연구의 사례마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홍동면 두 사례 행정리는 연령집단이 양분되어 있고, 다수의 비농가들이 거주하며, 또한 농가들은 자급적 영농을 추구하는 한계농과 소수의 상업적 영농 농가들로 분화되어 있는 등 외형적 기준에서 볼 때 주민구성의 이질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아울러 이질화 양상은 행정리 간에 또 같은 행정리의 자연마을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연령, 생계활동 특히 농업경영방식이 다른 가구 혹은 농가들 간에는 각기 자신들의 생활에 있어서 마을기반시설이 가진 의미도 다르고 마을에 대한 지향과 태도도 다를 가능성이 높음
- 기존 연구에 따르면, 공동체에 대한 지향과 태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데는 각기 생활을 전개하는데 중요한 사회관계망이 다른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함(Liepins, 2000b, p. 335; 中條曉仁, 2003, p. 995)[15]

15) 일본 과소지역 농촌마을 주민의 사회관계망 패턴을 분석한 中條曉仁(2003)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 생계활동,

② 마을 내 사회관계와 공동체 활동

❑ 두 행정리 주민들의 일상적 사회관계는 자연마을 범위 내에 집중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자연마을 단위로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들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만, 자체 기금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활동이 미약한 것으로 확인됨
- 한편 취미모임과 같은 특별한 활동목적을 가진 조직체 활동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
- 과거에 대부분 농촌마을에 존재하였던 상계, 혼계와 같은 계 조직은 전혀 남아 있지 않으며, 상호부조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호 면식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의례적 상호부조 행위로 여겨짐
- 따라서 사례 마을의 주민 사회관계는 자연마을과 같은 좁은 지리적 범위 안에서 오랫동안 같이 거주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연대의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비록 연령과 성별에 따라 사회관계가 집중되고 있지만 공감대와 취향을 이유로 한 자연스런 분화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작목반과 같은 농업관련 조직은 일부 마을(4개 마을)에서 확인됨

- 한계농가, 자급농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가가 작목반에 참여하는 한 마을(운월리 창정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작목반이 조직된 3개 마을들은 일부 농가만이 참여하는 형태로 조직되어 있음
- 또 농업관련 조직들은 홍동농협과 연계된 조직과 풀무생협과 연계된 조직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의 경우는 조직결성 동기의 자발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판단됨[16]

❑ 마을총회는 이장 주관 하에 자연마을별로 개최되며 개최 횟수는 마을별로 차이가

이동수단의 보유 여부에 따라 공간적 범역별 사회관계 빈도와 내용이 다르며, 아울러 이러한 사회관계망 차이는 마을내 적응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고령자일수록 그것도 농업에 중점을 두는 가구의 고령자일수록 촌락내 근린 주민을 중심으로 사회관계가 집중되며 의존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16) 홍동면의 유기농업 발달과정과 성격을 연구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풀무생협과 연계된 조직들은 유기농업의 가치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학습 등의 목적으로 홍동면 전체 유기농업 실천농가들과 활발히 교류하는 등 홍동농협 연계 조직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김기홍, 2015a). 따라서 이런 작목반 조직은 마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공동체 조직으로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음.

있으나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된다고 볼 수 없음

- 마을총회 개최 횟수가 많은 경우는 운월리 송풍마을(연 5회), 운월리 창정마을(연 4회) 나머지 마을들은 연 1~2회에 개최하는데 그침
- 총회의 안건은 마을행사계획, 마을공동작업 논의, 행정사항 전달, 공동사업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마을행사계획은 임원회로 대체되는 마을들이 많았음

❑ 현재 마을 내에 농촌커뮤니티가 수행해야할 기본 기능, 즉 생활기반시설의 보전·관리, 농업 및 제 산업의 유지·발전, 사회관계의 형성 및 조정, 지역문화의 창생 및 전승, 주민 안전 및 복지 향상 등의 기능들을 분담하는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총회가 이런 기능 수행에 필요한 활동들을 총괄 논의하고 집행하는 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음

- 그렇지만 조사마을들의 마을총회 개최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을총회가 이와 같은 기능적 요구에 제대로 대처한다고 볼 수 없음
- 최근에 정부사업을 추진하거나 혹은 마을자체 공동사업을 추진한 경우를 질문한 응답에서 한 마을(금당리 상당마을)을 제외하고 전무하다고 응답하였음. 이 역시 마을의 자치적 역량이 취약함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17]

❑ 한편 사례 마을에는 마을회관(노인정을 겸한 경우가 많음), 정자, 공동창고 등의 공동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마을회관과 정자는 여전히 활용도가 높고 또 주민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설로 평가되고 있음

- 3개 마을은 정부지원으로 공동창고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은 작목반과 같은 일부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마을회관은 공식적 회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마을주민의 일상적 접촉의 장으로서 활용되고 있음[18]

---

17) 물론 대부분 마을들이 친환경농산물 유통, 농산물가공사업, 체험관광사업 등을 검토하고 논의한 적은 있다고 응답하였음. 그러나 실현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소득증대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음.

18) 일부 이장들의 응답에선 이 마을회관 조차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음. 금당리 상당마을이 그 예인데 이 마을의 경우 상업적 농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농가가 많은 마을로 마을에는 마을회관, 노인정, 공동창고 등 공동시설들이 있지만, 공동창고가 활용도가 높고 중요성을 가지는 시설로 응답하였음. 물론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마을 주민의 사회적 접촉의 장으로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 Liepins(2000b, p. 328)는 장소든 시설이든 혹은 매체이든 주민 교류의 장이 다양할수록 주민들 사이에 공동체 정체성의 공유 정도가 높고 또 공동체 실천 행위를 활발하게 촉발한다고 하였음
-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홍동면 조사마을의 공동시설 활용실태는 일부 주민 그룹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교류는 근린 성격 이상의 의미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표 4-12 홍동면 조사마을의 공동체 활동

구분		운월리	금당리
공동재산	종류	마을기금+ 각종 단체기금	마을기금만 혹은 마을기금+단체기금
	형태	기금 혹은 기금+토지 형태	기금+토지
	경향	축소 혹은 변동없음	변함없음 혹은 축소
비농업조직	조직명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활성화 유무	전반적으로 활동 미약함	부녀회, 노인회는 비교적 활성화
마을 총회	연간 개최횟수	4개 반별로 편차가 있음 1~5회/연	3개 반별로 편차가 있음 연 1~2회
	중요안건(1, 2위)	행정사항 전달, 마을행사	마을행사, 공동사업논의
농업관련 조직화		3개 자연마을에 조직됨 일부 농가로 구성 홍동농협 혹은 풀무생협과 연계	토마토작목반(상당마을) 일부 농가로 구성 풀무생협과 연계
마을단위사업 추진경험		없음	없음

자료: 본 연구의 사례마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③ 마을 외부와의 사회관계 패턴

❑ 주민행동에 있어서 면소재지, 홍성읍 등으로의 연계는 예상한대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가활동, 사회적 교류 등 마을 내에서도 대체될 수 있는 주민행동의 경우, 마을이 가장 중요한 활동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19)]

만, 농업활동에서 은퇴한 일부주민들의 교류 장으로 활용됨을 시사하는 응답으로 여겨짐.

19) 면소재지에 바로 인접한 마을들은 마을이 곧 면소재지이므로 논의에서 제외함.

- 일부 주민들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보아 주민들이 마을을 벗어나 동호인 모임과 같은 비경제적 목적의 조직에 참여하는 경우도 희박하다는 응답에서도 주민들의 사회교류 활동이나 여가활동이 마을 내 고착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 다만 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위해 면소재지의 중요성이 다른 경우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는데, 아마도 유기농업과 관련된 협동조합 활동이 이곳에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마을간 연계 패턴에서 또 하나 강조되어야 할 점은 같은 행정리 내 옆마을과의 교류 실태인데, 현재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 공간행동뿐만 아니라 공간인식 측면에서도 옆마을은 의미 있는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점임

- 옆마을과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논의를 시도한 경우가 없는 마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이 이를 잘 반영함

(3) 요약

① 이원화된 지역사회 집단

❑ 홍동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생명·공동체 가치의 추구라는 정주 목표를 가진 지역사회집단과 오랫동안 마을에 거주하면서 마을 중심의 생활세계를 구축해온 원주민 집단 두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전자의 경우 가치에 바탕을 둔 연대와 교류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존 마을을 벗어나 면 단위의 사회관계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 다면화된 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목적의 조직체를 분화 형성하고 있음
- 전자 집단은 공동체만들기를 중요한 지향점으로 삼고 있지만, 이들이 애초에 추구하는 공동체는 마을공동체 혹은 촌락공동체 범위를 넘어서 면단위 이상의 광역적 지역사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새로운 사회집단과 기존 주민집단 사이에는 가치의 충돌로 인해 갈등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

② 마을의 공동체 기능이 제한적이며 마을은 근린 수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하세가와(長谷川昭彦, 2000, pp. 30-31)는 일본의 고도성장기 이래 촌락은 공동체적 성격이 약화되어 몇 가지 기능만이 수행되는 근린지역사회로 성격이 변화하였다고 진단함

- 2장에서 언급된 바 있듯이 원래 촌락공동체 혹은 확대된 의미의 농촌커뮤니티는 자체 내에서 일상의 생활과 산업(주로 농업)의 유지 발전, 사회관계의 형성, 지역문화 창생과 전승, 주민 안전 및 복지 향상 등의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이에 비해 근린은 친목 도모, 여가활동과 같은 일부 생활상의 욕구만을 충족시켜주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유형인데 현재 일본 농촌집락은 이 수준 정도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함

❑ 홍동면의 사례 마을들도 위에서 언급한 근린 수준의 지역사회 성격을 나타냄

- 전반적으로 노인회, 부인회, 청년회와 같은 기계적 연대에 의한 조직체 이외에는 마을내부 조직체 형성이 미약하고, 그나마 노인회 등은 활동이 저조한 것이 일반적임
- 또한 작목반 같은 생산조직은 한개 정도 결성되어 있는 가운데, 일부 농가만이 참여하여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서의 성격이 약함
- 마을의 대표적인 자치기구인 마을총회도 다양한 커뮤니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줄 정도로 활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사례마을의 공동체 기능이 약화된 데는 노령화와 과소화가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들 가구들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능력 자체가 약한데다 무엇보다 가구 승계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지향과 태도도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또한 한계농가 혹은 자급농가가 많은 점도 공동체 기능 약화의 한 요인으로 판단됨. 이들 가구들은 생산환경이 가진 의미도 약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공

동사업에의 유인도 약할 것임

③ 주민들은 자연마을 범위를 벗어난 사회관계 형성이 활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소수의 상업적 농업을 하는 주민과 비농업취업을 하는 주민들을 제외한 대부분 주민들은 자연마을 위주의 사회관계 패턴을 가진 것으로 추정됨

- 홍동면 응답에서 평균적인 주민들의 행동 패턴은 자연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같은 행정리의 옆마을이 일상생활에 가진 의미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이는 일본의 농촌 경향도 대비되는 특징으로 일본 농촌의 경우 고도성장기 이후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령주민들의 사회관계는 상대적으로 집락 내에 집중되는 경향은 있지만, 다양한 목적의 광역적 사회관계도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함(中條曉仁, 2003, pp. 987-988)
- 또 소학교 학구 단위, 구촌(舊村)단위 내 집락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촌연합 활동도 전개되고 있다고 함(長谷川昭彦, 2000, p. 32)

④ 결국 홍동면의 경우 새로운 주체들에 의한 지역공동체만들기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마을 단위로 보면 공동체 기능 약화로 향후 정주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 즉 공동체 활동의 위축으로 공동으로 대처할 생활기반 및 생산기반 관리의 부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주민들의 심리 상태와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주민들 사이의 연대의식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4)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하얀민들레생태마을

(1) 지역사회 변화과정

① 마을의 역사와 인구변화

❑ 회인면은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회인군이었고 지금의 회인면은 군청 소재지로 2007년 보은군 조례로 '회인면'으로 명명되었으며 하얀민들레생태마을은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함

❑ 하얀민들레생태마을은 마을 출신인 정영수씨와 안충기 마을발전위원장을 중심으로 마을주민들이 함께 친환경적인 생태마을의 이념을 결정하고 추구하면서 생성됨

- 이 마을 출신인 정영수(변호사) 씨가 귀향하면서 안충기 위원장과 함께 녹색농촌휴양마을, 권역사업 생태마을 선정(새마을운동중앙회 주관) 등을 신청하여 2007년경부터 마을의 활력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게 됨
- 하얀민들레생태마을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자생 식물인 감나무와 하얀민들레 중 다른 곳에서 잘 자라지 않는 하얀민들레를 선택하여 차별성을 가지고 마을 이름을 짓게 됨

❑ 1970년대 중반 회인면의 인구는 약 1만 7천 명의 인구를 유지할 정도로 인구규모가 컸으며, 면소재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음

- 주민들은 슈퍼, 술집, 재제소 등이 있어 다른 면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었음

❑ 현재 회인면은 약 2천 명 정도의 인구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얀민들레생태마을의 경우 약 50% 이상이 60대일 정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었음

② 마을의 특수성

❑ 회인면 부수리 하얀민들레생태마을은 대청호 근처에 위치해 있어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되어 물, 토양, 공기질이 뛰어난 청정지역으로 다양한 규제를 기회삼아 마을 주민이 공동체를 이루어 생태마을로 조성하여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임

- 마을에서 1km정도 떨어진 면소재지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상류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어준 대청댐孝나눔보기센터가 위치해 있는 특징이 있으며 면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 건강 증진, 복리후생(식당)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배명순, 2016)
- 하얀민들레생태마을의 경우에는 인구와 경지면적에 따라 1년에 1천5백만원 정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있음

③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

❑ 하얀민들레생태마을에서 약 3km 지점에는 상주-당진 간 고속도로 회인 IC가 위치해 있어 서울과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하며 대전, 청주와의 접근성이 30분 정도로 우수하여 의료, 복지,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음

❑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에서 이 지역에 거주를 희망하는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전국 어디든 3시간 안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와서 살고자하는 수요가 높음

④ 뛰어난 공동체의식과 마을주민들의 의지

❑ 개발위원회, 노인회, 부녀회, 환경발전위원회, 청년회 등 마을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고, 마을 공동체 잔치 등 마을 공동체 의식이 시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작목반과 영농조합을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여 마을 기금을 조성(반영운 외, 2010)

- 주민들의 지역개발추진 의지 및 사업경영능력이 우수하여 주민 주도의 사업추진이 가능

❑ 하얀민들레생태마을의 경우에는 보은군 지원으로 사무장이 있어서 정부의 다양한 사업들을 활용하여 소득을 높이고 있음(권역사업), 녹색농촌휴양마을(농림부) 등

⑤ 친환경 농업 추구

❑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고 생태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마을 주민이 합심하여 마을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음

- 하얀민들레생태마을은 청정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하얀민들레가 자생하고 있으며, 100년 이상 된 감나무가 많아 곶감이 유명함

❑ 하얀민들레생태마을의 농가의 비중이 매우 높고 마을 주민들은 감, 대추, 민들레 등을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음

(2) 사례 마을의 공동체적 특성

❑ 사례마을은 면 단위의 마을이 아닌 하얀민들레생태마을로 선정하였음

- 하얀민들레생태마을은 부수리(1리, 2리)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주변에는 애곡1리와 애곡2리가 있음

① 인구 및 농가 특성

❑ 사례 마을의 연령 분포를 보면 마을 주민 전체 70명 중 60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8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고령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음

- 마을 내 10대~30대 젊은 계층의 인구가 거의 없다는 특징을 보임
- 마을 전체 인구 중 남자는 15명 정도로 남성의 성비가 매우 낮게 나타남

❑ 마을의 가구 수는 31호로 그 중 7호가 단독가구이며, 7호 모두 고령 여성으로 구성된 가구임

❑ 최근 5년 내 이사 온 가구는 2가구로 모두 지역에 연고가 없는 가구로 나타남

❑ 2016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31가구 중 농가수는 29호로 전체 가구의 93%를 농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마을 주민들은 주로 감, 대추, 민들레 등을 제배하여 농가 수익을 내고 있음

표 4-13 하얀민들레생태마을의 인구 및 농가 특성

구분	하얀민들레생태마을
마을취락구조	하나의 집촌
인구수 그 중 60세이상	70명 62명
가구수 그 중 단독가구	31호 7호
비농가 수 혹은 농산물 판매 없는 농가	9호
농가의 주된 농사	감, 대추, 하얀민들레
축산·과수·시설재배 등 상업적 영농 농가	22호
최근 5년 이내 귀촌가구 수	2호

자료: 본 연구의 사례마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얀생태민들레마을은 고령화된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농사를 지어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젊은 계층과 남성의 비율이 매우 낮아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다소 회의적으로 볼 수 있음

- 마을 주민들은 도시로 나간 자녀들이 귀향과 외부에서 오는 거주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마을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② 마을 내 사회관계와 공동체 활동

❑ 하얀민들레생태마을은 뛰어난 마을의 리더를 중심으로 마을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마을 공통 토지, 마을 내 숙박시설, 마을 내 체험시설 등 토지와 시설 형태의 공동재산을 가지고 있음

- 주민들은 마을의 공동재산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

❑ 마을 내부에서의 주민모임은 비공식 모임과 공식모임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마을 주민들은 마을 내 애경사 뿐 아니라 주변 마을과 교류가 좋아 주변마을의 애경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경향을 보임
- 최근 3년 전까지는 겨울철 윷놀이 대회도 진행했었음
- 마을 내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동계(1년 1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마을

총회는 1년에 12회로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마을 내 노인회와 부녀회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청년회는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음

❑ 마을 내 농업관련 조직으로 곶감작목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비농업 사업조직으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위원회와 개발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조직들은 정부 지원 등 마을전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음

❑ 마을공동시설은 마을 주민들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노인정, 마을 숙박시설, 농경문화 체험장 등이 있음

- 공동작업장에서는 감, 대추 등의 공동작업을 위하여 여전히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체험시설과 숙박시설도 비교적 쾌적하게 조성되어 있음
- 마을 농기계 창고를 향후 마을 공동재산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마을은 향후 10년 이후에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독거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여 마을 내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동 시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음

- 마을에서는 주민생활관을 지어서 독거노인의 증가를 대비하여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음

표 4-14 하얀민들레생태마을의 공동체 활동

구분		하얀민들레생태마을
공동재산	종류	마을공동재산
	형태	토지+마을 내 시설
	경향	변동없음 혹은 늘어남
비농업 조직	조직명	노인회, 부녀회, 동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위원회, 개발위원회
	활성화 유무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됨(동계 활동 미약)
마을 총회	연간 개최횟수	12회/연
	중요안건(1, 2위)	마을행사 논의, 마을공동사업 논의
농업관련 조직화		곶감 작목반 일부 농가로 구성
마을단위사업 추진경험		있음 (녹색농촌체험마을, 자연 정화 습지 공원, 하얀민들레권역사업 등)

자료: 본 연구의 사례마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③ 마을 외부와의 사회관계 패턴

❑ 주민행동에 있어서 면소재지, 보은읍 등으로의 연계는 예상한대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가활동, 농업경영 등 전반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중요한 장소로는 마을이 가장 중요한 활동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

- 마을 주민들은 마을 내 다음으로 옆마을을 2순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옆마을과의 교류가 활발함을 알 수 있음

❑ 마을 주민들은 마을 내 뿐 아니라 면소재지도 사회적 활동, 일상생활 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 이유로는 마을의 입지가 면소재지와 약 1km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걸어서 면소재지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고 사회적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의료기관의 이용 측면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면소재지 보다는 보은읍이나 대전 혹은 청주 등 대도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인식의 이유로는 면소재지의 의료시설 부족과 보은읍, 대전 혹은 청주 등으로의 뛰어난 접근성을 들 수 있음

(3) 요약

①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마을만의 특수성

❑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속해 있는 하얀민들레생태마을은 쾌적한 환경과 주변 지역과의 교통의 편리함으로 인한 외부인의 거주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다양한 규제에 묶여 있어 발전에 있어 제한이 따름

❑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마을에 매년 제공하는 보상금은 마을 전체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되어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사용되며, 마을과 1km 떨어진 면소재지에 있는 생활시설들의 활용도가 높음

- 이러한 마을의 특수한 상황을 활용하기에 따라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날 수 있음

② 마을주민들의 참여와 마을공동체 기능 활성화

❑ 하얀민들레생태마을은 뛰어난 마을의 리더, 마을주민들의 협력, 보은군의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음

- 다른 사례지역과는 다르게 마을의 규모가 작아 마을 내 교류가 활발하고 비교적 다양한 조직들이 구성되어 활성화되어 있음

❑ 이러한 마을공동체 기능은 향후 외부 사람들로 인하여 약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노력에 따라 그 기능을 유지할 가능성이 충분함

③ 마을단위의 다양한 사업 추진과 마을공동 재산 형성

❑ 작은 인구 규모의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하얀민들레생태마을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다양한 마을단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마을 내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마을 공동재산을 형성함

- 녹색농촌체험마을, 자연 정화 습지 공원, 하얀민들레권역사업 등 사업
- 외부관광객을 위한 마을공동숙박시설(한옥), 향후 노후화를 대비한 마을 공동생활시설, 공동작업장, 생태체험장 등

❑ 이러한 마을의 공동재산을 마을의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④ 마을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마을지속가능성 저해

❑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형성, 우수한 마을 공동 재산, 면소재지와의 뛰어난 접근성 등은 마을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마을 인구의 고령화와 마을을 이끌어나갈 젊은 층의 부재는 마을의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 거주를 희망하는 외부인의 인구유입, 향후 자녀들의 귀촌 등은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공동체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마을의 인구구조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마을의 유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유입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하얀민들레마을의 마을 기능의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5)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봉전마을

(1) 지역사회 변화과정

① 마을의 역사와 인구변화

- ❑ "새들"이라고 부르는 봉전(鳳田)마을은 고려말 두문동 72현 중 한사람으로 정선 유배지에서 유명을 달리한, 채미헌 전오륜(全五倫)의 후손인 전시서(全詩敍)가 조선 인조 때에 거창군 마리면에서 이곳으로 옮겨와서 마을을 개척하였으며, 그 당시 마을 이름을 새들이라고 명명함
  - 그 뒤 3백여년을 전씨들의 집성촌으로 내려오다가 조선 말기에 화림동 신평(新坪)이라고 명명함
- ❑ 봉전마을은 안의군 서하면에 속해 있었으나,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봉평동과 우전동의 이름을 따서 봉전리라 하고 함양군 서하면에 편입됨
- ❑ 1960년대 봉전마을 인구수는 약 300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1990년대 약 100명, 2016년 현재는 50여명만이 거주하는 등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 현상이 뚜렷이 나타남
- ❑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봉전마을의 60대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70%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 봉전마을이 속해 있는 서하면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4년 기준 560명으로 전체인구의 39% 정도를 차지함

표 4-15 봉전마을의 인구 변화

연대	봉전마을 인구, 가구, 초등학교 학생 수
1960년대	봉전마을 인구수 약 100호 300명, 봉전초등학교 학생 수 250명
1970~80년대	봉전마을 인구수 약 120호 350명, 봉전초등학교 학생 수 270명
1990년대	봉전마을 인구수 약 70호 100명, 봉전초등학교 학생 수 70명
2000년대	봉전마을 인구수 약 50호 80명, 봉전초등학교 학생 수 0명
2016년 현재	인구수 약 40호 50명, 봉전초등학교 폐교(9세 이하 2명, 10대 2명)

자료: 장원, 2016, 함양 봉전마을의 현황과 발전전략

❑ 마을 내 있는 봉전초등학교는 1944년 서하초 봉전분교 인가, 1949년 봉전국민학교로 승격, 1996년 봉전초등학교로 개칭, 1998년 봉전분교장으로 격하, 1999년 폐교, 서하초등학교로 통합, 총 49회 졸업생 2,070명을 배출하고 2011년부터 다볕자연학교로 운영 중임

② 마을의 특성

❑ 봉전마을은 정선 전씨의 집성촌으로 모든 문화유적이 전씨 가문과 연계되어 있음

- 현재도 마을 주민의 70% 이상이 전씨이며, 이장을 비롯한 마을의 유지들도 모두 전씨들임. 그러므로 집성촌의 장점도 있지만 그 한계도 명확함

❑ 봉전마을은 전씨 중심의 11명으로 이루어진 '새들회'가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

- 전 현직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동네 원로들 부부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 그 외, 외지에서 들어와 아름지기를 운영하는 이재철, 새들황토펜션을 운영하는 전광준, 다볕자연학교를 운영하는 장원, 배순애, 김병철 등이 있음

❑ 봉전마을의 주민들은 거의 농업에 종사하나 고령화로 경작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데 주산물로는 벼, 양파, 곶감, 고구마, 감자, 사과 등이 있음

③ 마을의 다양한 관광자원

❑ 봉전마을은 최근 10년간, 선비문화사업, 권역사업, 황토펜션사업 등으로 그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최근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됨

- 봉전마을 뒤로는 황석산, 앞으로는 화림계곡, 마을 바로 앞의 거연정, 군자정, 용유담 등 자연문화유산이 풍부해 전국에서도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로 손꼽힘

❑ 주요 역사문화자원으로는 거연정, 공정재, 군자정, 석각군, 서산서원, 전성범비, 허씨열녀비, 황석산성, 효자정려, 화림재, 아름지기, 삼강동 등이 있음

❑ 주요 자연환경자원으로는 화림계곡, 황석산, 선비문화탐방로 등이 있음

④ 마을의 최근 개발사업

❑ 봉전권역사업

- 총공사비 22억으로 2014년에 시작하여 2016년에 완공 예정
- 서산서원을 복원하고, 마을길을 정비하고,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등의 사업으로 마을의 관광수입과 농산물 판매 등을 도모하고자 시작되었으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음

❑ 선비탐방로 및 선비탐방로 건설사업

- 약 50억원의 공사비로 폐교가 된 봉전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선비문화탐방관을 만들고, 아울러 서하 봉전부터 안의 광풍루까지 선비문화탐방로를 건설하는 등 함양의 선비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7년 전에 완공

❑ 마을펜션사업

- 총공사비 10억으로 지리산조합에서 주관하여 마을에 황토방 4동을 지어 마을 수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2년 전에 완공

❑ 아름지기 한옥보전사업

- 삼성그룹 계열의 이름지기 재단에서 봉전마을 전육 씨의 고택을 기증받아 한옥호텔로 리모델링한 사업으로, 현재 삼성 관계자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

❑ 다볕자연학교 시설보완사업

- 개축한 봉전초등학교에 터를 잡아 교육, 연수, 체험, 농사, 유통 등 6차 산업 구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의 구심이 되기 위해 노력. 최근 몇 년간 5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시설을 증축 보완

⑤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

❑ 대구, 대전, 전주, 창원, 광주 등 대도시가 고속도로로 1시간 내외 거리에 분포해 있어 3남 지역의 교통 요지임(남해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 전주장수고속도로)

- 현재 함양에서 울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공사 중이라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판단됨

(2) 사례 마을의 공동체적 특성

① 인구 및 농가 특성

❑ 봉전마을의 연령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마을 주민 전체 50명 중 35명으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편임

- 인구구조상 마을 내 20대~30대 젊은 계층의 인구가 없다는 특징을 보임

❑ 마을의 가구 수는 40호로 그 중 30호가 단독가구로 그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최근 5년 내 이사 온 가구는 2가구로 모두 지역에 연고가 없는 가구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전체 가구 40가구 중 농가수는 30호로 전체 가구의 75% 정도로 농가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농가 30가구 중 20호는 농산물판매를 하지 않고 자급자족을 하는 농가임
- 마을의 농가 중 절반 이상이 밭작물을 제배하고 있으며, 마을의 대표작물인 사과를 재배하여 외부에 주로 판매함

표 4-16 봉전마을의 인구 및 농가 특성

구분	봉전마을
마을취락구조	하나의 집촌
인구수 그 중 60세 이상	50명 35명
가구수 그 중 단독가구	40호 30호
비농가 수 혹은 농산물 판매 없는 농가	10호
농가의 주된 농사	사과
축산·과수·시설재배 등 상업적 영농 농가	10호
최근 5년 이내 귀촌가구 수	2호

자료: 본 연구의 사례마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봉전마을도 마을 주민들 상당수가 고령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대부분의 농가는 농산물을 판매하기 보다는 자급자족용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

- 소수의 특정 농가만이 판매용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고령화가 계속 진행될 경우 농가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② 마을 내 사회관계와 공동체 활동

❑ 봉전마을은 전씨 성을 가진 마을 내 씨족 모임을 중심으로 마을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마을 기금, 공동 토지, 마을 임야 등의 공동재산을 갖고 있음

- 선비탐방체험관, 관광숙박시설인 전통흙집체험관(4동) 등은 마을 내 일부 가구가 참여하여 운영
- 주민들은 마을의 공동재산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마을 내부에서의 비공식 주민모임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마을 주민들은 마을 내 애경사시 축(부)의금을 내거나 참석하며, 가깝고 비슷한 연령의 이웃끼리는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보임

❑ 마을 내부에서의 공식조직 및 마을 총회 등의 주민들의 모임은 존재하고 있지만 그 활동이 미약한 편으로 나타남

- 노인회, 부인회, 청년회, 동계 등 마을 내 주민들이 정기적 모임이 있으나 그 활동이 미약함
- 마을의 발전을 위한 총회는 1년에 2회 정도 열렸으며 주로 마을행사와 마을공동사업에 대하여 논의함

❑ 마을 내 농업관련 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며 농업 외 사업조직으로는 농촌문화관광체험법인이 운영되고 있음

- 농촌문화관광체험 법인에는 현재 10개 가구가 참여 중임

❑ 마을공동시설로는 마을회관, 노인정, 정자 등이 있으며 마을주민들은 마을회관과 노인정을 중요한 시설로 인식하고 있음

- 마을 공동주차장과 마트는 주민들이 마을 존속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시설로 나타남

❑ 마을은 고령화로 인하여 향후 10년 이후에 인구는 줄어들고 빈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전씨 집성촌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마을은 외부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으로

집성촌 고유의 특성이 사라지고, 지금의 일사불란한 의사결정 구조는 향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독거노인들이 증가하여 이들을 위한 면이나 군 차원의 노인복지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표 4-17 봉전마을의 공동체 활동

구분		봉전마을
공동재산	종류	마을공동재산
	형태	마을기금, 마을토지 및 임야
	경향	점차 늘어나고 있음
비농업 조직	조직명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동계, 농촌문화관광체험 법인
	활성화 유무	전반적으로 화동이 미약함(농촌문화관광체험 법인은 활발)
마을 총회	연간 개최횟수	2회/연
	중요안건(1, 2위)	마을행사 논의, 마을공동사업 논의
농업관련 조직화		곶감 작목반 일부 농가로 구성
마을단위사업 추진경험		있음(봉전권역사업, 선비탐방로사업, 마을펜션사업 등)

자료: 본 연구의 사례마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③ 마을 외부와의 사회관계 패턴

❑ 봉전마을의 경우 주민행동에 있어서는 주로 마을과 면소재지 연계는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활동, 여가활동, 농업경영 등 전반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중요한 장소로는 마을과 안의면 소재지가 가장 중요한 활동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

- 마을 주민들 대부분의 활동은 마을과 인근 면인 안의면 소재지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농업 경영 측면에서는 봉전마을이 속한 서하면 소재지를 마을과 함께 중요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임

❑ 일상생활용품의 구입과 의료기관의 이용 측면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면소재지 보다는 안의면이나 거창군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인식의 이유로는 마을 내에는 마트나 의료시설이 없어 면소재지 이상으로 가야만 일상생활용품의 구입과 의료시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3) 요약

① 뛰어난 관광자원과 마을의 다양한 노력

❑ 봉전마을은 일반 농촌마을에 비하여 그 역사성이 깊고 뛰어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장소적 자산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봉전마을의 장소적 자산은 경주 양동마을의 자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쇠퇴하고 있는 일반 농촌마을의 장소자산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있음

❑ 봉전마을은 마을 주민들의 노력과 함께 마을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마을이라고 볼 수 있어, 노력에 따라 발전가능성이 있음
  - 함양군 차원에서도 이러한 강점을 살려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음

② 마을자체의 기능 및 공동체 인식 약화

❑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봉전마을은 전씨 성을 가진 집성촌으로 이루어져 의사결정의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졌으나, 최근 공동체적인 속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
  -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동계 등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활동이 미약하고 농업을 위한 농업관련조직은 없으며, 마을 발전을 위한 법인도 일부 가구들로 구성됨. 이는 고령화로 인한 참여 저조와 전씨 문중 중심의 구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속적인 마을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마을내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일상생활용품의 구입 등 마을의 기본적인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음

③ 마을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마을지속가능성 저해

❑ 봉전마을은 일반적인 농촌마을과 마찬가지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임

  • 대부분의 농가는 경제활동 보다는 자급자족을 위한 농사를 짓고 있음

❑ 사례 마을도 향후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진행되지 않으면 인구규모는 줄어들고 빈집이 늘어 마을이 쇠퇴현상을 막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면 소재지의 서하초등학교를 활용한 인구 유입, 다볕자연학교 공동체로의 인구 유입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한 인구 유입이 필요함

④ 봉전마을의 미래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볼 수 있음[20)]

❑ 행정구역(서하면 봉전리) 내 5개 마을(봉전, 오현, 월평, 반정, 우정)간 범연합조직으로 공동체 재구성 필요

❑ 선비문화자원의 적극 활용 및 이에 바탕한 선비문화 창달

❑ 청빈사상으로서의 선비사상 재해석 및 세방화(世方化, Glocalization)

❑ 산양삼 등 풍부한 항노화자원을 활용한 Well-Aging 힐링센터 만들기

❑ 인문학(선비학)과 자연의 결합을 통한 인성 제고 프로그램 개발

❑ 이런 과업들을 기획, 추진하기 위해 권역사업의 중심이자 마을의 작은 교육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볕자연학교의 기능 강화

❑ 관광두레사업 도입과 아울러 선비힐링촌 또는 자연치유 선비마을 구축

20) 현재 봉전마을에서 다볕자연학교를 운영하면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외부연구진 장원 박사의 견해를 일부 요약한 것임.

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마을

(1) 지역사회 변화과정

① 마을의 역사와 인구변화

❑ 문성마을은 신라 후기에 쌓았다는 산성이 있는 백마산(白馬山 ; 383m)-일명 무학산(舞鶴山), 장방산, 성산(城山)-북쪽 산기슭에 형성된 마을로서 신라대에 기성현기(杞城縣基)가 있었음(포항시 북구 기계면 홈페이지 2016. 10. 25 검색)

- 원씨(元氏)가 들어와 살게 되면서 한때 원문동(元門洞)이라 불렸으며, 그 후 남양 홍씨(南陽洪氏) 집성촌이 되었음

❑ 문성마을은 자연마을로 번창하던 마을이 기계천의 범람으로 농토가 유실되고 쇠퇴해져갈 때 하늘에 문창성(文窓星)이 나타나 마을이 다시 번창하게 되어 마을 이름을 붙이게 됨

❑ 마을 북동쪽 들 가운데 고인돌이 있어 여기에 곁자란 팽나무(높이 12m, 가슴둘레 3. 3m, 300여 년생) 당산목에서 정월보름에 당제를 지내며 무학산 중턱에는 1962년 건립된 무학사가 있음

❑ 1960년대 극심한 가뭄으로 쇠락의 길을 가던 문성마을은 젊은 이장인 홍선표씨의 리더쉽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중 한 곳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마을의 번영을 이룸

❑ 문성마을은 총 면적의 67%가 산지이고 대다수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요 농작물은 논농사와 사과와 단감 등을 재배하고 있음

❑ 하지만 새마을운동의 번영기가 지나고 마을의 젊은 계층들이 경제활동을 위하여 도시로 유출되면서 마을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었음

- 현재 문성마을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70세 이상으로 나타나며 마을 내 빈집은 15호 이상으로 나타남

②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문성마을

❑ 문성마을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마을 중 한 곳으로 새마을운동이 번성하였던

1970~80년대에는 마을의 다양한 기능이 잘 이뤄진 지역임

❑ 문성마을은 미래를 내다보는 리더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의 시범마을로 지정됨

- 문성마을 새마을운동은 홍순락 면장, 홍선표 이장의 리더쉽에 의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거둠
- 홍선표 이장과 홍순락 면장은 기계천 마을 공동 지하수 개발과 양수장설치 공사로 천수답을 수리안전답으로 바꾸는데 성공하자 마을공동 사업(양수장 확대, 마을 안길 넓히기) 추진

❑ 1970년대 이전 마을길 가꾸기에 대한 관심을 문성마을의 이장(홍선표)과 면장(홍순락)이 갖고 있었으며, 지붕개량사업은 이석걸(전직 경찰)씨가 도지사에 요청하여 마을길 가꾸기 사업과 함께 진행됨

- 천석꾼인 홍순락 면장이 마을길 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200평의 땅을 마을에 기증함

❑ 이를 바탕으로 1970년대부터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잘사는 마을로 변모함

❑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 발상지 중 하나로 전국의 시장/군수회의를 개최했던 곳으로 박정희대통령순시 기념비(1993년 개축)와 새마을운동 발상 기념비, 문성양수장 설치 기념비가 동네 어귀에 있음

③ 새마을운동 이후 마을의 변화

❑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문성마을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가치를 아는 마을주민들의 공동체형성과 자부심등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있음

- 마을 인구의 도시로의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과거 마을 이장님과 면장님과 같은 젊은 리더가 없음

❑ 현재 문성마을의 마을 안길은 새마을운동 이후 변함이 없음

- 새마을운동이 활발하였던 70~80년대에는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사업들이 진행됐으나, 현재 마을 공동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음

❑ 현재 마을 중심에는 포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이 위치해

있어 포항시민은 물론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개도국에서 온 연수생들이 마을에 방문하고 있음

- 그러나 연수생 및 관광객들의 방문이 없을 경우에는 마을 인구가 적고 고령화로 인하여 평소에는 마을 주민들의 활발한 활동이 보이지 않음

❑ 문성마을은 현재 인구 고령화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젊은 인구가 거의 없고 노인 인구로 마을이 구성되어 마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음

❑ 문성마을 옆 봉좌마을은 별개의 마을로 국비지원사업을 위하여 봉좌마을이 '새마을'이라는 용어를 가져다 쓰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 새마을 권역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 받아 2016년 2월 준공

-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문성마을보다는 마을주민들의 의지와 협동이 만들어지는 주변 마을에서 마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나타남

(2) 사례 마을의 공동체적 특성

① 인구 및 농가 특성

❑ 문성마을은 비교적 규모가 있는 자연마을로 연령 분포를 보면 마을 주민 전체 인구는 170명이며 그 중 6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53% 정도로 비교적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편임

- 60세 이상 인구 90명 중 85명이 70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마을의 가구 수는 90호이며 그 중 40호가 단독가구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최근 5년 내 이사온 가구는 10가구로 모두 지역에 연고가 없는 가구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전체 가구 90가구 중 농가수는 5호로 대부분의 마을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지 않고 있는 특징을 보이며 농가 5호도 농산물 판매를 하지 않고 있음

- 마을의 인구 고령화와 단순 거주를 위한 외부 인구 유입으로 생업으로서의 농사는 짓고 있지 않고 있음
- 마을의 주민 중 절반 이상이 사과 감 등 과수를 제배하고 있으나 단순한 자급자족의 형태인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에 일부 가구들인 소규모 축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8 문성마을의 인구 및 농가 특성

구분	문성마을
마을취락구조	하나의 집촌
인구수 그 중 60세 이상	170명 90명
가구수 그 중 단독가구	90호 40호
비농가 수 혹은 농산물 판매 없는 농가	85호
농가의 주된 농사	사과, 감
축산·과수·시설재배 등 상업적 영농 농가	10호
최근 5년 이내 귀촌가구 수	10호

자료: 본 연구의 사례마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성마을도 마을 주민들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마을주민 대부분이 고령으로 농산물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농산물을 판매하기 보다는 기존의 과수에서 생산되는 사과 감 등을 자급자족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인구 고령화로 이미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② 마을 내 사회관계와 공동체 활동

❑ 문성마을은 남양 홍씨 성을 가진 집성마을로 마을 내 리더십 있는 젊은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단합하여 마을공동의 마을기금과 마을토지를 형성하여 마을재산으로 보유 중임

- 하지만 마을 공동재산은 마을 주민들의 토지매매로 인하여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민들은 마을의 공동재산은 앞으로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마을 내부에서의 비공식 주민모임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마을 주민들은 마을 내 애경사시 축(부)의금을 내거나 참석하며, 가깝고 비슷한 연령의 이웃끼리는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보임

❑ 마을 내부에서의 공식조직은 활발하게 운영되지만 마을 총회 등의 주민들의 모임은 그 활동이 미약한 편으로 나타남

- 노인회, 부인회 등 마을 내 주민들이 정기적 모임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 마을의 발전을 위한 총회는 1년에 3회 정도 열렸으며 주로 마을행사와 마을공동사업에 대하여 논의함

❑ 마을 내 농업관련 조직으로는 작목반이 있지만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2호에 불과함

❑ 마을공동시설로는 마을회관, 노인정, 정자 등이 있으며 마을주민들은 마을회관과 정자를 중요한 시설로 인식하고 있음

-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마을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업은 관관자원개발 사업으로 나타남

❑ 마을은 고령화로 인하여 향후 10년 이후에 인구는 줄어들고 빈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마을의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9 문성마을의 공동체 활동

구분		문성마을
공동재산	종류	마을공동재산
	형태	마을기금, 마을토지
	경향	점차 줄어들고 있음
비농업 조직	조직명	노인회, 부녀회
	활성화 유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청년회, 동계는 없음)
마을 총회	연간 개최횟수	3회/연
	중요안건(1, 2위)	행정연락사항 전달, 마을행사 논의
농업관련 조직화		작목반이 있지만 2가구만 참여
마을단위사업 추진경험		있음(새마을운동 사업), 현재는 옆마을인 봉좌마을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자료: 본 연구의 사례마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 그 이유로는 마을 내 위치한 새마을운동발상기념관의 입지로 인한 땅 값 상승을 기대하는 마을주민들이 집이나 땅을 팔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됨
- 마을의 유지를 위해서는 인구 증가와 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마을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음

③ 마을 외부와의 사회관계 패턴

❑ 문성마을의 경우 앞의 사례마을과는 다르게 주민행동에 있어서는 주로 포항시와 마을에서의 생활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적 활동, 여가활동, 농업경영 등 전반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중요한 장소로는 포항시와 마을이 가장 중요한 활동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

❑ 일상생활용품의 구입의 측면에서는 마을 내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포항시를 다음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의료기관의 이용 측면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 내와 옆마을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21)]

(3) 요약

① 마을의 쇠퇴라는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는 문성마을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새마을운동 발상지 중 하나인 포항 문성마을은 1970~80년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대라는 마을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마을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문성마을은 특별한 장소자산이나 지역특산물 등 지역의 경쟁력이 없는 보통의 농촌마을과 같이 쇠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것은 과거 성공적인 마을발전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기능이 약화되고 마을이 지속적인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마을이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

21) 문성마을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측면에 대한 설문 답변으로 마을 내와 옆마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신뢰성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음.

② 마을의 인구 규모와 구조의 중요성 재확인

❑ 문성마을은 과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마을 내 강력한 리더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협력하여 많은 발전을 이룩한 대표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점차 마을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

❑ 마을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인식하고 있는 포항시는 마을 중심에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을 만들어 관광자원으로서 문성마을을 널리 알려 마을 주민들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마을은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주민들의 경제활동도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젊은 인구의 경제활동을 위한 도시로의 유출과 그로 인한 마을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꼽을 수 있음

  • 인구 규모의 감소와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농업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마을 내에 마을의 발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젊은 인재가 사라지게 됨

❑ 문성마을은 마을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서 마을의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의 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킴

3. 사례지역 조사·분석 소결

❑ 마을은 가옥들의 집합체를 넘어 커뮤니티 혹은 공동체의 단위라는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마을의 지속가능성이란 커뮤니티로서의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말함

- 이는 개별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커뮤니티로부터 다양한 생활상의 욕구를 일정한 수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상의 욕구를 실현하는데 다른 주민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실존적 상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현되어야 하고 또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주민 각자에게 내면화되어 있어야 함
- 즉 공동체 형성 계기가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주민과 마을 혹은 커뮤니티 사이에 형성되어 있어야 함

❑ 본 연구의 조사 마을들 중에 위와 같은 조건에 근접한 사례 마을은 경주의 양동마을이라고 판단됨

- 양동 마을은 도시근교마을에 가까울 정도로 인구규모가 비교적 큰 마을이긴 하지만, 인구의 숫자는 상기의 같은 커뮤니티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음
- 주민 숫자는 많은데 공동체 해체 위기에 처해 있는 도시근교마을 사례들에서 이를 알 수 있으며, 보다 중요한 요인은 양동 마을의 경우 주민들 사이에 공동체 형성 계기가 뚜렷하다는 점임
- 역사적 전통, 공동체 문화, 경관자원 등 마을이 가진 유무형의 자원들이 대부분 주민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생계 자원이 되고, 또 그 생계자원의 가치가 유지되거나 더욱 고양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실존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
- 이것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 두터운 관계망 형성에 바탕이 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실존적 상황에 대한 인식은 1970~80년대에는 현재보다 약했다고 볼 수 있고, 마을 자원들이 경제적 가치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공유되고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다른 조사 마을들은 상호면식을 바탕으로 한 일상적 접촉, 여가시간을 함께 하는 등의 사회적 관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은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 다시 말해 마을은 근린 정도의 수준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주민들 다수는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넘어 다른 공동체 형성 계기를 공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다양한 기능을 가진 사회집단 형성이 미약하고 전체적으로 마을 기능의 약화로 표출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례마을들은 정주성 위기를 이미 겪고 있거나, 조만간 위기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정주성의 위기란 생활 및 생산기반시설 정비 부실, 자연환경 관리 미흡이 진행되고, 이것이 주민들의 심리 상태와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주민들 사이에 연대의식은 더욱 악화되는 상태를 말함
- 물론 이의 근본 원인은 과소화, 노령화라고 할 수 있으나 사회적 고립감 해소 이외의 공동체 지향 혹은 태도는 주민들 사이에 공유되는 정도가 약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지역의 공간구조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마을의 자원들이 주민 다수에게 공동체 형성을 하는데 강력한 계기가 되는 마을의 경우 정주성 약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양동마을은 이런 유형의 극단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외 농산물가공, 농촌관광, 고부가가치농산물생산 등의 방식으로 마을공동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들도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 문제는 이런 유형의 마을들이 결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임
- 농림부의 마을만들기사업이 육성하고자 하는 마을의 수가 5,000개 마을인데 이 사업들이 다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농촌마을의 일부에 불과하며 더구나 앞으로 국가재정 악화가 예상되어 이 목표만큼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불투명함

- 결국 농촌지역 대부분은 근린 정도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전반적으로 정주성 위기를 겪는 소규모 마을들이 고립 분산되어 있는 공간구조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국토의 상당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토관리 상의 문제지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

CHAPTER 5

결론 및 향후 과제

01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161

02 미래국토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정책과 과제 166

03 연구의 한계 172

CHAPTER 5

결론 및 향후 과제

1.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

- ❑ 지금까지 마을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해외 사례, 그리고 사례지역분석 등을 통해 이 연구가 처음부터 견지했던 질문, 즉 왜 어떤 마을은 수백년이 지속되는 동안 마을공동체를 유지하면서 현대 사회에서도 건재한가? 다시 말해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수많은 농촌마을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점차 쇠퇴해 가고 있는데 일부 마을들이 그 명맥을 이어오는 지속가능성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고 이러한 질문은 마을이 국토의 가장 기초적 셀임과 동시에 주민이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 단위임을 고려할 때 향후 미래의 국토 정책에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임
- ❑ 이는 마을이 주민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지역커뮤니티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을 때 마을의 지속성은 담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 ❑ 이러한 차원에서 마을조사는 첫째, 주민구성의 동질성 또는 이질성을 연령 구조나 외지인의 유입상황, 영농형태의 변화 추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둘째, 마을의 공동체성에 관해서는 마을 내에서의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접촉하는 공동재산, 마을 내 각종 하위조직활동, 총회 등을 통해 살펴보고, 셋째, 마을 외부와의 사회적 관계의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 목적지를 파악하여 그곳에서의 공간활동을 살펴보았음

(1) 마을의 공동체성과 기능성에 관하여

- ❑ 4장 말미에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놓은 바 있듯이 일부 마을은 주민공동체성이 견실

하게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 경제생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공동 대처하므로 커뮤니티로서의 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있었지만 많은 마을들이 전통적 마을공간 안에서의 접촉과 활동만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마을의 고령화와 쇠퇴화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볼 수 있었음

❑ 사례마을 6 곳은 각각의 입지적 여건이나 마을형성의 역사 전통, 시대조류에 부응 정도 등에 따라 마을공동체가 나타내는 특성과 기능이 다름을 알 수 있었음

- 경주 양동마을, 영암 구림마을은 오랜 종족공동체로서의 역사성과 우수한 장소자산을 보유한 면에서는 유사한 면이 있었으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측면에서는 공동체의 다이내믹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다시 말해 양동마을은 주민 자체적 의사결정에 따라 마을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현대사회 변화에 비교적 능동적으로 적응해 가고 있는데 반해 구림마을의 경우 관의 지나친 개입으로 오히려 전통적인 마을공동체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분절되거나 무력화되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음
- 홍성 홍동면 마을, 보은 하얀민들레마을은 마을 쇠락화의 시대적 흐름에 대해 마을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강력하게 작용하여 오히려 마을의 공동체성을 지속시킨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과거 농촌의 1차적 연에 의한 게마인샤프트적인 공동체와 게젤샤프트적인 공동체가 혼재하고 있어서 향후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함양봉전마을, 포항문성마을의 경우 장소자산과 마을공동체를 유지할만한 정신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로서 전자는 마을접근성 측면에서 불편한 편이고 후자는 양호한 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전마을은 장소자산과 선비정신이라는 소프트 자산을 매개로 마을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관민 파트너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해 문성마을의 경우 과거의 역사적 가치, 즉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의 평판을 주민공동체가 이어서 활성화하기에는 너무 많이 고령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이 있지만 마을주민과의 교호작용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마을의 취락 및 공간성에 관하여

❑ 마을의 공동체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취락과 공간성에 관해 사례마을 6곳의 특성을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묶어 볼 수 있음

- 즉 전통적 마을공간의 외형을 비교적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마을과 시대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한 마을이 그것임

❑ 전통적 취락 및 공간 사례

- 시대변화에 비교적 무관하게 전통적 취락 및 공간구조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마을의 대표적 사례는 경주 양동마을이며, 양동마을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는 큰 아스팔트 도로인데 비해 막상 마을 안으로 접어 들어가면 이조시대의 자연스런 길을 바로 접할 수 있고,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구릉, 천, 하천 옆 길, 주택의 위치 등이 거의 변하지 않은 채 보존되고 있음
- 포항 문성마을의 경우도 비교적 전통적 마을공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편이며,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안길을 확장하고 그 길 옆으로 주택이 들어서 있는 모습은 70년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모습임

❑ 취락 및 마을공간의 변화가 큰 사례

- 구림마을은 현재까지는 전통적 공간구조와 현대적 변화의 물결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머지않아 전통적 공간구조가 쇠락해질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이미 마을 안에 아파트(5층)가 들어서고 있고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인해 도기박물관, 군립미술관, 그리고 96채의 한옥마을 조성 사업 등으로 전통공간이 희미해져가고 있는 상태임
- 함양봉전마을 역시 뛰어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선비문화사업, 권역사업, 황토펜션사업 등 체험마을 지정에 따라 도로망이나 마을공간구조가 일신하고 있어서 전통공간의 모습은 점차 희미해질 것으로 보임
- 하얀민들레마을의 경우는 마을공공공간이 마을리더에 의해 오히려 활성화된 사

례로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노인회관 등이 정부지원을 받아 쾌적하게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취락구조는 거의 변화가 없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거주 가옥수가 적고 이동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홍동면의 경우는 취락구조 면에서 큰 변화는 없으나 전통적 공공공간이 마을문고, 마을독서실, 마을카페 등 마을비지니스와 연계되어 변화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러한 공간요소들이 마을공동체성에 어떻게 작동될 것인지는 좀 더 깊이 있는 관찰이 필요함

❑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 장에서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을관련 정책에 관한 시사점과 미래 국토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대안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정책적 시사점

❑ 먼저, 국토관리는 영역적 접근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과거의 정주권사업, 낙후지역 사업, 또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읍·면소재지활성화 사업 등의 정부사업은 소득증대사업도 포함되지만 농촌지역 서비스공급의 개선에 더 역점을 두는 사업임
- 이 정책들은 필요한 주민생활서비스를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그리고 정주의지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토의 공백 지대 확산을 억제하고자 하는 국토관리 목표도 바탕에 깔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생활욕구는 다면화되는 가운데 공공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는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삶의 질과 정주의지 제고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무엇보다도 서비스공급권이란 공급자와 원자화된 서비스 수요자의 연결 체제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공동체 기능을 발휘하면서 국토관리 효과를 창출할지는 의문임

❑ 이와 관련하여 3장 일본의 사례연구에서 언급했던 집락연합을 통한 새로운 농촌커

뮤니티 육성 정책을 우리나라 과소농촌마을과 연계하여 정책화하는 문제를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사례조사를 통해 나타난 집락연합커뮤니티 육성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22)]

- 기존 다수 집단과 다른 행동양식을 가진 인구집단이 조만간 농촌지역의 주류집단으로 등장할 것이며, 현 시점은 그 임계점에 임박해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추진의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농촌지역의 사례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농촌지역 주민들은 구매활동을 비롯해 매우 제한된 범위의 활동만 그것도 비정기적으로 상위 중심지로 연결되는 광역적 관계망이 나타나고 생활세계의 대부분은 자연마을 범위에 한정되어 있음
- 같은 행정리의 옆마을조차도 주민들의 활동공간 심지어 인지공간 범위로 포함되지 않고 있음
- 또한 현재의 저출산 추세와 국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공동체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인구의 적정 규모 확보는 확대된 영역의 새로운 커뮤니티 조성 방법이 설득력 있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음
- 일본도 과거의 집락단위의 과소화 정책 그리고 집락 혹은 주거 이전을 통한 집락재편 정책 대신에 집락연합커뮤니티 육성정책으로 선회한 것도 인구추세와 재정여건을 감안한 조치였음(財團法人農村開發企劃委員會, 2007, pp. 3-4)

❑ 아울러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함

- 본 연구의 구림지역 사례에서 본 것처럼 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이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또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를 소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치역량까지 와해시키는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권역단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커뮤니티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함

22) "집락연합커뮤니티"는 일본 정책명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지만 이를 우리나라 마을단위에 적용하기 위해서 "마을연합커뮤니티", 또는 "마을연합공동체" 등의 이름으로 정책화할 수도 있을 것임.

2. 미래국토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정책과 과제

1) 미래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방안 모색

❑ 미래 농촌공간의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비전 마련 필요

- 인구감소, 고령화, 교통·통신 발달 등 미래 메가트렌드가 농촌 마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국토의 셀(cell)로서 지속가능한 마을 보전·발전 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본 연구의 사례지역 분석에서도, 문헌 연구에서도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마을단위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 그리고 이로 인한 좀 더 확대된 영역의 커뮤니티 형성이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대비한 마을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미리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생활권 계층 개념의 생활서비스 지원 체계 모색

- 교통·통신 발달에 따라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넘어 광역화 되는 다차원적 서비스 수요를 고려한 생활서비스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오형은·김정연, 2014)
- 일상생활의 공간적 범주(기초인프라, 교육, 문화, 일자리, 의료복지 서비스 등이 제공)가 인근 도시–농촌 중심지–마을로 중심성의 포섭원리(nest principle)가 자연스럽게 연계, 발전될 수 있도록 생활권 계층간 얼라이언스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국토의 환경적 기능과 마을의 다원적 가치와의 조화된 미래 국토계획의 마련

-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5차 국토종합계획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계획기조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국토의 환경적 기능(농업생산기능, 문화·여가 관광 기능, 자연생태보전기능 등)이 좀 더 구체화되어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마을의 다원적 가치(공동체를 통한 힐링과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 등)가 국토계획 속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도·농이 서로 조화되는 통합적 미래국토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2) 마을 정주공간 개선 및 관리방안

❑ 인구감소, 고령화 등에 따라 공동화(또는 희박지역화)되는 농촌 마을 정주공간 관리방안 모색

- 국내 사례지역 분석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일상에서 접촉하는 주민들의 마을내적 및 외적 활동공간은 점차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음
- 앞으로 교통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따라 주민들 접근이 좋은 읍·면 중심지를 생활서비스 거점 공간화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읍·면 중심지의 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교통접근성이 좋은 도시광역권 주변의 마을을 생활하기 좋은 생활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

- 농촌마을에 남아 있는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유니버설디자인과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드는 제로에너지하우스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귀농, 귀촌 유입인구 및 다문화 가정의 생활상을 고려하는 다양한 농촌마을 수요에 대응한 신주거 및 마을공간구조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저성장 뉴노멀시대에 따른 농촌마을 공공서비스 공급방안 마련

- 향후 농촌마을, 특히 도시근교 농촌마을의 경우 대도시 교통접근성이 오지마을에 비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쇠퇴 가능성보다는 힐링기능이나 노인을 위한 정주공간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농촌마을에도 다양한 공공서비스 공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특히 마을특성화에 따라 건강의료복지마을이나 맞춤형 교통(DRT) 체계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초고속화, 디지털화에 따라 재편될 농촌 마을공간구조 연구 및 지원방안 마련 필요

3) 마을 간의 생활권 얼라이언스(Alliance) 강화

❑ 마을 연합 커뮤니티(마을내, 마을간, 도시농촌간) 구성 운영

-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의 자연마을은 일부는 필연적으로 쇠퇴, 소멸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마을주민의 활동공간 및 공동체 인식공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마을내, 마을간, 또는 도시농촌간 일종의 연합커뮤니티 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이런 차원에서 일본의 집락연합커뮤니티 육성 정책을 우리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마을을 연계한 소생활권 단위의 주민활동 추진과 의료·교육·쇼핑 등 주민생활서비스 시설 공유 및 보완할 필요가 있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활동과 교류 활성화,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함

❑ 마을을 연계한 권역단위 활동단위 거버넌스 구축

- 일본 교토부 북부지역 시정촌 연대 및 '생명의 마을' 사업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쇠퇴마을(일본의 경우는 한계마을로 칭해짐) 간의 권역화를 통해 지역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 마을의 기반정비, 생활환경, 영농기반, 조수피해 지원, 정주환경 정비 등을 도모
- 또한 마을 인재 양성이 마을활성화에 선결조건이지만 농촌마을의 젊은이들은 외지로 나가 있는 반면 노인들이 남아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여 앞으로 마을에 대한 인력지원, 인재육성센터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마을자체 인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군과 마을을 연결시켜서 마을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기반한 발전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중간조직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마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고속도로와 철도 등 대중교통 개선 필요

- 경주 양동마을처럼 근교 지역 마을은 비교적 도시접근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마을연합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 그러나 도시나 고속도로 접근성이 불리한 지역의 경우 마을쇠퇴현상의 흐름을 자체적으로 헤쳐 나가기는 입지적 여건상 여의치 못한 편임
- 특히 과소화 농촌마을에서 노인들이 이동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 접근성을 향상시킬 대중교통망의 개선과 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함

4) 마을의 지속가능한 교육·일자리 시스템 마련

❑ 한국인에게 주거지 선택 시 가장 우선하는 변수가 직장과 자녀 교육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전통적 마을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데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온 것은 양동마을이나 구림마을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임

- 이런 점에서 학교를 마을의 중심, 거점으로 재생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농촌마을의 과소화로 인해 폐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 폐교를 봉전마을 사례처럼 마을의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마을 작은 도서관, 서점 등을 살리고, 마을 사랑방, 교류의 장으로 지원

❑ 농촌마을의 고유역사문화, 생태환경자원 등을 활용한 특화된 녹색일자리 창출

- 3장 일본의 카네야마 사례나 4장의 양동마을, 구림마을 같은 경우처럼 공동체가 살아 있고 강력한 지역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역자산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물론 이러한 일자리 창출은 마을 자체의 특성, 예컨대 입지적 여건, 공동체적 특성, 인구·사회·문화적 전통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마을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이어야 함
- 예컨대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산림치유해설사, 생태농업자, 마을복지사라든가 해외의 에코뮤지엄, 그린 Gym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표 5-1> 참조)

❑ 이외에도 농촌 마을의 기본 기능으로 식량 및 에너지 생산공간으로서의 녹색생산의 부가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자족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마을단위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협력적 체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표 5-1 그린 짐(Green Gym) 프로그램과 효과

○ 그린 짐은 1977년 윌리엄 버드가 창시하였다. 버드는 전원 지역을 건강 자원의 하나로 지지한 일반 개업의이자 영국의 환경단체인 내추럴 잉글랜드의 자문으로도 활동했다. 그린 짐은 그룹 세션으로 구성되어 주로 주말에 실시되는 지원자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은 벌채하고, 나무를 심고, 관목지를 청소하고, 등산로를 조성하는가 하면, 같이 모여 운동을 하고 사회적 교류를 한다(www2.btcv.uk/display/greengym). 영국에는 12개의 그린 짐 프로젝트가 운영 중이고 참가자는 1000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장애자, 휴식이 필요한 간병인, 직장 스트레스가 심한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다. ○ 그린 짐 프로그램은 야외 활동의 건강 혜택을 강조한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개념과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가령, 환경보전 자원운동, 유명 자선단체를 통해 커뮤니티를 위해 시행된 환경 활동, 환경보전 자원운동 영국 트러스트(BTCV), 신체활동 촉진을 위한 공중보건 기관인 헬스 워크(Health Walk) 등이 포함된다. ○ 그린 짐 프로그램은 지역 환경 건강, 지역 커뮤니티 건강, 커뮤니티 주민의 건강 간의 상관관계에 중점을 두고, 옥스퍼드 브룩 대학의 일련의 보고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평가되어 왔다(Reynolds 2002 참조). 혜택으로는 동지애 및 사회적 자본 개발, 주말의 그린 짐 세션 기간뿐 아니라 주 중 기간 동안에도 연속적으로 신체활동의 증가, 정신건강, 웰빙, 삶의 질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또한 전체 커뮤니티가 누릴 수 있는 환경 혜택도 빼놓을 수 없다.

자료: Andrew L. Dannenberg 외, 2011, Making Healtuy Places: Designing & Building for Health, Well-being, & Sustainability, ISLAND PRESS, p. 240.

5) "마을기본법" 제정과 지원책 마련

❑ 마을 보전과 마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본법」 제정 지원

-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보전과 마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주민들의 참여 기반 조성 필요
- 2015년 4월부터 마을연구자들과 마을 현지활동가들 중심으로 '마을 선언'과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화 과정 추진되어옴
- '마을공동체 기본법'인가 '마을공동체 지원법'인가에 대한 논의와 토론 등을 통해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2016. 11. 21,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등)
- 미래국토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보전 관점에서 의견수렴과 지원방안 등 모색 필요

6) 마을 활성화를 위한 외부활동가의 육성과 활동공간의 마련

❑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주민과 지방정부 간 중간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활용과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구축

- 마을이 마을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은 주민의 몫이지만 여기엔 마을 내에 뛰어난 리더와 그 리더를 신뢰하는 주민이 서로 간에 공동의식과 유대감을 가질 때 가능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마을의 인적 구성면에서 계속 노령화되고 있고, 젊은 세대는 도시지역에 나가 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로서의 가치공유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일부 귀농귀촌 인구가 마을 활성화의 촉진자(actor, facilitator) 역할을 자원하여 하기도 하지만 주민조직화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 마을과 마을, 정부와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조직 육성과 활동공간 마련

- 특히 전통적 자연마을이나 행정리 단위의 마을이 자생력을 갖고 경제적 지속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고, 현실적으로 농촌마을의 쇠퇴 현상도 향후에 급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과 마을이 연계한 사업이 필요하게 될 것인 바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나 활동가가 필요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마을연계사업을 조력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나 조직을 발굴, 육성하여 마을의 단위사업이나 마을연합공동사업에 이들을 투입,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계획과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3. 연구의 한계

- ❑ 이 연구에서는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주민의 공동체성과 마을 지리공간성의 두 차원에서 찾아보고자 하였으나 과연 이 두 차원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마을이 마을되게 존속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였음
- ❑ 결국 주민의 공동체성은 마을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것이고 이러한 관계성이 주민의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마을 외형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하는, 즉 사회와 공간의 관계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함
- ❑ 이러한 부족함은 향후 보다 치밀한 연구설계 하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문헌
REFERENCE

【 인용문헌 】

강동진 외. 2012. 양동마을 방문문화만들기. 경주시.

강동진, 2011, 황금빛 양동마을, 그 풍경 속에 담긴 삶, 아우리.

강상인. 2015. UN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이행, KEI 포커스 제3권 제1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구자인, 2016, 보령시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보령시.

국립기상연구소. 2012. 전지구 기후변화 보고서 2012. 국립기상연구소.

국토관리청. 1999. 과소지역 등의 중심집락 진흥과 집락정비에 관한 조사보고서.

국토교통부. 2015. 미래 국토발전 전략 수립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10.6. Grand Vision 국토 2040

김기홍, 2015. 홍동유기농업의 형성과 변천, 충남연구원.

김기홍. 2014. 마을의 재발견: 작은 정치·경제·복지로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올림.

김동윤·이경록. 2015. '새마을운동과의 비교를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천전략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7(5): 23-58.

김선직. 2009. 마을만들기의 전략적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72-75.

김성진·박주영. 2013.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의 사례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영주·박남희. 2012.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관점에서 본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133-146.

김정섭. 2013. 농촌지역사회의 자율성과 협동조합. 농촌사회. 23(2): 173-223

김현수. 2013. '공간계획으로서의 마을계획 도입방안'. 건축과 도시공간. 11(Autumn 2013): 18-29.

김현호. 2013.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무부. 1972. 새마을총람
내무부. 1984. 새마을운동
반영운 외. 2010.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기반 주민주도형 농촌마을종합계획 - 보은군 회인면 부수권역 '하얀민들레 생태마을'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16(4): 157-169. 한국농촌계획학회.
배명순. 2016. 회인면을 가다. 충북 Issue & Trend, 23: 48-51. 충북연구원.
배연정 외. 2013. 농촌마을 정주환경분석을 통한 과소마을 임계규모 결정지표 개발. 농촌계획. 19(1): 109-122.
변필성 외. 2015.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새마을운동중앙회. 1998. 한국의 새마을운동
서태성. 2002.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연구: 일본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pp. 15-16.
성주인 외. 2015.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2014. 농촌지역 한계마을 활성화 전략, 한국지역개발학회 춘계종합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소진광 외. 2016. 지역개발모델 구축 및 LH 참여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진광·김선희. 2010.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공간구조 개편 연구. 국토연구원.
안전행정부. 2013. 마을공동체관련 주요 정책 현황 내부자료.
양원식·최수영. 201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공동소득사업 성과분석. 농촌계획. 19-1호.
양진영. 2007. 韓國과 日本의 마을만들기 比較分析에 한 硏究,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정학. 2011. 경주 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18(4): 793-824.
오형은·김정연. 2014. 농촌공간의 재구조화방안. 미래 농촌의 문화: '공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정미. 2014. 충남 기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Ⅰ. 충남발전연구원.
이병기·이석주·박윤호. 2009. 농촌 정주기반 실태와 개선과제: 농촌 공동화 문제를 중심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이선우 외. 2013. 마을공동체 발전사업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이승민. 2015. 일본의 리노베이션 마을만들기 정책과 유휴부동산 활용, 국토, 407(2015. 9): 98-103.

이용우. 김선희 외. 2014. 미래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I). 국토연구원.
임경수. 2015. 한국형 마을만들기의 전개, 도시계획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 pp. 225-266.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보성각.
임상연·변필성. 2014. 일본의 과소지역 정책동향과 시사점 : 작은 거점 만들기와 향토집락생활권 형성을 중심으로. 국토정책 Brief. 2014. 12. 8, p. 2.
장대익. 2006. 2014. 지식인마을에 가다. 김영사
장원. 2016. 함양 봉전마을의 현황과 발전전략
정근식 외, 2003. 구림연구 마을공동체의 구조와 변동. 호남문화연구총서. 경인문화사
조석주. 2013. 새마을운동 재조명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영재 외, 2014, 농촌마을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마을재편 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차미숙 외. 2015. 7. 27.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국토정책 Brief』국토연구원.
차미숙. 2016. 2. 29.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지역공간구조 재편.『국토정책 Brief』국토연구원.
최은영 외. 2014. GIS에 기반한 충청남도 농어촌마을의 변화 분석(2005~2010). 충남발전연구원.
최인수·전대욱. 2014.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재정 지원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전대욱. 2013. 경계지역 마을만들기 추진모형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통계청. 2011. 2010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2013. 2013 고령자 통계.
통계청. 2014. 2013년 출생사망통계(잠정)
통계청. 2016a. 2015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2016b. 2015 인구주택총조사.
한국은행. 2016. 11. 8. 고령층 소비현황과 시사점.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 마을공동체 관련 공모형 지자체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마을공동체 이슈프리즘. 2: 1-9.
한국지역진흥재단·한국정책분석평가원. 2015. 마을기업 실태조사 및 지원 체계화 방안연구.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2016. 마을기본법(안). 2016년 11월 21일 입법토론회 자료.
행정자치부. 함께 만드는 마을정원, 희망과 행복을 디자인해요: 8개 지자체 국민디자인단 구성 완료,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탄력.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6년 2월 5일.

홍성흡, 2001, 역사마을만들기의 지역정치: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구림마을의 사례, 호남문화연구. 28집: 1-18.

Andrew L. Dannenberg 외, 2011, Making Healthy Places: Designing & Building for Health, Well-being, & Sustainability, ISLAND PRESS

Kim, S. & Lee, S.(2007). Community making model initiated by local peopl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Research Report.

Liepins, R., 2000a, New Energies for an old idea: reworking approaches to 'community' in contemporary rural studies, Journal of Rural Studies 16, 23~35.

Liepins, R., 2000b, Exploring rurality through 'community': discourse, practices and spaces shaping Australian and New Zealand rural 'communities', Journal of Rural Studies, 16, 325~341.

Yang, J., Lee, M., & Kim, K.(2007). A comparative study on participatory Maeulmandeulgi(Machizukuri) in Korea and Japan -focused on the Bukgu,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Setagayagu, Tokyo-. Proceeding of 2007 Autumn Annual Conference of Korea Planners Association, 899-909, p. 900.

UN. 2009. MEAD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國土交通省 都市局, 2014.8, 健康·醫療·福祉 마을만들기 推進가이드라인(기술적 조언)

國土交通省, 2014.7, 国土のグラソドデザイソ2050.

大野晃, 1991, "山村の高齢化と限界集落", 経済 7: 55-71.

長谷川昭彦, 2000, "農村コミュニティの現状," 建築雜誌, 115(1461): 30-33

財團法人農村開發企劃委員會, 2007, 集落連合: "强い"農村コミュニテイ形成のために, 農林水山省農村振興局企劃部農村政策課農村整備總合調整室.

中條曉仁, 2003, 過疎山村における高齢者の生活維持メカニズム, 地理學評論 76(13): 979-1000.

[법령정보]

일본「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법조치법(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2000)」

일본 카네야 도시 거리 경관 조례

[인터넷 자료]

교토 생명마을 홈페이지 http://kyotomura.jp/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theme.archives.go.kr/next/semaul/viewMain.do#body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www.raise.go.kr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www.city.go.kr

동아일보 2012월 11월 22일 기사 '주민이 지역발전 주체'
(http://news.donga.com/3/all/20121122/51018352/1(2016.10.1. 검색))

두산백과사전 두디피아 http://www.doopedia.co.kr/

위키피디아(WIKIPEDIA) 영문홈페이지 https://en.wikipedia.org/wiki/Main_Page

이용교, 2016, "마을공동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72931(2016.09.10 검색))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www.invil.org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app/index.do

통계청 보도자료(2011.12.7.) 장래인구추계: 2010-2060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홈페이지 http://www.pohang.go.kr/gigye/introduction/pre/history/?
boardTheme=common&skw=&mode=read&idx=56&page=1

한국어원학회 http://www.etymon.kr/

【관련문헌】

강동진 외. 2011. 제도화에 따른 경주 양동 마을의 정주패턴 및 의식변화. 국토계획. 46(5): 93-111.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015. 미래 국토발전 전략 수립방안 연구.

김영주·박남희. 2012.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관점에서 본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133-146.

김정숙·강영택. 2012. 농촌 지역공동체 지속성을 위한 주체형성과정: 풀무학교 전공부 졸업생의 교육경험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8(2): 51-82.

다무라 아키라 지음. 강혜정 옮김. 마을만들기의 발상. 2005. 소화.

마하트마 K. 간디. 2011.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녹색평론사.
박경철. 2014. 한계마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농촌사회. 24(2): 7-59.
성주인 외. 2013. 해외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정책동향과 시사점 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외. 2007.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1/2차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민근. 2004. 경관에 의한 자주적 지역활성화: 일본 山形縣 金山町 경관 마찌즈쿠리(まちづくり)를 사례로. 문화정책논총. 16: 217-242.
오하라 가즈오키 비음. 김현정 옮김. 마을은 보물로 가득차 있다. 희망제작소 뿌리 총서. 아르케.
윤미숙. 2015. 춤추는 마을 만들기, 동피랑 벽화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 남해의 봄날.
이용우. 2016.7.12. 미래 국토전망과 정책 시사점. 제 17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2). 미래 농촌 정주공간의 진단과 정책방향.
인천발전연구원. 2013.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인천광역시.
임경수. 2012.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 차원에서 본 새마을 운동. 지방행정연구. 26(3)(통권90호): 27-5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인수·최대욱. 201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진형 행·재정적 지원체계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경희·이재훈·김병. 2014. 일본 '한계취락(限界聚落)'의 인구감소 대책방안 사례연구. 한국주거학회. 25(3): 35-43.
정광섭. 2009. 지역사회개발과 국제화. 우용출판사.
정도채. 2016.7.12. 2040 농촌 전망과 정책방향. 제17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2). 미래 농촌 정주공간의 진단과 정책방향.
정상호. 2004. 지방시대 지역사회개발론. 박영사.
정석호·정환영. 2012. 일본의 지역주민에 의한 도농교류 : 일본 야마가타현 카네야마읍 타니구치 지구를 사례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2(1): 133-142
정진국. 2010. 유럽의 책마을을 가다. 생각의 나무.
정진원, 1991, 한국의 자연촌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조병구 편. 2015. 고령화·저성장 시대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원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5-05-01.

조석주. 2014. ‘새마을운동 재조명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 개발연구. 10: 161-200. 경운대학교새마을연구소.

조영재 외. 2013. 과소화 고령화에 대응한 '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차미숙. 2016. 10. 24. 인구감소시대,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체재·교유인구 증대전략.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2008, 지역마을공동체만들기를 통한 자립방안 모색: 충남 홍성군 홍동 풀무마을을 중심으로.

폴메티시, 장수찬 옮김. 2015. 마을만들기를 위해 알아야 할 28가지. 충남발전연구원 현장총서 002.

하현상. 2015. 중앙정부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의 현재와 나아갈 길. 제1차 공동체 발전 국민포럼 자료집.

함양군. 제54회 통계연보 등, 함양군, 2014. 12.

Tae, Y. & Park, S. 2010, Characteristics of Maeulmandeulgi in Korea based on the content analysis of related local ordinances, 2000-2009,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6(7): 175-182.

[인터넷 자료]

http://www.city.yufu.oita.jp.k.nr.hp.transer.com

http://www.pref.kyoto.jp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SUMMARY

A Study on Sustainable Village for the National Territory Development

Kim Sun Hee, Cha Eunhye,
Lim Kyoungsoo, Joh Young Kug, Yoon hyun wi, Kim Myunghan

Many rural communities have been collapsed because of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However, there still are some villages that are maintaining their community for hundreds of years. What makes these communities sustainable? What are their characteristics? Answering these questions can confirm the fact that village is a fundamental cell that consists national territory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basic unit of people's ordinary life.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village and its importance give guidance to decision makers regarding future national territorial policy.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duce policy implication of village's sustainability in order for national territory development. Followings are the detailed tasks to achieve it:

1) Define 'village' and analyze its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 process

2) Analyze national and oversea policies regarding village and deduce implication
3) Identify the villages for case study, which are highly regarded as sustainable village and analyze their functional characteristics

The target villages for the case study are six villages in South Korea including Yangdong village, Gurim village, Hongdong-myeon, White Dandelion Eco-village, Bongjeon village, and Munseong village. First,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including homogeneity or heterogeneity of the residents, age structure, influx of the population, and farming form. Second, level of community spirit was evaluated by using indicators such as village's common property that can be accessed on a daily basis, small group activities in the village, and general meetings. Third, in oder to identify social network pattern with outside of the village, major activity spots and characteristics of such activity were identified.

The result of the study and policy implications are as in the following:

1. The meaning of a village is more than a group of housings. It is regarded as a community or a unit of community. Sustainability of village means an ability to perform basic function as community.
2. Among six target villages, Yangdong village in Gyeongju is a typical Korean village. Its tangible and intangible resources(historical tradition, community's culture, landscape resources, etc.) are commonly recognized by the residents and their value is maintained. Moreover, these resources function as practical resources for living. Residents cooperate, coordinate and build social network while using these resources.

- Villages other than Yangdong village, residents build social network by daily contact and spending time with each other based on mutual acquaintance. However, it is hard to identify their networks as a community, because the network is limited in terms of function.
- Most of rural villages function as neighborhood. Small villages that are in danger of disappearing because of low settlement, will have isolated and scattered spacial structure. This will be a major issue to national territory management in the future.

3 The government's territory management projects such as 'Settlement Project', 'Depressed Area Project,' 'Vitalizing Eup(town) and Myeon (township)' are focusing on improvement of public service provision in the rural area.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se projects are questionable in term of improving resident's quality of live and their willingness to settle.

- Especially, as people's needs are specified and diversified, it is hard to meet everyone's needs through current public service provision.
- Above all, service provision is mere connection of supplier and scattered demander, not a community that can manage territory.

4 In the future, where low birth rate, aging population, and low economic growth is expected, major group in the rural village will behave differently to current major group. In such circumstance, 'community-alliance policy' is needed rather than reorganizing community by residential migration.

- Japan has been managing rural community with 'community-alliance policy' that ties multiple communities based on resident's percep-

tion on space and their activities. This policy contribute to build 'strong rural community' that can maintain life environment, develop industry, and improve welfare themselves.

- Also, it is needed to reconsider the process of current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5 Followings are the policy suggestions and projects for sustainable village in order to achieve future territorial development.

- Strategies to develop sustainable village for future territorial development
- Strategies to improve and manage village's residential area
- Strengthening life zone cooperation among villages
- Provide sustainable education and employment system
- Enact 'Village Act' and provide support strategies
- Nurture institutes to vitalize villages and provide space for activities

Key words: sustainable village, territory development, village's structural characteristics, villag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부 록
APPENDIX

1. 설문조사 양식(영암 구림마을 사례)

영암 구림마을 이장님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원에서는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연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본 조사는 구림마을의 이장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마을의 공동체활동과 공동시설, 마을단위의 사업, 마을의 전망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장소 이용 실태 등)를 실시하여 마을을 지속가능하게 한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국토의 기본 셀 단위로서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국토연구원 드림

□ 마을 일반사항

주 소	_____ 군 _____ 면 _____리
교통조건	○ 마을내 버스 운행 횟수 : 1일 회
인구 및 가구	인구 _____명 / 가구 _____ 호(그 중 단독가구 ___호)
	최근 5년내 마을로 이사 온 가구수 _____ 호 이주가구의 특성: □ 마을 출신 _____호 □ 연고 없음 _____호
	□ 농가 _____호(그 중 농산물판매가 없는 농가 _____호) □ 비농가 _____호
연령 분포	□ 9세 이하 ___명 □ 10대 _____명 □ 20대 _____명 □ 30대 ____명 □ 40대 _____ 명 □ 50대 _____명 □ 60대 _____명 □ 70세 이상 _____명
농업경영	※ 각 농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농업 종류를 기준으로 구분 □ 미작 _____호 □ 밭작물 _____호 □ 과수 _____호 □ 시설작물 _____호 □ 축산 _____호 □ 기타 _____호
	마을의 대표적인 작물은? ( ) ※ 대표적인 작물이란 마을내 여러 농가에서 판매용으로 생산하는 작물을 말함
취락구조	○ 우리 마을은 하나의 마을로 이루어졌다 예 □ , 아니오 □ ○ 우리 마을은 몇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
	자연마을 1: 명칭 _____마을, 호수 _____호 자연마을 2: 명칭 _____마을, 호수 _____호 자연마을 3: 명칭 _____마을, 호수 _____호 자연마을 4: 명칭 _____마을, 호수 _____호
공동재산	○ 마을 공동재산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공동재산이 있다면 어떤 종류 입니까?(해당되는 경우 모두 표시) 마을전체 기금 □ 부인회 기금 □ 노인회 기금 □ 기타기금(기금) □ 마을임야 □ 마을토지 □ 기타 공동재산( ) □
	○ 공동재산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다 □, 변함없다 □ 늘어나고 있다 □
	○ 공동재산을 늘릴 계획입니까? 그 이유는?

□ 마을 공동체활동

상부상조	ㅇ애경사 시 마을주민 전체가 축(부)의금을 내거나 참석한다. 예 □ , 아니오 □ ㅇ가까운 이웃끼리 축(부)의금을 내거나 참석한다. 예 □ , 아니오 □
일상적 교류	ㅇ마을주민들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대부분 자주 만난다. 예 □ , 아니오 □ ㅇ가까운 이웃끼리 혹은 비슷한 연령대끼리는 자주 만난다. 예 □ , 아니오 □
비공식 모임	ㅇ마을내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친목모임이 있다. 예 □ , 아니오 □ (모임성격: 예) 동갑계)
마을 총회	ㅇ 마을 총회는 작년에 대략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_____회
	ㅇ 마을 총회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안건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로 번호를 매겨주십시오. 해당 없으면 빈칸으로 남겨 두십시오 □ 행정연락사항 전달 ( ) □ 마을행사 논의 ( ) □ 마을공동사업 논의 ( ) □ 마을공동작업 논의 ( ) □ 기타(_____) ( )
마을공식조직	ㅇ노인회: 활발하게 운영된다 □ 있지만 활동이 미약하다 □ 존재하지 않는다 □ ㅇ부인회: 활발하게 운영된다 □ 있지만 활동이 미약하다 □ 존재하지 않는다 □ ㅇ청년회: 활발하게 운영된다 □ 있지만 활동이 미약하다 □ 존재하지 않는다 □ ㅇ동계(洞契): 활발하게 운영된다 □ 있지만 활동이 미약하다 □ 존재하지 않는다 □ ㅇ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다른 공식조직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농업관련조직 제외) ( )
마을내 농업조직	ㅇ현재 마을내 조직되어 있는 농업관련조직(작목반, 유통사업조직 등)들을 말씀해주세요 (조직은 되어 있지만 활동이 거의 없는 조직은 제외) ( )
	ㅇ 가장 규모가 큰 농업관련조직의 경우 몇 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호)
마을 내 농업 외 사업조직	ㅇ현재 마을내 조직되어 있는 비농업 사업조직(예:도농교류, 관광 등)들을 말씀해주세요 (조직은 되어 있지만 활동이 거의 없는 조직은 제외) ( )
	ㅇ 가장 규모가 큰 사업조직의 경우 몇 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호)
주민의 마을외부 조직활동	ㅇ마을주민 들 중 농업 혹은 비농업활동(친목이나 동호회활동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 밖의 조직에 참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잘 모름 □
	ㅇ 마을주민들 일부가 참여하는 마을 밖의 조직(친목이나 동호회활동 제외)들 중 주목할 만한 조직들의 조직목적 및 조직범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조직체 1 : 명칭 _____ 범위 _____ □ 조직체 1 : 명칭 _____ 범위 _____ □ 조직체 1 : 명칭 _____ 범위 _____

□ 마을 공동시설, 마을단위사업 활동 그리고 마을전망

공동시설	ㅇ 마을 공동시설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모두 표시해주세요 □ 마을회관 □ 공동창고 □ 공동작업장 □ 체육공원 □ 노인정 □ 정자 □ 기타 ( )
	ㅇ 위의 공동시설 중에 지금도 활발히 이용되고 주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시설들은 무엇입니까? 있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 )
	ㅇ 마을이 마을답게 유지되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현재 마을에 없더라도 마을 존속에 꼭 필요한 시설들을 말씀해주세요 ( )
마을단위 사업추진	ㅇ마을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까?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 추진하였던 사업:
	ㅇ 마을발전방향에 대해 주민들과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ㅇ 마을발전방향을 논의하였을 때 검토되었던 발전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물생산 및 유통 □ 특화작물생산 및 유통 □ 농산물가공사업 □ 농촌관광/체험마을사업 □ 기타 ( )
	ㅇ 위 발전방향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컸던 점은 무엇입니까?
	ㅇ 인근마을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ㅇ 인근마을과 연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들은 무엇입니까?
마을전망	ㅇ 대부분 마을에서 인구가 줄고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귀하의 마을은 앞으로 10년 이후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마을의 형태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ㅇ 위와 같이 변화할 때 가장 어려워질 마을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려운 처지에 놓일 주민들을 도와주는 방법을 마을 단위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 마을주민들의 장소 이용 실태

중요한 장소	ㅇ 다음의 장소들 중 마을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장소들을 순위를 매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을이 구림 중심지역에 포함되면 구림중심지역으로 표시) □ 마을 내 _____ □ 옆 마을 _____ □ 구림 중심지역(상가지역) _____ □ 면소재지 _____ □ 영암읍 _____ □ 목포 혹은 광주 _____
농업경영 측면에서 중요 장소	ㅇ 농업 경영 측면에서 다음의 장소들 중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2 곳에 골라 √ 표시를 하시고, 마을 내가 아니라면 간략히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 마을 내 _____ □ 옆 마을 _____ □ 구림 중심지역(상가지역) _____ □ 면소재지 _____ □ 영암읍 _____ □ 목포 혹은 광주 _____ (중요한 이유:)
사회적 활동 측면에서 중요 장소	ㅇ 주민들의 사회적 활동(친구 만남, 정보교환 등) 측면에서 다음의 장소들 중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2 곳에 골라 √ 표시를 하시고, 마을 내가 아니라면 간략히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 마을 내 _____ □ 옆 마을 _____ □ 구림 중심지역(상가지역) _____ □ 면소재지 _____ □ 영암읍 _____ □ 목포 혹은 광주 _____ (중요한 이유:)
여가활동 측면에서 중요 장소	ㅇ 주민들의 여가활동 측면에서 다음의 장소들 중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2 곳에 골라 √ 표시를 하시고, 마을 내가 아니라면 간략히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 마을 내 _____ □ 옆 마을 _____ □ 구림 중심지역(상가지역) _____ □ 면소재지 _____ □ 영암읍 _____ □ 목포 혹은 광주 _____ (중요한 이유:)
일상생활 측면에 중요 장소	ㅇ 주민들의 일상생활용품 구매 측면에서 다음의 장소들 중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2 곳에 골라 √ 표시를 하시고, 마을 내가 아니라면 간략히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 마을 내 _____ □ 옆 마을 _____ □ 구림 중심지역(상가지역) _____ □ 면소재지 _____ □ 영암읍 _____ □ 목포 혹은 광주 _____ (중요한 이유:)
의료기관 이용 측면에서 중요 장소	ㅇ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측면에서 다음의 장소들 중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2 곳에 골라 √ 표시를 하시고, 마을 내가 아니라면 간략히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 마을 내 _____ □ 옆 마을 _____ □ 구림 중심지역(상가지역) _____ □ 면소재지 _____ □ 영암읍 _____ □ 목포 혹은 광주 _____ (중요한 이유:)

2. 협동연구진 회의 및 사례마을 답사, 전문가 특강 등 회의내용

과제명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연구	과제구분	수시과제
회의제목	전체 연구진 회의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9일(목) 17:00~18:00, 장소 : 국토연구원 7층 회의실		
과제책임자	김선희 선임연구원(국토연구원), 임경수 새마을운동연구소 소장(성결대학교 교수)		
참석자	〈연구진〉 조영국 위촉연구위원(협성대학교 교수) 윤현위 위촉연구위원(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 차은혜 연구원(국토연구원) 김명한 위촉연구보조원(가천대학교 연구원)		
발표자	-		

주요 회의 내용

〈연구 방향 및 일정과 관련된 회의 내용 종합〉

○ 관련 자료 중 「마을의 재발견」(저자: 김기홍)의 저자를 모시고 포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농촌마을의 사회학적 특성 파악과 오늘날 마을의 의미에 대한 내용
-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자료 참조
- 정근식 외, 2003, 「구림연구: 마을 공동체의 구조와 변동」, 경인문화사
- 임재해, 2012, 「마은 문화의 인문학적 가치」, 민속원
- 오홍석, 2005, 「한국의 전통 마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송정기·박재규, 2001, '농촌지역 주민의 사회계층과 일상생활 변화, 농촌사회 11집 2호

○ 본 연구에서 중요한 GIS 작업과 관련해서는 작업량을 가늠할 수 있도록 우선 윤현위 박사가 작업 후 연구진에게 공유하도록 함(6월 말까지는 간단한 분석 결과 도출)
- 결과를 토대로 추후 4개 면 현장 답사에서 다양한 질문이 가능하도록 함
- 60년, 70년, 85년, 00년, 15년 5개년을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함

○ 「빨간벽돌창고와 노란전차」(저자: 강동진) 자료도 참고 가능하고 양동마을에 대한 연구자료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연구진 회의는 **6월 23일 오후 4시**로 설정해 놓고 포럼을 진행하도록 함 「마을의 재발견」(저자: 김기홍)
- 그 다음 주에는 강동진 교수 등을 초청하여 포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6월 23일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6월 26, 27, 28일 중 포럼을 진행하도록 함.

〈향후 계획〉

○ 6월 23일 포럼 진행/ 윤현위 박사 진행 경과도 23일에 함께 진행
○ **「마을의 재발견」(저자: 김기홍)** 6월 23일 초청 결과는 차은혜 연구원이 연구진에게 통보

과제명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연구	과제구분	수시과제
회의제목	전문가 초청 포럼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30일(목) 10:00~12:00, 장소 : 국토연구원 7층 회의실		
과제책임자	김선희 선임연구원(국토연구원), 임경수 새마을운동연구소 소장(성결대학교 교수)		
참석자	〈연구진〉 김선희 선임연구원(국토연구원) 변필성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차은혜 연구원(국토연구원) 김명한 위촉연구보조원(가천대학교 연구원) 그 외 국토연구원 연구진 6인		
발표자	김기홍 기자(농민신문)		

주요 회의 내용

〈연구 방향 및 일정과 관련된 회의 내용 종합〉

○ 「마을의 재발견」(저자: 김기홍) 의 저자를 모시고 포럼을 진행(발제 및 토론)

○ 질문: 마을의 본질에 대하여 3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지?
- 마을을 유지·발전시키는데 자발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를 바탕으로 자족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것임

○ 질문: 마을은 기존에 혈연 지연 중심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마을을 도시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질성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 도시에서의 생활에서도 기존의 마을에서와 같이 서로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지키고 준수한다면 도시에서의 마을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함
- 일본에서 사토야마(산촌) 자본주의가 생겨나고 있으며, 영국의 브렉시트와 같이 기존 자본주의의 균열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합의를 통하여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

○ 질문: 도시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데 중요한 단위가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을을 시스템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에서의 보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를 위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 덴마크의 마을의 경우에도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안내를 해주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함(현재 관련 사업도 진행중에 있음)

○ 질문: 농촌의 마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을의 다양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 마을학에서는 각 마을의 물리적 자원, 인적 자원 등 마을의 이용가능한 다양한 자원이 무엇인지 찾는 것인데 전문가,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다양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음

과제명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연구	과제구분	수시과제
회의제목	사례마을 현장 답사 및 세미나 진행(7월 6일~7일/1박 2일)		
일시 및 장소	2016년 7월 06일(수) 14:00~15:30, 장소 : 포항 문성마을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2016년 7월 06일(수) 17:00~19:00, 장소 : 경주 양동마을		
과제책임자	김선희 선임연구원(국토연구원), 임경수 새마을운동연구소 소장(성결대학교 교수)		
참석자	〈연구진〉 김선희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임경수 소장(성결대학교 교수) 조영국 위촉연구위원(협성대학교 교수) 차은혜 연구원(국토연구원) 김명한 위촉연구보조원(가천대학교 연구원)		
인터뷰어	정은화 관장(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 강동진 교수(경성대학교)		

주요 회의 내용

1. 포항 문성마을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연구 방향 및 일정과 관련된 회의 내용 종합〉

○ 정은화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장의 마을 안내 및 설명을 듣고 세미나 진행
○ 문성마을은 원래 자연부락이었으며 '홍'씨 집성촌이었음
○ 1970년대 이전 마을길 가꾸기에 대한 관심을 문성마을의 이장(홍순표)과 면장(홍순락)이 갖고 있었으며, 지붕개량사업은 이석걸(전직 경찰)님이 도지사에 요청하여 마을길 가꾸기 사업과 함께 진행됨
 - 천석꾼인 홍순락 면장님이 마을길 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200평의 땅을 마을에 기증함
○ 이후 문성마을 순시를 위해 찾아온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마을의 아가씨가 전기와 다리지원을 요청하여 1주일 만에 전기공급과 다리지원을 위한 자재가 지원됨
○ 문성마을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가치를 아는 마을주민들의 공동체형성과 자부심등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있음
 - 홍순표 이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였다고 함
○ 문성마을은 미래를 내다보는 리더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의 시범마을로 지정되었음
 - 혼순락 면장님과 혼순표 이장님의 리더쉽에 의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거둠
○ 현재 문성마을의 길은 새마을운동 이후 변함이 없음. 옛 마을과 새마을운동 이후의 마을 공간구조의 변화가 나타난 사진이 있음(첨부 사진 참조)
○ 문성마을과 봉좌마을은 별개의 마을로 국비지원사업을 위하여 봉좌마을이 '새마을'이라는 용어를 가져다 쓰기 시작함. 2012년 새마을 권역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 받았음
○ 문성마을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빈 집은 15채 가량 되지만 땅값 상승을 기대하는 소유주(2세대)들이 집을 팔지 않고 있음
○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은 인건비 5천만 원, 운영비 1억 원 등 총 1억 5천만 원이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음
○ 문성마을은 현재 인구 고령화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젊은 인구가 거의 없고 노인 인구로 마을이 구성되어 마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음

2. 경주 양동마을

〈연구 방향 및 일정과 관련된 회의 내용 종합〉

○ 경성대 강동진 교수가 책임연구를 진행한 「양동마을 방문문화재만들기(2012)」 보고서를 토대로 양동마을에 대한 역사와 체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세미나 진행
○ 양동마을에는 경주 '손'씨와 '이'씨 종가가 있음. 세계유산을 만드는데 손씨 어른이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이씨 어른은 실질적인 유지로 리더쉽을 발휘함
- 양동마을에는 두 성씨가 선의의 경쟁을 해옴
○ 현재 마을 내에는 향단과 마을 주민들 간의 내적 갈등이 있음. 마을 주민들인 손씨, 이씨 종손들은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데 반하여 향단은 600년 전통의 경험을 손님에게만 제공하고 있음 => 현재 마을 내에는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없어 갈등 해소가 어려움
○ 양동마을의 주민 절반 이상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그 밖에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 및 음식 등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음.
○ 현재 마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2주에 한 번씩 마을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마을 내 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손이 맡아 운영되어 잘 운영되고 있으나 마을에 대한 마케팅까지 진행되지는 않음
○ 마을의 기존 집들의 공간구조는 과거에 비하여 거의 비슷함. 勿자 구조를 갖고 있어서 모든 집들이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집들은 口자 구조를 갖고 있음
- 현재 남아있는 집들은 대부분 양반들의 집이었고 밭은 과거 대부분 가람집(외거 노비 집)이었다고 함
○ 마을의 인구는 줄고 있지만 다른 일반 마을에 비하면 그 속도가 매우 느림. 또한 2세대들이 공가로 돌아오고 있으며, 주민들도 외지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향을 보이는 점은 매우 고무적임
○ 양동마을도 기존의 다른 시골마을처럼 해체될 위기가 있었는데 '풍산금속(업체)'이 안강에 들어와서 마을의 젊은이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는 큰 역할을 하게됨
○ 한남대 한필원 교수 연구팀, 서울대 건축과 연구팀에서 마을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구해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함

〈향후 계획〉

○ 향후 2차로 사례 마을에 대한 현장조사 예정
○ 다음 회의는 7월 20일 혹은 21일에 국토연구원에서 진행 예정

세미나 진행 모습

문성마을 마을 안길 사진

1970년 문성마을

1971년 문성마을

새마을기념관 내부 기념사진

경주 양동마을 세미나 사진

경주 양동마을 사진

양동마을 내 단체사진

과제명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연구	과제구분	수시과제
회의제목	전체 연구진 회의		
일시 및 장소	2016년 7월 21일(목) 15:00~18:00, 장소 : 국토연구원 7층 회의실		
과제책임자	김선희 선임연구원(국토연구원), 임경수 새마을운동연구소 소장(성결대학교 교수)		
참석자	김선희 선임연구원(국토연구원) 임경수 소장 (성결대학교 교수) 조영국 위촉연구위원 (협성대학교 교수) 윤현위 위촉연구위원 (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 차은혜 연구원(국토연구원) 김명한 위촉연구보조원 (가천대학교 연구원)		
발표자	-		

주요 회의 내용

〈연구 방향 및 일정과 관련된 회의 내용 종합〉

※ 마을공간분석 관련
○ 마을공간분석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파악이 되었으나, 자료의 정확도 및 신빙성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
- 과거의 수치지형도와 현재의 수치지형도의 분석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
- 향후에는 면 단위보다는 마을 단위로 분석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기능적 측면이나 마을공동공간요소의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연구의 내용 및 방향과 관련
○ 우리나라의 마을은 1970년대 까지는 다음의 도전을 받지 않았는데 이러한 도전에 대한 대응이 시사점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판단됨 =〉 21세기 마을은 결국에는 커뮤니티라는 결론으로 연구의 방향을 잡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 1970년대 이후 직면한 도전(문제점): 마을의 인구학적 변화(인구감소 및 고령화), 농업경제의 변화, 농촌의 기능에 대한 변화 등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속하는 곳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전통적인 장소 자산, 농업경제에 대응하는 전략, 농촌의 리더에 따라 차별화된 경쟁력,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전략들이 살아남을 수 있음
- 진안의 경우에는 마을 단위의 셀들을 묶어서 군 단위가 살아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출장지로 선정하여 직접 견학할 필요가 있음
○ 고정된 정책이나 사업으로 지속성을 유지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의 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음
○ 경주 양동마을의 경우에는 매우 특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쇠퇴하는 지역이나 마을을 하나의 사례로 정하여 보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마을의 유형을 장소자산 기반형 마을, 네트워크형 마을, 거버넌스형 마을, 리더형 마을 등등 유형에 대하여 좀 더 고민하도록 함

〈향후 계획〉
○ 충남발전연구원 마을 관련 보고서는 전체 연구진에게 공유하도록 함
○ 8월 10~11일에 2차 출장 예정(홍성 문당마을, 영암 구림마을 등 방문, 세미나 진행)
○ 10월 6일 정도에(오후 1시 접수, 국토연구원 새마을운동연구소 공동주최) 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자문회의 겸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준비함

과제명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연구	과제구분	수시과제
회의제목	사례마을 현장 답사 및 세미나 진행(8월 10일~11일/1박 2일)		
일시 및 장소	2016년 8월 10일(수) 12:00~15:00, 장소 : 충남 홍성 홍동면 2016년 8월 11일(목) 09:00~111:00, 장소 : 전남 영암군 구림		
과제책임자	김선희 선임연구원(국토연구원), 임경수 새마을운동연구소 소장(성결대학교 교수)		
참석자	〈연구진〉 김선희 선임연구원(국토연구원) 임경수 소장(성결대학교 교수) 조영국 위촉연구위원(협성대학교 교수) 차은혜 연구원(국토연구원) 김명한 위촉연구보조원(가천대학교 연구원)		
인터뷰어	구자인 박사(충남연구원) / 최복 선생님(구림마을)		

주요 회의 내용

1. 충남 홍성군 홍동면(구자인 박사)

〈연구 방향 및 일정과 관련된 회의 내용 종합〉

○ 홍동면은 기독교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 1980년대 처음 대학생들로 구성된 농활대들이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일부가 마을에 정착하고, 아이들을 낳게 되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학과정까지 교육체계를 구축하게 됨.
○ 홍동면은 유기농법을 거의 최초로 시도한 마을로 2000년대에 유기농법을 활용한 농업의 꽃을 피기 시작하게 됨. 현재 홍동면에서는 약 50여개의 마을 활동과 관련된 조직들이 있음.
○ 홍동면의 경우에는 마을 자체의 기능이 약해져서 면 단위의 마을 활동이 주를 이뤄 마을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었다고 판단됨. 이러한 측면에서 넓은 범위의 새로운 마을의 개념을 접근한다는 점에서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
○ 1980년대 말 이후로 귀농자들이 매우 많이 마을로 들어왔으며, 기존의 마을주민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관이 섞이는 과정을 겪기도 하였음.
○ 양동마을의 경우 강력한 장소자산을 갖고 있어서 마을 주민들의 가치관이 통일될 수 있었지만, 일반 농촌마을의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이 각자 다른 가치관들을 갖고 있는데 이를 묶을 수 있는 단위로서 '면'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마을 주민들의 욕구를 표출하고 한데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음
○ 마을의 중심이 되는 풀무학교는 한 학년에 30명 정도의 정원이 있으며,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음. 풀무학교는 대안학교의 원형이라고 볼 수도 있음.
- 전국적으로 목사님들의 자제들, 교사활동을 해온 분들의 자제들, 유기농업을 해온 분들의 자제들이 입학하고 있음.
-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전문대 과정의 전공부(1,2 학년 과정)가 만들어지고 초기에 귀농학교의 역할을 해왔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에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 농사를 배우고 있음(학생은 1년에 10명 이내, 선생님들은 약 5명 정도임).
○ 밝맑도서관은 풀무학교를 설립하신 분의 자제분이 기부한 1억원의 종자돈을 시작으로 학교 도서관을 만들게 됨. 특이한 점은 학교 도서관은 학교 내에 위치한 것보다는 학교 외부 마을 안에 위치하도록 하여 도서관을 만들게 됨(건물 건설비용이 약 6억원).
○ 마을 내에는 '마을활력소'라는 곳이 있는데 민설민영의 조직으로 권역사업의 성과로 인한 상금으로 마을

밖에 마을활력소라는 곳을 짓고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밝맑통신이라는 마을 활동들을 정리한 소식지도 발간하고 있음.
- 충남연구원 차원에서도 이러한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담 연구자를 고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유기농 중심)
- 마을의 학회인 가칭 '학교와 지역학회'를 만들어 홍동면의 학습 활동의 일환으로 활동들을 정리하고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연말에 학회를 발촉 예정임.

○ 홍동면의 경우에는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홍동면 안에 다양한 활동들이 많아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모르는 주민들이 있다고 함. 마을 내에는 주민들이 모이는 술집(호프집, 주막)이 있음. 하지만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아님(끼리끼리 모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함).
○ 마을 내에는 풀무학교를 졸업한 젊은 인재들이 유기농 농산물,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음.
○ 홍동면의 경우에는 고속버스보다는 기차(장항선)를 많이 이용하여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을 활용하고 있음. 근처 시로는 아산시가 있으며, 대전시로의 대중교통은 불편하여 자가용을 이용한다고 함.
○ 홍동면 안에 약 50개의 단체들이 있는데, 정형화된 조직들도 있고, 필요에 의한 동아리 형태의 모임들이 많이 있음(뜸, 뜨개질, 들고양이보존회 등).
○ 마을 안에서도 음악연주회, 영어팟캐스트 등의 깜작 공연도 있으며, 번역가, 농업 박사 등등 다양한 인재들이 함께 살고 있음.
○ 풀무학교와 마을의 지도자들은 마을의 청년들에게는 일과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 최근 마을에는 의료생협이 만들어졌음. 의료생협은 마을회관 자리를 활용하여 활동할 예정임.
○ 마을 주민들의 생업은 논농사라고 할 수 있으나 소농업인들은 쉽지 않고 축산농가들이 그나마 돈을 벌고 있음. 오리를 활용한 유기농법의 경우 최근에는 많이 하지 않고 있음. 최근 집오리를 활용한 오리농법에 대한 시도가 있음.
○ 홍동면 안에는 7~8개의 리가 있고 문당리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그 중에 2000년 문당리 100년 계획(예산: 1천만원)을 세워서 주목을 받게 됨. 우리나라 최초의 마을단위 100년 계획을 수립했다는 의의가 있음.

2. 영암 구림마을(최복 선생님)

〈연구 방향 및 일정과 관련된 회의 내용 종합〉

○ 구림은 9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음. 9개 마을 중 7개 마을은 한옥지정마을사업으로 가구당 5천만원씩 지원을 하여 한옥을 만듦(융자는 3천만원, 개인당 약 1억 5천만원 정도씩 부담하여 한옥 건설)
○ 구림마을은 현재 770가구 정도의 규모로 유지되고 있음(1가구당 2명씩으로 생각하면 됨, 현재 1인가구는 전혀 없음. 아파트(빌라) 가구가 인구유지의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구림은 현재 4성씨가 반 외지인이 반 정도로 구성되어 있음. 대동계(450년)와 구림기로계(120년, 70명 정원)이 인데 현재 정원이 유지되지 않고 있음
○ 1982년 최복선생이 죽정마을에 주주회를 만들었는데 금년 말에 결산하여 계가 깨질 예정에 있음. 총계와 별도로 주주회가 있었는데 총회를 할 수 없고 주주들이 고령화하여 계를 깨기로 결정함. 지속성이 보장이 안 됨.
- 마을 내에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촌계 총계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구림마을에는 9개의 이장들이 있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목포, 영암 삼호중공업(조선소) 등으로 주로 출근하고 있음.

○ 집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180호) 인구는 점차 줄어듦(1가구 당 1~2인)임 60세 미만이 거의 없음. 청년회는 60~75세 사이임.
○ 도기 박물관이 있는 한옥이 잘 정비되어 있는 곳에 비하여 현재는 마을 내에서의 결혼계는 20년 전에 깨지고, 상조계는 10년 전에 깨짐.
○ 구림마을의 청년회에서 벚꽃축제는 시작하였는데 군 차원에서 왕인축제를 기획하여 축제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음.

○ 현재 구림마을에는 전통적인 정신과 생활양식을 유지하려는 마을주민들과 베드타운으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외지인들 그룹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임.
○ 도기박물관은 평소 조금씩 활용하지만 한옥 목재 체험관의 경우 연중 며칠 사용하지 않고 있음.
○ 500년 이상 유지되어오던 구림마을은 전통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경우 연세가 많아져 전통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며,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빈 집들도 많이 있음.
○ 구림마을은 벼와 보리의 이모작으로 생활하였으며, 현재는 벼농사를 주로 진행하고 있음. 축산의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의 연령이 높아서 유지가 힘듦. 농사와 관련된 조직체는 거의 없음.
○ 왕인문화축제, 벚꽃축제 등 관광문화 마을로 변화하는 데는 최복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순응하고 있다고 함.
○ 구림마을의 이장들의 회의는 1달에 1~2번씩은 면사무소에서 진행하고 매달 25일 진행함. 하지만 현재 구림마을에는 지역의 리더는 없는 상황임. 노인계, 청년계(현재는 군소 청년계로 확대함. 인원이 없어서), 등등이 있긴 함. 예전과는 다르게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음.
○ 500년 된 구림마을의 전통의 중심은 향약이라고 볼 수 있으나, 현재는 이마저도 그 기능이 약해지고 있음. 점차 마을의 기능과 역할이 퇴색되어가고 있음. 전통 생활양식과 현대식의 생활양식이 혼재되어 있음.
○ 구림공고(공립)는 대동계라는 조직에서 또 다른 계(송계)를 만들어서 구림중, 구림고 등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20년 이전에 생김. 고등학생들은 전부 외지인들임(기숙사 생활). 구림초는 60명, 중학교는 23명 정도 있음(목포나 광주로 이주한다고 함).
○ 구림마을은 현재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향후 미래는 별장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최복선생님).

〈향후 계획〉

○ 향후 3차로 사례 마을에 대한 현장조사 예정
○ 다음 회의는 가능한 빨리 국토연구원에서 진행 예정

홍동면 밝맑도서관

홍동면 마을 안내 지도

홍동면 회의진행모습

홍동면 세종시(공무원 또는 주민) 견학 모습

구림마을 회의진행모습

구림마을 회의진행 후 기념사진

과제명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연구	과제구분	수시과제
회의제목	전체 연구진 회의		
일시 및 장소	2016년 8월 18일(목) 16:00~18:00, 장소 : 국토연구원 10층 회의실		
과제책임자	김선희 선임연구원(국토연구원), 임경수 새마을운동연구소 소장(성결대학교 교수)		
참석자	김선희 선임연구원(국토연구원), 임경수 새마을운동연구소 소장(성결대학교 교수), 조영국 위촉연구위원(협성대학교 교수), 윤현위 위촉연구위원(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 차은혜 연구원(국토연구원), 김명한 위촉연구보조원(가천대학교 연구원)		

주요 회의 내용

〈연구 방향 및 일정과 관련된 회의 내용 종합〉

※ 마을 조사 관련 논의

○ 8월 29일 오전 11시 영암 구림마을의 이장단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첫 번째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도록 함(차은혜 연구원, 김명한 연구원, 윤현위 박사 등이 참여 예정)
- 구림마을은 연구진 포함 3~4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조사자들을 모아 놓고 설문에 관련된 사전 교육을 8월 22~26일 사이에 실시하도록 함.(24,25,26일 정도로 예정함)
- 차은혜 연구원은 설문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구림마을 군서면사무소에 요청하도록 함. 객관적인 통계자료의 경우 미리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함(다음 주 중)

○ 9월 초에 홍성 홍동면에 조사자들과 함께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이장님들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함
- 차은혜 연구원은 설문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홍동면사무소에 요청하도록 함. 객관적인 통계자료의 경우 미리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함

○ 경주 양동마을의 경우에는 마을 이장님을 만나서 조사하도록 함
- 연구진 중 김선희 박사가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함

○ 강원도 화천의 토고미 마을을 추가하여 사례를 조사하도록 함

※ 설문 문항 관련

○ 윤현위 박사가 준비해온 교통, 의료, 교육, 행정, 경제활동 및 여가 등의 문항을 만들어 마을 대표자에게 마을별 1개씩 설문을 진행하도록 함. 윤현위 박사가 수정 예정

○ 설문 문항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각각의 설문 문항에 대한 답변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함

○ 새마을운동 사업을 진행하였던 경우, 과거 새마을운동 사업추진을 하였던 것이 현재 사업추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문항, 새마을지도자 활동에 대한 문항(유무, 역할 등)을 추가하도록 함(조영국 교수가 수정 예정)

※ 해외 사례 마을 관련

○ 일본의 마을사례와 관련해서는 정석호 박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도록 함(윤현위 박사가 문의)

○ 유럽의 마을사례와 관련해서는 네덜란드에 있는 강빛나래 박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도록 함(임경수 교수가 문의)

〈향후 계획〉

○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세미나에서 완성된 연구 결과를 내놓고 진행하도록 함(당초 계획을 수정함)

○ 다음 주 초인 8월 22일까지 설문 조사지를 확정하여 연구진에게 전체 공유하도록 함(조영국 교수, 윤현위 박사)

○ 9월초 홍성 홍동면을 방문하여 설문을 진행함

○ 9월 1일에 강원도 화천 마을과 관련하여 국토연구원에서 특강을 요청함

과제명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연구	과제구분	수시과제
회의제목	전체 연구진 회의		
일시 및 장소	2016년 8월 25일(목) 14:00~16:00, 장소 : 국토연구원 7층 회의실		
과제책임자	김선희 선임연구원(국토연구원), 임경수 새마을운동연구소 소장(성결대학교 교수)		
참석자	조영국 위촉연구위원(협성대학교 교수) 윤현위 위촉연구위원(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 김명한 위촉연구보조원(가천대학교 연구원)		

주요 회의 내용

〈연구 방향 및 일정과 관련된 회의 내용 종합〉

※ 마을 이장님 대상 설문조사 관련
○ 마을의 변화 및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완성된 설문지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기재하도록 함
○ 마을 내 인구 및 가구 수, 마을의 주요 공동재산 및 시설 등은 전체 매우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최대한 정확하게 기재하여 마을내부의 공동체와 주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함
○ 가장 중요한 문항인 향후 마을의 발전 및 쇠퇴에 대한 문항에 대한 답변은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함
○ 주요 대상 마을로는 경주 양동마을, 영암 구림마을, 홍성 홍동면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향후 필요에 따라서 다른 마을도 조사하도록 함

〈향후 계획〉

○ 영암 구림마을 먼저 이장님 대상 조사를 시작함

과제명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연구	과제구분	수시과제
회의제목	사례마을 설문조사 결과(8월 29일)		
일시 및 장소	2016년 8월 29일(화) 10:00~12:00, 장소 : 전남 영암 군서면사무소		
과제책임자	김선희 선임연구원(국토연구원), 임경수 새마을운동연구소 소장(성결대학교 교수)		
참석자	윤현위 위촉연구위원(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 차은혜 연구원(국토연구원) 김명한 위촉연구보조원(가천대학교 연구원)		

주요 회의 내용

〈설문조사 결과〉

○ 군서면의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구림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총 8명의 이장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 설문 결과는 마을별로 한글 파일로 정리하여 전체 연구진과 함께 공유
○ 자세한 사항은 설문조사 결과 파일 참조

〈향후 계획〉

○ 9월 20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이장단 회의 방문 예정

과제명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연구	과제구분	수시과제
회의제목	사례마을 설문조사 결과(9월 20일)		
일시 및 장소	2016년 9월 20일(화) 10:00~12:00, 장소 : 충남 홍성군 홍동면사무소		
과제책임자	김선희 선임연구원(국토연구원), 임경수 새마을운동연구소 소장(성결대학교 교수)		
참석자	윤현위 위촉연구위원(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 차은혜 연구원(국토연구원) 김명한 위촉연구보조원(가천대학교 연구원)		

주요 회의 내용

〈설문조사 결과〉

○ 홍동면의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홍동면에 거주하고 있는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총 25명의 이장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그 중 23장의 설문지를 활용함
○ 설문 결과는 마을별로 한글 파일로 정리하여 전체 연구진과 함께 공유
○ 자세한 사항은 설문조사 결과 파일 참조

〈향후 계획〉

○ 9월 26일 충북 보은군 하얀민들레마을 방문 예정

과제명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연구	과제구분	수시과제
회의제목	사례마을 현장 답사 및 세미나 진행(9월 26일)		
일시 및 장소	2016년 9월 26일(월) 13:00~16:00, 장소 : 충북 본은군 회은면 하얀민들레생태마을		
과제책임자	김선희 선임연구원(국토연구원), 임경수 새마을운동연구소 소장(성결대학교 교수)		
참석자	김선희 선임연구원(국토연구원) 김명한 위촉연구보조원(가천대학교 연구원)		
발표자	안충기 위원장님(하얀민들레생태마을) / 기경희 사무장(하얀민들레생태마을)		

주요 회의 내용

1. 안충기 위원장님

〈연구 방향 및 일정과 관련된 회의 내용 종합〉

○ 1975년에는 회인면에서는 약 1만7천명 정도 인구가 있을 정도로 마을의 규모가 컸으며, 마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을의 기능을 해왔음
- 슈퍼, 술집, 재제소 등이 있었음

○ 현재 회인면에는 약 2천명 정도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하얀민들레 생태마을의 경우 약 60%이상이 60대일 정도로 고령화기 진행되었음
- 어린이들이 있는 집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문화가정임

○ 하얀민들레생태마을의 경우 향후 마을이 쇠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도시지역의 거주를 위한 주민들의 수요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임

○ 하얀민들레생태마을의 경우 현재 공동체는 유지되어오고 있으나, 도시지역에서 오는 외부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베드타운화 될 경우에는 공동체의 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하얀민들레생태마을의 경우에도 마을 전체가 공동체적 정을 나누고 있으며, 작목반과 같은 모임이 있는데 작목반에는 지원금을 위해서 작목반을 조직하는데 그침

○ 회인면의 경우에는 대청댐 때문에 찜질방, 효나눔센터 등이 있어서 수자원공사의 지원으로 복지가 매우 잘 되어 있음. 하얀민들레마을에서는 면사무소와의 거리가 걸어서 15~20분 사이기 때문에 마을 어르신들이 자주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 마을 주민들은 기본적인 의료시설은 보은군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며, 큰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주로 나가서 마을을 이용함

○ 최근 상주-청주 고속도로가 생겼으며, 마을 3키로 정도 거리에 회인IC가 있어 전국 어디든 3시간 안에 이동이 가능함. 또한 이 때문에 마을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는 수요가 높음

○ 하얀민들레생태마을의 경우에는 인구와 경지면적에 따라 1년에 1천5백만원 정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금이 나옴(대청댐)

○ 주변 마을로는 에곡1리, 에곡2리가 있으며 주변 마을들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애경사는 모두 참석). 최근 3년 전까지는 겨울철 윷놀이 대회도 진행했었음(현재는 없음)

○ 외부의 젊은이들이 마을로 들어올 수 있는 요인으로는 대추농사가 있음. 하지만 땅이나 농기계등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오기 힘듦
- 마을에 들어오고 있는 젊은 층들은 부모님들의 땅을 활용하여 농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강원도 인제군 물안마을(소양강댐 상류)의 경우에는 여름철 하우스 토마토, 더덕밭, 등을 활용하여 소득이 높아서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함(방문가치가 있음)

○ 하얀민들레생태마을의 경우에는 보은군 지원으로 사무장이 있어서 정부의 다양한 사업들을 활용하여

소득을 높이고 있음(권역사업), 녹색농촌휴양마을(농림부) 등).

○ 하얀민들레생태마을이 만들어진 이유는 녹색농촌휴양마을로 지정됨과 동시에 대청댐 상류의 단점을 활용하여 생태마을로 만들자는 취지와 마을 특유의 하얀민들레가 많이 자람에 따라 만들게 됨

○ 마을에는 정영수 변호사라는 분이 귀향하면서 안충기 위원장님과 함께 녹색농촌휴양마을, 권역사업 등을 신청하여 2007년정도부터 마을의 활력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게 됨(마을 리더)

○ 10년 후에 하얀민들레생태마을은 고령화는 진행되겠지만 자녀들이 향후 귀향하면서 유지가 될 것이라고 짐작됨

○ 마을에서는 현재 권역사업으로 마을환경개선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음.

○ 마을에서는 주민생활관을 지어서 독거노인의 증가를 대비하여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음

○ 마을은 지리적으로 조망권도 매우 좋으며 일조권도 매우 좋음.

○ 마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마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하고 유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됨

- 낚시대를 만드는데 낚시대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음(농촌환경개선 보다는 젊은이들이 먼저 오도록/ 농업경영인과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

〈향후 계획〉

○ 9월 28일 화천군 방문 예정

회의 진행모습

마을 안내 지도

마을 현황판

마을 내 습지(과거 하수 정화기능 역할)

마을내 고택

마을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

과제명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연구	과제구분	수시과제
회의제목	사례마을 현장 답사 및 세미나 진행(9월 28일)		
일시 및 장소	2016년 9월 28일(수) 14:00~16:00, 장소 : 강원도 화천군청 4층 교육복지과		
과제책임자	김선희 선임연구원(국토연구원), 임경수 새마을운동연구소 소장(성결대학교 교수)		
참석자	김선희 선임연구원(국토연구원), 김명한 위촉연구보조원(가천대학교 연구원)		
인터뷰어	최수명 과장님(화천군청 교육복지과)		

주요 회의 내용

1. 최수명 과장님

〈연구 방향 및 일정과 관련된 회의 내용 종합〉

○ 화천읍은 인구가 약 2만 7천명 정도 되는 지역이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바둑판 모양의 도시계획이 도입되었음
○ 홍성 홍동면의 문당리의 경우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외부의 사람들이 모여서 풀무학교 및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외부로부터 동력을 받아 지속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음
○ 외국의 공동체마을 중 독일에서 시작된 아미쉬라는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것은 마을 주민들의 신앙에서 시작되었지만, 마을이 왜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함께 먹고 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음
○ 화천군의 마을들의 경우에는 1980년대까지는 마을이 유지되어 오다가 1990년대 IMF를 겪으면서 상업농이 들어오면서 점차 마을이 붕괴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의 경제구조가 바뀜에 따라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고 가치의 기준이 바뀌면서 기존 지역의 마을인구는 줄어들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마을의 공동 재산도 점차 없어지고 있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음
○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약화라고 볼 수 있음. 과거에는 학교의 역할 중 하나가 공동체의 유지 기능도 해왔으나 오늘날 학교의 선생님들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단순한 직업으로만 생각함(현재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공동체 유지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화천의 경우에도 선생님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대부분 집이 있는 춘천으로 퇴근을 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며 공동체 유지를 위한 노력을 안 함
○ 농촌 마을의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청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계속 마을을 떠나려하는 경향을 보임
○ 현재 농촌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자녀의 교육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젊은 인구가 농촌으로 모여들기 쉽지 않으며, 외부로 나가려는 경향을 보임
○ 지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음. 마을이 모든 문제를 농업에서만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음
○ 화천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마을인 토고미마을의 65세 인구 비중이 20.6%로 높지 않음. 외부 유입인구가 매우 적으며 예전부터 살아온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음
○ 화천군에는 토고미, 유촌리, 간동면은 순수 농촌지역임. 화천군의 경우 군사지역이 있기 때문에 65세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통계자료 참고)
○ 화천군에 거주하는 군인들 중 대령급 계급의 군인들은 고등학생까지는 화천에 데려와서 함께 살고 있는데 큰 이유 중 하나로 화천군청의 높은 교육예산이 있음
- 방과후 수업, 장학재도, 해외 방문, 농업인자녀들에 대해서는 서울의 대학으로 가면 방 값지원, 학비지원, 장학금 등등

○ 오늘날 지역사회와 교육이 매우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학교는 지역의 문제에 큰 관심이 없음.
 - 교육자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마을을 활성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작은 평수의 주택임대사업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 화천의 경우 읍내에 공무원, 교사, 군인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 화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400명, 교사 400명, 군인 1000명 정도 중 절반 이상이 춘천에 거주하는 이유가 바로 주거문제와 교육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토고미마을은 쌀을 판매하는 역할과 마을 자체를 관리하는 이장님의 역할이 각각 다르게 분리되어 있음
 - 문의는 영농법인 한상열 선생님께 요청할 수 있음(010-5365-2719)
○ 화천군의 경우에는 생활권은 대부분 읍단위로 생활하고, 병원들도 화천읍을 활용하거나 춘천을 활용함

〈향후 계획〉

○ 전체 연구진 회의 개최

회의 진행모습

년령대별 인구현황

년령대	토고미		상서면		유촌리(%)		간동면		화천군(%)	
계	306	100%	4,850	100%	739	%	2,809	%	26,300	
1 - 5세	10	3.3	252	5.2	14	1.9	50	1.78	1,204	4.58
6 - 10	3	1	103	2.1	15	2.0	52	1.85	1,015	3.86
11 - 15	5	1.6	106	2.2	21	2.8	78	2.78	1,007	3.83
16 - 20	9	2.9	148	3.1	29	3.9	124	4.41	1,293	4.92
21 - 25	58	19	1,080	22.3	118	16.0	211	7.51	3,041	11.56
26 - 30	34	11.1	574	11.8	72	9.7	133	4.73	2,111	8.03
31 - 35	11	3.6	311	6.4	26	3.5	81	2.88	1,685	6.41
36 - 40	14	4.6	223	4.6	24	3.2	74	2.63	1,450	5.51
41 - 45	12	3.9	174	3.6	48	6.5	150	5.34	1,551	5.90
46 - 50	20	6.5	207	4.3	52	7.0	227	8.08	1,761	6.70
51 - 55	21	6.9	270	5.6	76	10.3	248	8.83	2,031	7.72
56 - 60	31	10.1	332	6.8	58	7.8	339	12.07	2,045	7.78
61 - 65	15	4.9	241	5	50	6.8	252	8.97	1,446	5.50
65세 이상	63	20.6	829	17.1	136	18.4	790	28.1	4,660	17.72

화천군 인구 통계 자료

과제명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연구	과제구분	수시과제
회의제목	전체 연구진 회의		
일시 및 장소	2016년 10월 25일(목) 16:00~18:00, 장소 : 국토연구원 7층 회의실		
과제책임자	김선희 선임연구원(국토연구원), 임경수 새마을운동연구소 소장(성결대학교 교수)		
참석자	〈연구진〉 김선희 선임연구원(국토연구원) 임경수 새마을운동연구소 소장(성결대학교 교수) 조영국 위촉연구위원(협성대학교 교수) 차은혜 연구원(국토연구원) 김명한 위촉연구보조원(가천대학교 연구원)		

주요 회의 내용

〈연구 방향 및 일정과 관련된 회의 내용 종합〉

※ 연구진행 현황 파악 및 최종보고서 작성 관련

○ 보고서 작성은 김명한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 양식 틀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함
○ 보고서 2장 중 미래 변화에 따른 마을정책 변화와 관련 원고는 김선희 박사가 작성
○ 보고서 2장 마을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3장 국토공간에 있어서 마을단위 정책 원고는 임경수 교수가 검토 및 작성
○ 보고서 3장 중 부처별 연대별 마을 관련 정책에 대한 원고는 윤현위 박사에게 맡기도록 함
○ 조영국 교수가 작성한 사례마을 분석 틀에 맞추어 보은 하얀민들레 마을, 함양 봉전마을, 화천 토고미 마을 등 사례마을 분석을 추가 정리(김명한 연구원)
○ 5장 21세기 마을 공간구조 개선방안은 없애고 4장의 내용을 토대로 5장 결론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도록 함(전체 연구진 검토)
○ 보고서 부록에는 설문지와 본 연구의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함

〈향후 계획〉

○ 11월 14일 (월) 오후 3시 국토연구원에서 자문위원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함
- 원고는 11월 8일까지는 정리 및 종합하여 자문위원들에게 송부하도록 함
- 자세한 타임라인은 차은혜 연구원이 연구진 및 자문위원들에게 통보 예정

과제명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연구	과제구분	수시과제
회의제목	자문회의		
일시 및 장소	2016년 11월 18일(금) 16:00~18:00, 장소 : 국토연구원 8층 회의실		
과제책임자	김선희 선임연구원(국토연구원), 임경수 새마을운동연구소 소장(성결대학교 교수)		
참석자	김선희 선임연구원(국토연구원), 임경수 새마을운동연구소 소장(성결대학교 교수) 조영국 위촉연구위원(협성대학교 교수) 윤현위 위촉연구위원(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 차은혜 연구원(국토연구원), 김명한 위촉연구보조원(가천대학교 연구원)		
자문위원	김정연(충남대학교) / 오형은(지역활성화센터)		

주요 회의 내용

〈연구 방향 및 일정과 관련된 회의 내용 종합〉

※ 최종보고서 관련 자문회의 진행

〈김정연 충남대 교수 자문의견〉

○ 연구 구조상 본 연구의 전반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1장 말미 또는 2장에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장은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함. 2장의 변천과정과 지속가능성이 3장에서도 반영되도록 3장의 제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5장의 1절을 4장의 3절로 끌어올려서 4장에서의 체계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5장을 정리할 때 국토 공간과 농촌 공간에서 마을의 기능과 역할을 염두해 두고 첫째, 농촌의 정주체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EU의 분류 등 참조 => 개별마을과 주변가의 관계) 둘째,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곳과 쇠퇴하는 다수마을에 대한 언급을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농촌의 경우에는 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지 때문에 지역의 유형과 정주체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

○ 5장과 관련하여 2장에서 마을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한 이야기 중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정주체계의 관점에서의 마을의 기능 축소(이상문 교수 제기), 공동체 약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흐름을 통해서 본 마을과 마을 간의 관계와 같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3장 1절 1소절에서는 '농업정책' 보다는 '농업농촌정책'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50년사 및 70년사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35페이지)

○ 36페이지 표는 공간단위를 '군, 면, 마을'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하나에 국한됐던 마을의 한계를 마을간 연계로 풀어낸 점과 지속가능한 마을에 대한 고민을 결론 부분에서 잘 풀어내면 좋겠음
- 마을간 연계의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의 속성을 강조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공동체활동으로 마을을 연계하기 힘듦. 결국에는 공동체 비즈니스로 성장해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을 연계하다 보니 진행이 잘 되지 않음 => 이러한 시사점을 반영하여 관련 역량이 있는 주체들을 묶어주는 사업을 제안해 볼 수 있음
- 농림부는 2004년부터 권역사업을 통해 마을간 연계를 도모하였으나 잘 진행되지 않았음(잘된 곳도 있지만, 잘 안 된 곳도 있었음)

○ 2005년 엄창호 교수가 쓴 국토지 '도농 순환형 차원에서 경제구조' 관련 논문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발전된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서비스를 활용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제공
- 보험법, 자동차운송사업법 등의 개선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음
○ 개별 마을에 있어서는 주체가 필요한데 마을 내부의 액터보다는 외부에서 MPO 방식으로 함께하는 방식을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일본 과소화된 마을 간의 연계 및 의사결정 과정을 위한 서비스가 중요함(교토 지역의 사례, 진안지역의 사례를 활용 가능) =〉 163페이지의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주민참여형 사업 중 마을 내 일부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푸드트럭을 몰고 주민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음(예: 공주시 푸드트럭, 뭐든지 발굴단 활용 지역자원 발굴)
○ 추진 측면에서는 (거창군이 대표 사례, 예산 1억 5천) 역량강화가 지속가능하도록 중간지원조직(행정+민간단체)을 만들어 각 교과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이미 지속가능하다고 판단함
- 거창의 경우에는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주민들과 외부 전문가 사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
- 진안은 마을 간사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진행 중임
○ 최근 5년을 기점으로 과거에는 돈 잘 버는 마을이 잘사는 마을이었으나 최근에는 행복하게 사는 마을이 잘 사는 마을로 관심을 받고 있음
○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류학적 사회학적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러한 것들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시군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구자인 박사가 충남에서 도 차원의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나가고 있음)
○ 충북 옥천군 안남면 사례를 보내주실 예정임-물 이용 지원금을 면 단위로 확대하여 사업을 진행함(예: 배바우 도서관)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자문의견〉

○ 사례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등도 있지만 마을 단위의 움직임(마을 또는 읍면), 마을 단위의 행사(마을 또는 읍면)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산림 관리, 의용 소방대 활동 등에 대한 정리가 있다면 구체적 대안이 가능함
○ 농촌 중심지에서의 마을 단위 관리에 대한 정리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일반 농촌마을에서의 정주공간의 개선에 대한 내용 필요하다고 생각함. 도시근교의 농촌마을과는 다르다고 생각함
○ 도시 내 마을과 농촌마을 간의 교류 활동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에너지 부분도 마을 기능의 유지와 관련해서 중요하므로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보고서 결론 부분에 대안으로서 에너지에 대한 언급 필요(김정연 교수님이 자료 제공 예정)
- '농촌 공간의 재구조와 방안(오형은 대표님 제공)' 논문을 제공. 이를 활용 가능함
○ 쇠퇴하는 마을 간 연계를 위한 대안으로 마을의 범위를 파악할 때 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의료, 교육, 일상생활, 문화생활 등) 각각의 범위가 정해질 수 있음
○ 과거에는 마을 주민 모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이었지만 최근에는 마을 내 능력이 있는 리더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필요함
○ 완주는 전주에 근접하였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음
- 지역 내 생산, 지역 내 소비는 실질적으로 유지가 어려웠음(예: 금산도 대전권을 껴야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함)
○ 문화, 복지, 보건, 의견 등이 복합되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마을기본법에서는 자연마을을 포함하여 읍이나 면 단위로도 보려는 시도가 있음
 - 입법 관련 토론회가 11월 21일 월요일에 열릴 예정임(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박사 참여)

〈전체 연구진 참고〉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부분은 전체 연구진이 검토 후 내용에 대한 제안을 김선희 박사님께 전달
○ 결론 부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안 및 내용은 연구 책임자를 비롯하여 전체 연구진에게 제안하도록 함

〈향후 계획〉

○ 11월 30일 (수) 오후 2시 국토연구원에서 최종 연심회를 진행 예정
○ 김정연 교수님의 자료는 차은혜 연구원이 전체 연구진에게 공유하도록 함
○ 11월 23일 (수) 까지 최종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함(22일 저녁까지 제출)

수시 16-33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연구

지 은 이 김선희, 차은혜, 임경수, 조영국, 윤현위, 김명한, 장 원, 정석호
발 행 인 김동주
발 행 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5100-1994-2
인 쇄 2016년 11월 30일
발 행 2016년 11월 30일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전 화 031-380-0114
팩 스 031-380-0470
가 격 비매품

ISBN 979-11-5898-159-4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B171502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16,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와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제공한 Kopub돋움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연구

제1장 서론
제2장 지속가능한 마을 개념 및 변천과정
제3장 국토공간에서의 마을단위 정책과 해외사례
제4장 사례지역: 마을특성 및 변천과정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국토연구원
KRIHS

1406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전화. 031.380.0114 팩스. 031.380.0470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비매품
93300
9 791158 981594
ISBN 979-11-5898-159-4